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 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

# 차 례

---

|   |    |
|---|----|
| 1. 국가개요 .....   | 1  |
| 2. 경제동향 및 전망/경제동향과 전망 .....                                   | 2  |
| 3. 한국과의 무역관계 .....  | 3  |
| 4. 한국과의 무역관계/대 크로아티아 연도별 수출입 규모 .....                         | 7  |
| 5. 한국과의 무역관계/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품목(2004년 기준) ..                     | 10 |
| 6. 한국과의 투자관계 .....  | 11 |
| 7. 수입규제 사례 .....  | 11 |
| 8. 현지 히트 상품/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식물성의약품 .....                         | 12 |
| 9. 현지 히트 상품/보안장비 .....  | 13 |
| 10. 현지 히트 상품/건설장비(유압 건설 장비).....                              | 15 |
| 11. 진출 성공/실패 사례/다양한 품목, 소량주문에 응해 시장진출에 성공한 사례(C,T,M사)....     | 16 |
| 12. 진출 성공/실패 사례/철강/설비 등의 경우 전대자금을 이용하여 수출에 성공한 사례(M,S사) ..... | 17 |
| 13. 진출 성공/실패 사례/공급자/수입자 공동성장인식으로 성공한 사례(H,S사) ..              | 18 |
| 14.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웨어하우스 설립판매방식을 통한 성공사례(E사) .....             | 19 |
| 15. 주요 이슈/크로아티아의 최우선 정책 과제 : EU가입 .....                       | 19 |

---

|  |    |
|--|----|
| 16. 주요 이슈/크로아티아의 지가 상승과 건설 붐 .....     | 21 |
| 17.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               | 22 |
| 18. 출입국/비자/비자 취득시 필요 서류 .....          | 23 |
| 19. 환전 .....                           | 23 |
| 20. 환전/2005년 6월 21일 각국 통화 환율 .....     | 25 |
| 21. 기후 .....                           | 25 |
| 22. 공휴일 .....                          | 26 |
| 23.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             | 26 |
| 24. 호텔 .....                           | 28 |
| 25. 식당 .....                           | 28 |
| 26. 교통/통신/교통, 통신 .....                 | 29 |
| 27. 교통/통신/지역간 대중교통 소요시간 .....          | 30 |
| 28. 유용한 연락처 .....                      | 31 |
| 29. 여행시 유의사항 .....                     | 32 |
| 30. 관광명소 .....                         | 33 |
| 31. 유용한 현지어 표현 .....                   | 37 |
| 32. 유용한 현지어 표현/크로아티아어 학습 사이트(무료) ..... | 38 |
| 33. 국토 .....                           | 38 |
| 34. 국민 .....                           | 39 |

---

|  |    |
|--|----|
| 35. 국민/유입 및 유출 인구수 .....                       | 41 |
| 36. 역사 .....                                   | 42 |
| 37. 국가조직 .....                                 | 47 |
| 38. 정치제도 .....                                 | 48 |
| 39. 정치사회동향/정치.사회동향 .....                       | 48 |
| 40. 정치사회동향/2005년 1월 크로아티아 대통령 선거 .....         | 50 |
| 41. 정치사회동향/전범 처리 문제 .....                      | 50 |
| 42. 국가원수 .....                                 | 51 |
| 43. 주요인사 .....                                 | 51 |
| 44. 주요인사/2005년 주요인사 .....                      | 52 |
| 45. 대외관계 .....                                 | 53 |
| 46. 도량형 .....                                  | 55 |
| 47. 관공서 관행 .....                               | 55 |
| 48. 국제공항 및 항구 .....                            | 55 |
| 49. 매스미디어 .....                                | 57 |
| 50. 매스미디어/신규 신문사 '24 SATA' .....               | 58 |
| 51. 현지화제 유머속담/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서 행원이 두배로 온다 ..      | 58 |
| 52. 현지화제 유머속담/당신이 누으면 다리가 짧다 .....             | 58 |
| 53. 현지화제 유머속담/늑대는 머리색깔을 바꿀 수 있으나 성격은 바꾸지 못한다.. | 58 |

|     |                                  |    |
|-----|----------------------------------|----|
| 54. | 현지화제 유머속담/사과는나무위에서 멀리떨어지지않는다 ... | 59 |
| 55. | 물가정보 .....                       | 59 |
| 56. | 경제발전사 .....                      | 60 |
| 57. | 경제정책 .....                       | 61 |
| 58. | 금융통화제도 .....                     | 61 |
| 59. | 주요산업동향/관광산업 .....                | 62 |
| 60. | 주요산업동향/섬유산업 .....                | 63 |
| 61. | 주요산업동향/제조업 .....                 | 64 |
| 62. | 주요산업동향/서비스 산업 .....              | 65 |
| 63. | 주요산업동향/유통산업 .....                | 65 |
| 64. | 지적재산권 .....                      | 68 |
| 65. | 소비자보호 .....                      | 69 |
| 66. | 수입관리제도 .....                     | 69 |
| 67. | 관세제도 .....                       | 70 |
| 68. | 유통구조 .....                       | 71 |
| 69. | 국제입찰제도 .....                     | 72 |
| 70. | 외환관리제도 .....                     | 72 |
| 71. |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             | 73 |
| 72. |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         | 74 |

|     |                              |    |
|-----|------------------------------|----|
| 73. |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        | 75 |
| 74. | 투자유치정책 .....                 | 76 |
| 75. | 외국인투자제한 .....                | 78 |
| 76. | 투자진출절차 .....                 | 79 |
| 77. |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       | 79 |
| 78. | 산업단지/산업단지종합 .....            | 83 |
| 79. | 자유무역지대 .....                 | 84 |
| 80. | 조세제도 .....                   | 86 |
| 81. | 사회간접자본/크로아티아 사회간접자본 통계 ..... | 87 |
| 82. | 사회간접자본/크로아티아 고속도로 현황 .....   | 88 |
| 83. | 노동여건 .....                   | 88 |
| 84. | 노동여건/구직 홈페이지 정보 .....        | 91 |
| 85. | 사회보장제도 .....                 | 92 |
| 86. |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제도(교육부문) .....    | 92 |
| 87. | 현지 생활여건 .....                | 93 |
| 88. | 현지생활여건/생활여건 (문화부문).....      | 93 |
| 89. |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       | 94 |
| 90. | 자녀 교육여건 .....                | 95 |
| 91. | 진출기업 .....                   | 96 |

---

|  |     |
|--|-----|
| 92. 주요경제지표 .....                       | 97  |
| 93. 주요경제지표/분야별 국내총생산(GDP).....         | 98  |
| 94. 주요경제지표/주요경제지표(1999~2004) .....     | 98  |
| 95. 주요경제지표/분야별 국내총생산(2004년).....       | 99  |
| 96. 대외거래지표 .....                       | 99  |
| 97. 대외거래지표/대외거래지표(2003년).....          | 101 |
| 98. 대외거래지표/경상수지 (2001년~2003년).....     | 101 |
| 99.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대상국별 수출 .....         | 102 |
| 100.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대상국별 수입 .....        | 102 |
| 101.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대상국별수출(2003년추가자료)..  | 103 |
| 102.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대상국별수입(2003년추가자료)..  | 104 |
| 103.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품목별 수출입품목 .....    | 104 |
| 104.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크로아티아의 품목별 수출입품목 .... | 105 |
| 105.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크로아티아 연도별 수출입 규모 .   | 108 |
| 106.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한-크로아티아 투자교류 통계     | 111 |

## 1. 국가개요

|     |  |
|-----|--|
| 국 명 | 크로아티아 (Croatia)  |
| 위 치 | 45 10 N, 15 30 E<br>중남부 유럽, 이태리 반도의 동쪽 아드리아해 건너편에 위치<br>발칸반도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음 |
| 인접국 |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헝가리<br>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경 2,197 km                          |



|         |   |
|---------|---|
| 면 적     | 56,610km <sup>2</sup> (한반도의 1/4), 해안선 5,835 km            |
| 지 형     | 북, 북동쪽-평야지대, 서쪽, 남쪽-산악지대<br>(고도 : 아드리아해 0 m, 디나라 1,830m)  |
| 기 후     | 지중해성, 온대성대륙   |
| 수 도     | 자그레브 (Zagreb)   |
| 인 구     | 4,442,248명 (2004년)  |
| 주요도시    | Zagreb(80여만명), Split(20여만명), Rijeka(17여만명)                |
| 민족(인종)  | 남슬라브민족의 하나인<br>크로아티아인(78%), 세르비아인(12%)                    |
| 언 어     | 크로아티아어(라틴문자 사용)   |
| 종 교     | 카톨릭 77%, 정교 11%, 회교도 1%, 기독교 1%, 기타 10%                   |
| 건국(독립)일 | 1991.6.25(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                                    |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   |
| 국가원수    | 대통령 Mr.Stipe Mesic  |
| 입법부     | 단원제(현 의석수 :152석)  |
| 정 부     | 제1당 HDZ(Croatian Democratic Party)를 중심으로 연정(2003.12월) 43석 |
| 정부성향    | 친서방주의   |

\* 자료출처 : 크로아티아

## 경제지표 (2004년 기준)

|                   |   |
|-------------------|---|
| GDP(국내총생산)        | US\$ 34.33십억 (명목 GDP)                           |
| 실질경제성장률           | 3.8 %   |
| 1인당 GDP<br>(경상가격) | US\$ 7,767                                      |
| 소매물가상승률           | 2.5%  |
| 화폐단위              | Croatian Kuna (HRK)                             |
| 환 율               | 1 US\$ = HRK6.70 (2005년 6월 현재 1 US\$ = HRK6.04) |
| 외 채               | US\$ 226억                                       |
| 외환보유고             | US\$ 78억 (2004년 말)                              |
| 산업구조              | 1차 산업 : 8.2% 2차 산업 30.1% 3차 산업 46.4%            |
| 교역규모<br>(재화 및 용역) | US\$ 154억 (크로아티아 수입)<br>US\$77억 (크로아티아 수출)      |
| 교역품               | 운송장비, 화학제품,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의류 전자제품              |

\* 자료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World fact book

## 한-크로아티아 관계(2004년 기준)

|      |  |
|------|--|
| 체결협정 | 무역협정 (`96)   |
| 교역규모 | US\$ 1억6천4백만불 (우리나라의 수출)<br>US\$ 240만불 (우리나라의 수입)<br>크로아티아 공식통계 기준 |
| 교역품  | 자동차, 전자, 합성수지, 영상기기, 의료기기(우리나라의 수출)<br>어류, 의류, 전기기기(우리나라의 수입)      |
| 투자교류 | 1건 1,500천불(우리나라 진출) ; 전무(국내유치)                                     |
| 교 민  | 교민3명, 체류자 약 20명  |

\* 자료출처 : 크로아티아 통계청, Croatia Country Profile

## 2. 경제동향 및 전망/경제동향과 전망

1991. 6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구유고로부터의 독립선언과 함께 시작된 유고내전은 연방을 유지하려는 세르비아와 연방에서 탈퇴하려려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와의 전쟁을 거쳐 90년대 내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로 확대되었다. 크로아티아 경제는 국가분할로 인한 산업의 공급체계의 붕괴, 시장상실, 전쟁으로 지속적인 침체상태에 있었으며, 90년대 전반기에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역 내 평화정착조짐이 보이면서 90년대 말부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2000년 들어서는 6개 연합여당이 구성한 새로운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면서 되찾은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안정세에 들어서 2002년에는 5.2%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물가 및 환율도 안정되어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의 부흥과 함께 경제도 본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 크로아티아 연도별 1인당 GDP |       |       |       |       |       |       |       |       | (단위 EMU) |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3.531             | 3.891 | 4.284 | 4.102 | 4.560 | 4.998 | 5.451 | 5.747 | 6.220 |          |

자료출처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크로아티아의 대외부채는 '99년 100억불, 2000년 11억불, 2001년 113억불, 2002년 152억불, 2003년 216억불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재정 긴축 및 은행여신관리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IMF 등도 대외부채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크로아티아 국가신용도를 중간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가입과 함께 EU와 체결한 SAA(Stabilization & Association Agreement), 등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에 동참하고 있고, 2003년 초에는 EU회원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하였고, 2004.6월에는 EU정상회담에서 크로아티아의 EU가입 후보 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2005.1월부터 EU와의 EU가입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2004.5월의 EU확대 당시 EU에 가입하지 못하였던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2007년도에 EU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 경제 및 기타 제도를 EU기준에 맞추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및 국영기업 민영화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시장경제 도입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크로아티아 경제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 3. 한국과의 무역관계

크로아티아는 인근지인 EU 및 동구국가와의 정치, 경제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3년 3월 중 EU가입을 공식신청, 2004년 5월 EU가입 대상 지위를 획득하였고 2007년도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함께 EU가입을 기대하고 있어 아시아지역 국가와는 지리적인 여건상 무역 확대교류에 크게 기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크로아티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 중 유럽 및 동 유럽 국가와의 상품교역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데 특히 크로아티아의 항만 및 운송망을 이용한 상품운반 촉진을 적극유도하고 있다.

---

크로아티아의 리예카(Rijeka)항구는 구유고 연방시절 가장 큰 항구였으나 4년 반의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화물이 인근 슬로베니아 koper 항이나 이태리의 트리에스테(Trieste)항을 통해 반입되고 있다. 특히 슬로베니아의 Koper 항은 크로아티아가 독립전쟁을 거치는 동안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가장 많은 물동량을 확보하고 있는 항구로서 구 유고연방 권은 물론 헝가리 등으로 이동되는 화물들이 이 항구를 경유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한 물류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리예카항구의 설비현대화 및 인프라 확대를 모색하여 왔으며 2003년 2월에는 우리나라의 S사가 이 항구의 컨테이너 터미널 현대화 프로젝트를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가 물류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 인프라 외에 항구로부터 다른 지역으로의 수송망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크로아티아는 리예카항으로부터 자그레브를 거쳐 헝가리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망의 신설 및 기타 다른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중동부 유럽에 대한 물류센터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예카항구 프로젝트 이외에도 크로아티아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참여 프로젝트로는 자그레브 화력발전소 보일러 공급 프로젝트, 철강업체의 설비 현대화 계획 프로젝트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 <교역규모>

자동차 및 전자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크로아티아와 한국의 교역은 이들 두 품목의 교역상황에 따라 큰 폭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 '95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 크로아티아 수출은 승용차의 현지 수입상의 공공기관 대량납품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96년도에는 판매 실적의 저조로 상당 폭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97년 이후 현지 자동차 구매수요의 급증 및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으로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97년에는 전년비 106%가 증가했으며 '98년에는 국내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

9.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99년, '00년, 2001년에도 실질적인 자동차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우자동차가 루마니아와 폴란드에서 제조된 제품을 들여와 통계상으로는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한국기업이 시행중인 크로아티아 리예카 항구 현대화 프로젝트의 기자재 반입으로 크로아티아 통계국 기준으로 수출액은 2001년도의 US\$69,116천에서 US\$105,786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크로아티아 수출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미화기준으로 '95년 2,233천, '96년 450천, '97년 548천, '98년 458천, '99년 935천, 2000년 1,153천, 2001년 1,827천, 2002년 2,725천불을 그리고 최근 자료인 2003년 자료에는 49,858천불 우리나라의 수출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크로아티아 수출은 수입에 비해 훨씬 크지만 한국의 대 크로아티아 수출액은 크로아티아의 전체 수입의 1% 내외를 점유하고 있어 크로아티아에 대한 수출확대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인프라 건설 및 민간기업의 투자수요 증대에 따라 설비 류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유럽 산 기계류에 비해 가격이 30-40% 수준에 불과하고 현지 시장 여건상 최첨단 설비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설비 수출 확대 가능성이 많은 편이다.

#### <교역 품목>

우리나라의 대 크로아티아 교역품목은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다. '97년까지 승용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반면 최근에는 트럭, 승합차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가전제품의 수출은 최근 들어서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98년 들어서서 부가가치세 도입과 이에 따른 소비자 가격인상이 주요한 요인이며 아울러 불법시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으로써 시장이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상품 참조)

아직은 수출액이 크지 않지만 철강제품이나 화학제품 등의 경우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 제조업체들의 경우 그 동안 인근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해왔으나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리나라 중간 원자재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

크로아티아로부터의 주종 수입품목은 특별히 열거할 수 있는 품목이 없는 편이다 섬유제품, 기계부품 등이 일부 수입되고 있으나 그 금액이 극히 미미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크로아티아 경제단체에서는 고급포도주, 벵타이 등의 대 한국 수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이 품질에서나 브랜드 면에서 다른 서유럽 제품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어서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포도주의 경우 현지 업체는 대량 생산능력이 없어서 고급 소량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한국 업체 발굴을 희망하고 있으며 벵타이의 경우 크로아티아가 원산지라는 점을 이용하여 수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지 전통적인 디자인제품을 위주로 제조하고 있어 디자인, 브랜드 명 등이 주도하고 있는 해당 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크로아티아의 경우 극히 일부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품의 시장 확대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현지 업체들의 경우 협소한 시장규모를 이유로 우리나라 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소 주문량의 소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최소 주문량의 신속적인 운영이 거래 확대에 최대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현안 사항>

-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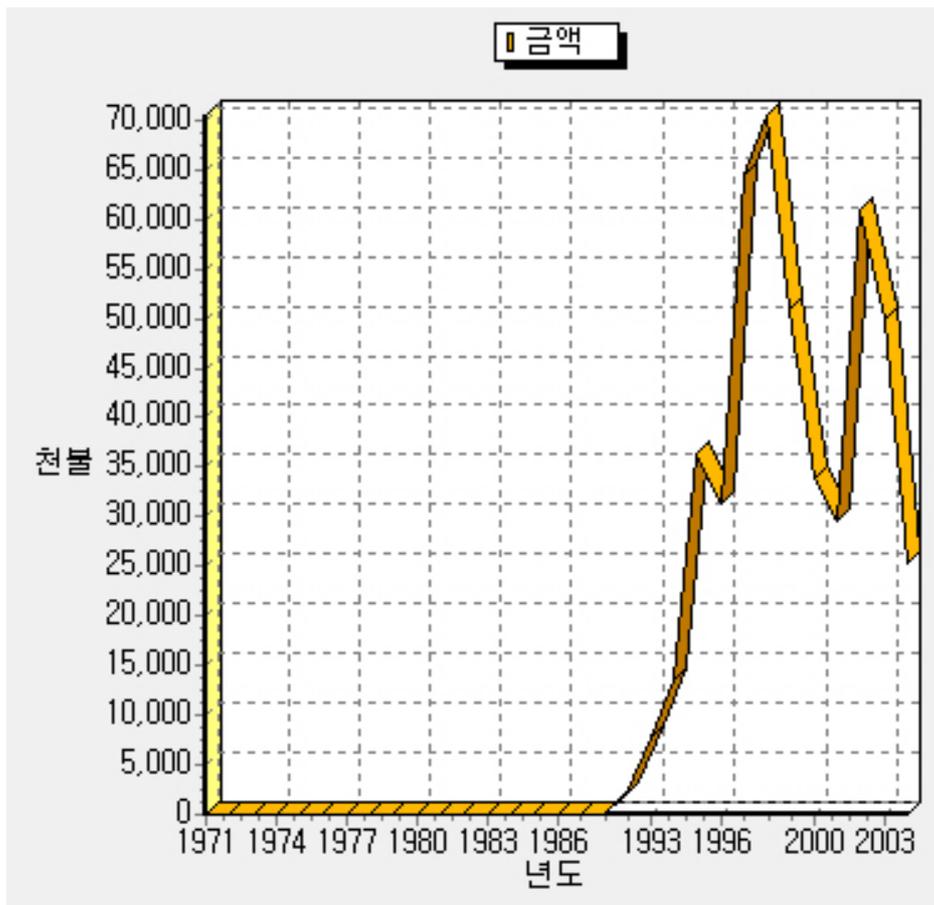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부간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정부간 협의체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역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정부가 크로아티아상품에 대해 특별히 차별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 국가신용도

크로아티아 은행은 일부 대형 상업은행을 제외하고는 자산규모 및 유동성이 부족하고 금융 기반이 취약해 연불 수출 시 신용장개설 은행의 파산으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크로아티아의 국가신용도는 전체 등급 중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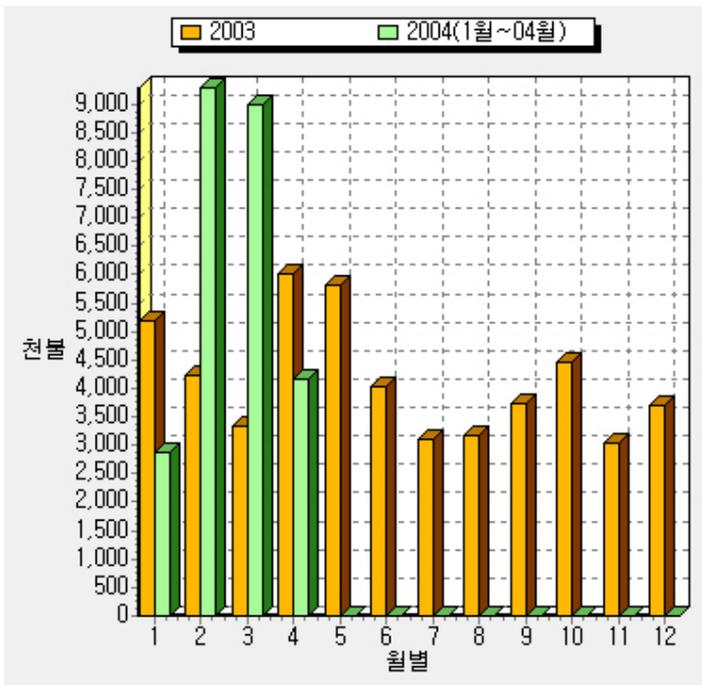
#### 4. 한국과의 무역관계/대 크로아티아 연도별 수출입 규모

<연도별 수출규모(1971~2004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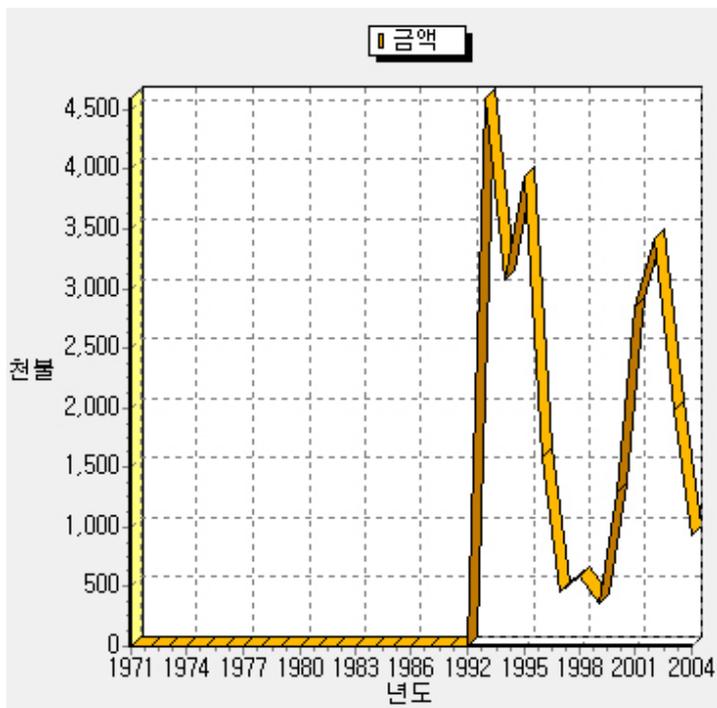
자료출처 : KOTIS

<최근 수출 규모(2003년~2004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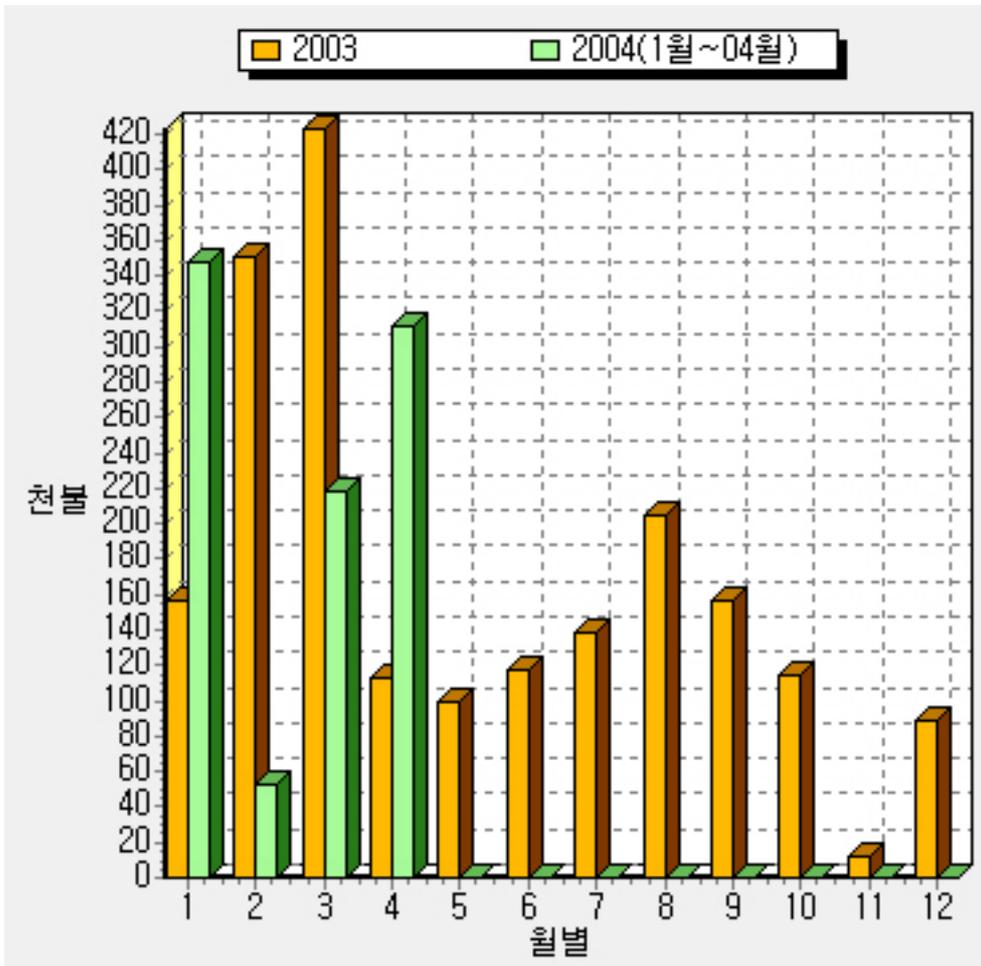
자료출처 : KOTIS

<연도별 수입규모(1971~2004년 4월)>



자료출처 : KOTIS

<최근 수입 규모(2003년~2004년 4월)>



자료출처 : KOTIS

## 5. 한국과의 무역관계/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 품목(2004년 기준)

### < 주요수출품목(2004년 기준) >

(단위 : 천불)

| 품 목 (HS Code)            | 2004년   | 전년대비 증감율 (%) | 비중(%)  |
|--------------------------|---------|--------------|--------|
| 보일러 및 기계류 (84)           | 51,087  | -29          | 31     |
| 가솔린, 디젤엔진 부품 (8409)      | 1,075   | -8           |        |
| 에어컨디셔너 (8415)            | 8,679   | -34          |        |
| 냉장. 냉동고 (8418)           | 1,458   | 30           |        |
| 적하용, 하역용 기계류 (8428)      | 311     | -79          |        |
| 불도저, 그레이더 등 (8429)       | 3,586   | 2            |        |
| 컴퓨터 등 (8471)             | 25,352  | -2           |        |
| 타자기 및 기타 사무용기기 부품(8473)  | 2,606   | 60           |        |
| 일반차량 (87)                | 52,812  | 17           | 32     |
| 승용차 (8703)               | 47,028  | 17           |        |
| 화물자동차 (8704)             | 3,788   | 33           |        |
| 자동차 부품 (8708)            | 1,690   | 39           |        |
| 전기기기, TV.VTR (85)        | 36,498  | 760          | 22     |
| 비디오 레코더 (8521)           | 1,619   | 34           |        |
| 무선전화기, 비디오, 디지털카메라(8525) | 24,064  | 143          |        |
| TV (8528)                | 6,068   | 53           |        |
| 전자집적회로 (8542)            | 809     | -55          |        |
|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 3,732   | -13          | 2.2    |
| 광학.의료.측정.검사기기 (90)       | 3,455   | 25           | 2.1    |
| 편물 (60)                  | 1,830   | -20          | 1.1    |
| 유기화합물 (29)               | 826     | -36          | 0.5    |
| 철강제품 (73)                | 1,520   | 26           | 0.9    |
| 고무와 그 제품 (40)            | 1,666   | 51           | 1.0    |
| 기 타                      | 10,645  |              | 6.4    |
| 합 계                      | 164,071 | 67           | 100.00 |

---

## 6. 한국과의 투자관계

### <투자관계>

우리나라의 대크로아티아 투자는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크로아티아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기업들에게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95년말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일부국토는 '98년부터 크로아티아 영토로 회복되는 등 실질적인 평화정착은 현재의 Mesic 대통령이 취임한 2000년 이후로 지난 3년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99년에는 코소보분쟁 지역으로 오인되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크로아티아가 전쟁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크로아티아는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전쟁 등의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독립 전쟁 이후 산업기반의 파괴와 시장상실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큰 편이며 우리나라의 대 크로아티아 투자에서도 시장위험성이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 여건 중 우리나라의 투자유입이 부진한 다른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수준을 들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사회보장세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급여의 20.6%를 부담해야 하며 물가수준이 높아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업체의 투자지역으로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건비 수준은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등 인근지에 비해 월등히 높아 투자를 검토했던 업체들도 투자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크로아티아 투자는 공식 자료에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현지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하면 99년 말과 2000년 초에 등록된 개인 투자자 3건에 불과하며 모두 한국으로부터의 제품 수입과 현지 시장에서의 도소매업에 주력하고 있다.

2003년에 일부 대기업의 경우 현지 민영화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적격기업을 발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본격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4년 5월에는 한국의 K기업이 공장 설립 투자를 고려하였으나, 인건비가 보다 저렴한 불가리아에 공장 설립 투자를 하였으며, 2004년 11월 한국의 P사가 호텔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10일간 크로아티아를 방문하였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 7. 수입규제사례

특별한 규제내용 없으나, EU산과 차등관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음.

---

## 8. 현지히트상품/비타민,건강보조식품,식물성의약품

크로아티아의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식물성 의약품 (Vitamins, Dietary supplements and Herbal Medicines)

크로아티아의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와는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10~15%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빠른 성장은 다음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1990년대 초까지 크로아티아의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식물성 의약품 시장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90년대 중 보건당국의 건강예방에 대한 관심과, 유명 브랜드의 활발한 진출과 개인의 소비능력 향상은 동 분야에서 큰 폭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우리의 인삼 제품도 90년대 말부터 크로아티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지에서 우수한 건강식품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으며, 인삼이 형성한 긍정적 이미지는 우리의 건강보조식품의 현지시장에 대한 진출가능성을 높여준다.

전문가가 밝히는 시장 성장 요인은 다음과 같다.

- 크로아티아 건강부(Ministry of Health)는 보건(건강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보건은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적절한 운동, 식생활, 적정량의 비타민 섭취 등이 건강한 삶은 이끌고 질병을 예방한다는 교육, 진흥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다수의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식물성 의약품 브랜드가 매력적인 제품으로 크로아티아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비타민, 건강보조식품이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캠페인에 많은 투자를 하여왔다.
- GDP 성장 등 최근 수년간의 건실한 거시경제로 인해 증가한 소비자의 소비는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의 수요증가에 기여하였다.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 종합비타민
- 관절염, 소화불량 등과 같은 각종 질병과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특수첨가식
- 아동용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

단일 비타민 시장은 아직 미개발된 상태로 소비자는 일상적인 복용이 추천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는 종합비타민식을 선호한다. 단일 비타민 시장은 GDP증가에 의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함께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9. 현지히트상품/보안장비

현재 크로아티아 보안장비 시장은 하기의 통계치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보안 장비 제조 업체가 한 개사가 있지만 해당 생산품에 대해 질적 물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에 많은 수입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경제가 발전에 기인하여 보안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더 많은 회사들과 공공기관들이 야간 경비원 고용보다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비디오 보안 시스템과 출입 제어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주요 고객들은 통상적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이었으나, 최근 들어 작은 사기업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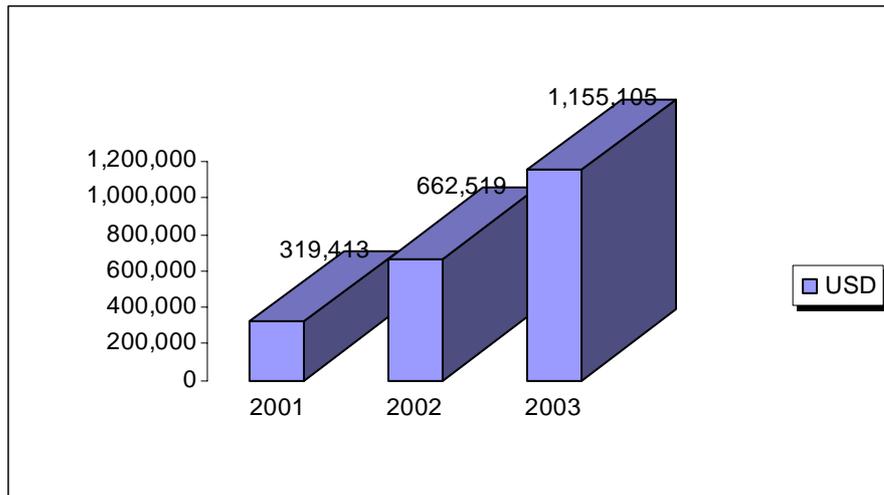
비디오 보안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출입제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최근에 본 시스템이 보다 더 안전하고, 심지어 오직 출입제어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매우 신뢰를 할 수 있다고 고객들이 생각하기에 매일 매일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시장에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로는 PHILLIPS (Holland), DEDICATED MICROS (UK), ULTRAC (USA), SAMSUNG TECHWIN (Korea), URMET (Italy) etc. And those for access control systems: PRASTEL (Italy), NORTHERN COMPUTERS (USA/UK), KANTECH (USA/Canada) 등이 있다. 하여 이미 본 제품에 대해 크로아티아 시장에서는 경쟁상태이지만, 안전성과 가격경쟁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다.

<통계 자료>

(1) 최근 3년간 크로아티아 수입현황 (HS Code : 8525.30)

가) 전체 수입현황 (US\$)



자료출처 : 크로아티아 통계청

나) 주요 수입국 상위 5개국(2001~2003)

| 국가    | 2001년도  | 국가   | 2002년도  | 국가   | 2003년도    |
|-------|---------|------|---------|------|-----------|
| 한국    | 142,878 | 한국   | 199,762 | 한국   | 311,068   |
| 오스트리아 | 33,472  | 대만   | 112,108 | 포르투갈 | 183,952   |
| 일본    | 33,351  | 중국   | 66,102  | 대만   | 190,864   |
| 독일    | 29,208  | 포르투갈 | 64,891  | 일본   | 134,326   |
| 미국    | 21,755  | 덴마크  | 62,841  | 중국   | 84,450    |
| 기타    | 58,749  | 기타   | 156,815 | 기타   | 250,445   |
| 합계    | 319,413 | 합계   | 662,519 | 합계   | 1,155,105 |

자료출처 : 크로아티아 통계청

(2)시장현황

|                            |   |
|----------------------------|---|
| 크로아티아 제조업체                 | VELCIC d.o.o.<br>B. Magovca 50, 10 000 Zagreb<br>Tel: ++ 385 1 6699 309<br>Fax: ++ 385 1 6601 995<br>e-mail: mail@velcic.hr<br>Mr. Nikola Velcic (Director)<br>(producing cameras for video surveillance systems) |
| 주요 시장 선도자<br>(Brand Names) | PHILLIPS- Holland<br>URMET - Italy<br>NORTHERN COMPUTERS - USA/UK<br>DEDICATED MICROS - UK<br>SAMSUNG - S. Korea  |
| 수입업체수(Approximately)       | 25개   |
| 관세율 (%)                    | 없음  |

## 10. 현지히트상품/건설장비(유압 건설 장비)

현재 크로아티아는 건설붐이 조성되어있어 건설 중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산간지방에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중에 있어, 유압 헤머 및 브레이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 주요 수입 상위5개국 (단위 : USD) >

| 해당 품목 주요수입국 및 수입량 |            |       |            | 단위 : 미화 (USD) |             |
|-------------------|------------|-------|------------|---------------|-------------|
| 주요수입국             | 2001년도     | 주요수입국 | 2002년도     | 주요수입국         | 2003년도      |
| 미국                | 11,577,378 | 영국    | 17,024,477 | 독일            | 23,760,614  |
| 영국                | 10,091,026 | 독일    | 16,928,413 | 영국            | 21,239,968  |
| 독일                | 8,904,432  | 이태리   | 14,278,356 | 이태리           | 18,627,259  |
| 이태리               | 4,274,447  | 오스트리아 | 5,273,377  | 벨기에           | 10,765,250  |
| 벨기에               | 2,495,263  | 벨기에   | 4,945,025  | 미국            | 9,080,128   |
| 한국                | 137,025    | 한국    | 3,777,388  | 한국            | 3,856,142   |
| 기타                | -          | 기타    | -          | 기타            | -           |
| 전체수입량             | 43,706,761 | 전체수입량 | 76,500,036 | 전체수입량         | 113,553,178 |

\* 정보원 : 크로아티아 통계청

### < 장동향 (현지생산업체, 경쟁브랜드 등) >

| Hydraulic Crawler Drill    |  |
|----------------------------|--|
| 크로아티아 제조업체                 | 없음   |
| 주요 경쟁 브랜드                  | INGERSOLLRAND (Norway),<br>ATLAS COPCO - KRUPP (Sweden),<br>RAMMAX (Germany),<br>SULLAIR (France),<br>DAEMO ENGINEERING - DEMO (Korea)<br>BOSCH (Germany),<br>WACKER (Germany) |
| 수입업체수                      | 7  |
| 관세 (%)<br>HS Code: 8430.41 | 관세없음   |

| Hydraulic Breaker          |   |
|----------------------------|---|
| 크로아티아 제조업체                 | 없음  |
| 주요 경쟁 브랜드                  | NORDBERG (Norway),<br>HARTL (Austria),<br>POWERSCREEN (UK),<br>DAEMO ENGINEERING - DEMO (Korea)<br>FINLY (UK),<br>RAMMAX (Germany),<br>SULLAIR (France)<br>WACKER (Germany) |
| 수입업체수                      | 7   |
| 관세 (%)<br>HS Code: 8431.49 | 관세없음  |

## 11. 진출 성공/실패사례/다양한 품목, 소량주문에 응해 시장진출에 성공한 사례(C,T,M사)

현지 P사는 호텔 관련 주방용품을 수입, 설치해주는 업체로 한 품목의 대량구매 보다는 프로젝트에 맞는 다양한 설비 및 제품구입을 희망하였다.

P사의 요구사항을 수집한 우리무역 관에서는 해당정보를 일간해외시장에 게재. 각 관련 제품 업체들이 자사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및 오퍼자료를 제공. 이중 국내 무역회사인 J사는 진공보온병 수출을 위해 현지 P사를 접촉하였으나 P사는 현지 시장규모특성상 진공보온병만을 컨테이너베이스로 들여오는 것은 수입상의 측면에서 위험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피. 여가를 즐기는 경향은 매우 강하나 진공보온병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 커피나 음료의 경우 아주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국내 C사는 각기 다양한 품목의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을 모아 카탈로그와 가격표를 작성하여 해당 업체에 공급. P사는 C사가 제조업체가 아닌 무역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98년 5월 미\$4만의 수출계약에 성공. 이후 지속적인 오더를 받고 있으며 '99년 7월까지 4차례 공급하였고 공급 품목도 점차 확대, 다양화해지고 있다.

현지 섬유제품 및 직물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T사의 경우 직물에 대해 칼라당 250미터 요구. 국내업체에서는 칼라작업상 250미터 공급 불가능 설명, 최소 700미터 요구. T사는 물량 소화의 어려움을 들어 300미터 이상 불가능 주장. 시장규모가 협소함을 인정한 국내업체가 소량 주문을 받아들여 거래 성사. '98.7 미\$43천 첫 수출. 이후 국내업체는 다른 3개 업체와도 거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98년중 2회 주문, '99년에도 2회 수주하는 등 거래 물량이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문 수량도 당초 250미터에서 350미터, 500미터, 700미터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무용품을 수입 도매하는 E사의 경우 비교적 값이 비싼 토너 및 디스켓 등의 대한 수입을 희망. 동사는 구매사절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 실제 제조업체인 L사 및 S사 등 국내 대기업과 상담을 했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직접 거래 시 최소 주문량이 현지 수입업체의 능력을 벗어나는 관계로 무역업체 M사를 통해 수입하기로 하고 M사에 대해서는 금액의 3%를 커미션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M사는 한국제조업체인 L사, S사의 카탈로그 및 거래 조건 등을 그대로 제시하고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의 3%를 더하여 '99년 2월 첫 거래를 시작했다.

현지 시장규모의 협소 성으로 인해 단일 품목보다는 품목 전반에 걸쳐 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가격의 유리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조업체든 무역업체간에 관계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단은 제조업체로부터의 구매를 선호한다

## 12. 진출 성공/실패사례/철강/설비 등의 경우 전대자금을 이용하여 수출에 성공한 사례(M,S사)

컨테이너, 건축용 패널 등 제작업체인 J사는 원자재인 칼라강판6천 톤(미\$480만)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대기업체인 P, D, U 등 국내 주요 칼라강판 제조업체는 L/C at sight만을 요구하였다. 또한 물량이 작다는 이유로 오퍼 제공에도 극히 인색(종합상사만을 경유하여 수출). J사는 독일 업체들의 경우 364일 유산스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들어 신용 제공 또는 유산스 90일을 요구했다.

우리무역 관에서는 철강제품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전대자금을 이용한 수출이 가능함을 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조치. 따라서 수입상은 거래은행인 자그레브은행(수출입은행과 전대자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은행)측에 신용을 요청하고 동 신용은 수출입은행의 전대자금을 이용토록 했다. (최장 10년까지 수입대금을 분할하여 자그레브은행측에 상환하면 됨). 전대자금 이용 과정에서 자그레브은행측의 전대자금 이용 제한 규정에 의해 이용한도는 DEM50만으로 축소 조정했다.

국내업체 M사는 비록 물량은 적으나 수출입은행의 전대자금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업체의 주문을 적극 받아 '98.8 DEM50만의 주문을 획득하고, 수입업체는 L/C를 at sight 조건으로 개설하였으나 대금 결제는 1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 이후 크로아티아 J사는 동일한 업종에 있는 자회사 T사를 경유하여 동일한 금액의 신용장을 M사에 개설하여 추가 주문했다.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P사는 기존 설비 교체를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그레브무역관을 접촉하여 종이제품 관련 설비업체의 소개를 희망. 무역관에서는 과거 세일즈출장을 왔던 국내 S기계에 해당 인콰이어리를 전달하였다.

이후 국내 S기계의 에이전트가 P사를 접촉하면서 필요한 설비 종류 및 내용이 확대됨. 그러나 P사는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해당 설비의 직접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대자금을 이용토록 권유. 그러나 P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전대자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Z은행의 고객이 아니어서 전대자금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접수. 이후 정부 및 연고를 동원하여 Z 은행 측에 P사에 대한 전대자금 이용을 승인토록 압력을 가하였으나 은행 측으로부터 승인을 얻는 데는 실패하였다.

은행을 통한 전대자금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무역 관은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현대중합상사 측에 해당 인콰이어리 성사를 의뢰고 기본적인 금융제공 조건에 대한 협상을 마침. 설비의 경우 금융 제공이 중요한 요건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금융조달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3. 진출 성공/실패사례/공급자/수입자 공동성장인식으로 성공한 사례

#### (H,S사)

현지 M사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온 수입상이나 독립 이후 회사의 분리, 전쟁 피해 등으로 영업활동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었다. 해당 업체는 자전거, 모터사이클 등의 전문 취급업체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상품 공급업체를 모색.

M사의 요구사항을 접한 무역관은 마침 세일즈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H사의 오토바이 헬멧을 소개하여 현장에서 관련 견본으로 100개를 주문하도록 주선했.

국내 S전자업체의 현지 에이전트인 E사는 매출액의 2%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받아 해당 부문에서 비교적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음. E사의 연간 수입액은 미\$6백만에 달할 정도이며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시장규모가 대부분 영세하므로 공동으로 성장한다는 인식하에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홍보 자료는 가능한 한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수입상의 시장개척활동에 대한 금융적 지원이 가능한 경우 훨씬 수입상의 반응이 좋아진다. 각종 행사에 대한 후원 활동을 고려, 특히 현지인의 경우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므로 이들 대회에서 후원자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 축구, 테니스, 핸드볼, 수구, 농구, 태권도 등
- '99년 7월 태권도 올림픽 예선전 개최
- 태권도 인구는 약 6천명으로 추정

---

## 14. 진출 성공/ 실패사례/ 웨어하우스 설립판매방식을 통한 성공사례(E사)

국내 E사는 봉제산업에 필요한 장비, 설비의 시장개척을 위해 자그레브 박람회에 참가하여 잠재적인 2개사를 에이전트로 선정. 2개 업체 중 1개사(D사)는 무역관에서 주관하여 파견한 구매 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하여 국내 E사와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공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봉제설비 특성상 일정 물량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상의 자금 부담이 너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국내 E사는 해당 설비를 크로아티아로 발송하고 현지 에이전트 D사는 구매자를 발굴하여 이를 판매함과 동시에 국내 E사에 해당 물품의 출하를 크로아티아의 통관에이전트인 ER사에 통보토록 요구. E사는 해당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를 D사에게 발행하고 해당 금액이 입금되는 대로 ER사에 물품을 D사에 인도하도록 통지했다.

이와 같은 방식의 공급을 위해 국내 E사는 현지 에이전트 D사 및 통관업체인 ER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D사의 요구에 따라 미\$50만에 해당하는 설비를 ER업체에 선적함. 한편 국내 E사는 D사에 대한 신용조회를 한 후 해당금액을 수출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 15. 주요이슈/크로아티아의 최우선 정책과제 : EU가입

###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

크로아티아는 현재 EU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EU가입은 대부분의 국민과 모든 정당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2003.12 월 선거를 통해 제 1 당으로 부상하여 소수정당과의 연합정권을 구성한 크로아티아 민주당(Croatia Democratic Party: HDZ)도 과거 민족주의 성향이 다분한 정당이었으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대한 열망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수용하는 한편, 국민의 민족감정에 호소하여 제 1 정당으로 부상한 바 있다. 크로아티아는 2003년 12월 현재 EU와 안정화 협약(Stability and Association Agreement; SAA)을 체결하여 EU의 준회원 가입을 추진 중이며, 현재 EU 15개국 중 12개국이 의회의 비준절차를 종료하였고, 영국 등 3개국이 비준절차를 마치게 되면 EU 준회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EU는 발칸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마케도니아와 SAA 체결을 추진 중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동 지역의 EU 편입을 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개발에 대한 자금 및 기술적 지원과 함께 90년대 중 전쟁에 휩싸였던 동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을 EU 기준에 맞추도록 함으로써 역내 정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한편 크로아티아는 EU와의 SAA체결을 진행하는 한편 2003년 상반기중 EU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였고, 2004년 4월 중 EU 집행위원회의 정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만일 EU가 크로아티아의 정회원 가입신청을 인정하게 되면 현재의 SAA와는 별도로 직접 EU가입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2004년 5월 중 유럽 국가 등 10개국과 함께 EU에 가입하지 못한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EU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크로아티아의 EU가입은 의외로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2007년까지 EU가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정치사회는 크로아티아의 EU가입은 2010경이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 크로아티아 EU가입 후보국 지위 공식획득 >

6월 17~18일 양일간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정상회의(The European Council)은 6월 18일(금) 크로아티아에 대한 EU가입 후보국 지위를 인정함을 공식 발표했다. 크로아티아와 EU의 회원가입 쌍무협상은 2005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현 EU 의장국 아일랜드 수상 Bertie Ahern,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의장 Romano Prodi, EC 공동외교안보 위원 Javier Solana와 크로아티아 수상 Ivo Sanader가 개최한 브뤼셀에서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됐다. Prodi는 EU 25개 회원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크로아티아가 EU가입 후보국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이룬 EU와 크로아티아간의 관계진전에 만족하며, 향후 EU집행위원회는 크로아티아와 긴밀한 협력해 EU가입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크로아티아 수상 Ivo Sanader는 크로아티아를 EU가입 후보국으로 인정한 EU의 역사적 결정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이번 결정은 모든 남동구 발칸국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남동구 어떠한 국가가 EU 접근노력, 민주노선을 추구할 경우 EU에 가입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Sanader는 크로아티아가 2년 6개월~3년의 짧은 기간 동안 모든 협상을 종결하였던 슬로바키아의 예를 따라 EU와의 협상을 가능한 빠른기간내에 종결하고 2007년까지 EU에 가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은 크로아티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지로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 정상 회의는 유럽집행위원회에 현 집행부의 임기 말인 2004년 10월말까지 크로아티아와의 EU가입 협상을 위한 기본(안)의 준비와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EU가입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대 크로아티아 자금지원계획 수립을 위임했다. 한편 EU는 크로아티아가 전범기소자의 검거 및 헤이그 이관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고슬라비아 전범처리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촉구했고 소수민족 권리보호, 전쟁난민 소환, 사법시스템 개혁, 지역협력과 부패척결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크로아티아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세워진 공산 유고슬라비아연방에서 1991년 독립했다.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6개 공화국으로 구성됐으나 연방은 1990년 대에 일련의 독립전쟁과 함께 5개국으로 분리, 해체된 바 있다. 이들 5개국은 EU 접근 및 EU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

EU와의 접근은 정치, 경제적 안정 및 발전속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슬로베니아가 2004.5.1에 여타 9개국과 함께 EU에 가입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이번에 EU회원 후보 국 자격을 획득한 크로아티아가 뒤를 잇고 있고, 이어서 마케도니아가 EU 편입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안정화 협약에 2001년 서명한 바 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세르비아-몬네네그로는 안정화 협약(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체결을 위한 EU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다.

현재 EU가입 후보 국의 지위를 갖는 국가는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10개국과 함께 EU 가입협상에 참가했으나 가입이 보류된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금번에 크로아티아가 추가됨으로써 3개국으로 늘어났다. 만일 이들 3개국이 2007년 EU에 가입하면 EU회원국은 현재의 25개에서 28개로 늘어나게 된다.

자료출처: HINA, AFP

## 16. 주요이슈/크로아티아의 지가 상승과 건설붐

2003년부터 시작한 부동산 가치상승이 멈추지 않고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주로 대도시와 해안지방의 관광지의 주택이 주도하고 있으며, EU가입 이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다수의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취득세 5%만 납부하면 되는 세법도 한 몫을 하고 있어, 일부 고소득층은 무려 50채의 아파트를 소유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최근 크로아티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2004년 8월 중 신규 건축 허가 건수는 85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의 건축허가 구성을 보면 건축물 종류 기준으로 빌딩 건축이 86.5%, 공장 건축이 13.5%이며, 건축유형 기준으로는 신축이 77.6% 리모델링이 22.4%를 차지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에는 전국적으로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도인 자그레브의 주택, 사무실 건축 및 주요 관광지인 아드리아 해안지역에서 관광산업을 목적으로 한 호텔 등의 건축붐이 일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크기에 인구가 440만명으로 미개발 토지가 상대적으로 많아 건물 신축이 활발하며, 오래된 건물도 리모델링을 통해 지가의 상승을 꾀하고 있다.

지금 크로아티아에 불고 있는 건설 붐은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17.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 출입국/ 비자

#### <비자>

2000년 6월1일부터 관광 및 사업을 목적으로 30일 이내 크로아티아에 여행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그러나 취업 또는 소득발생활동을 목적으로 한 방문, 학업 및 전문기술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한 방문과 30일 이상체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입국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한바 방문객을 주의 하기 바란다. 그리고 장기 체류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 증명서(하위 출입국 유의사항참조)가 필요하다. 종전에는 비자를 받게 되어 있어서 공항에 도착하여 3개월 관광비자를 받았었다.

####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는 없다. 입국 시에는 대부분 세관 검사대를 거쳐야 하나 특별히 신고할 만한 물건이 없을 경우 X선 투시기를 거치는 것으로 검사가 종료된다.

세관검사의 경우 견본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수량 이상의 견본에 대해서는 정식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ATA Carnet 증명서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 (면세품 보유한도)

담배: 200개피

브랜디, 위스키 등: 1리터

포도주: 2리터

선물용품: 미\$50 이내

#### <출입국 유의사항>

크로아티아 입국 시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체류장소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관광목적 입국이나 호텔 등 지정된 숙박업소 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텔이나 숙박업소에서 신고를 대행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개별적인 거주지를 마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 소유주와 함께 거주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장기체재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임시 거주지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인근 지 크로아티아 대사관에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크로아티아와 가장 근접한 슬로베니아의 류블리어나 크로아티아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국이 일본이라는 이유로 비자신청 접수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

(예방접종)

일반적인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필요 없다. 그러나 취약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증빙서를 구비하여 소지하는 것이 좋다.

## 18. 출입국/비자/비자 취득시 필요 서류

### 비자 취득시 필요서류 (공통)

비자를 취득시 비자종류의 따라 그 서류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하기와 같다.

- .출생증명서
- .의료보험증
- .범죄 경력증명서
- .거주증명서(크로아티아 내)
- .거주지 계약서
- .사진 2매
- .비자 신청서

일반적으로 학생 비자의 경우는 입학증 및 학생증,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는 제직 증명서등이 더 요구되므로 이정도 유의가 필요하다.

## 19. 환전

### <화폐단위>

기본적인 화폐단위는 쿠나(KUNA)로서 약칭은 KN이며 공식명칭은 HRK로 표기한다. 소액으로는 리파가 있으며 100리파(LIPA)가 1쿠나이다. 쿠나는 크로아티아에 주로 서식하는 담비의 현지어 명칭이다.

주화에는 1, 2, 5, 10, 20, 50리파, 1, 2, 5쿠나가 있으며 지폐로는5, 10, 20, 50, 100, 200, 500, 1000쿠나 등이 있다.

| <각 기간별 평균 중간환율 (US\$ : HRK)> |                                  |
|------------------------------|----------------------------------|
| 년도                           | 현지화(kuna)/USD                    |
| 1992                         | 0.264299                         |
| 1993                         | 3.577417                         |
| 1994                         | 5.995300                         |
| 1995                         | 5.229967                         |
| 1996                         | 5.433800                         |
| 1997                         | 6.157050                         |
| 1998                         | 6.362292                         |
| 1999                         | 7.112441                         |
| 2000                         | 8.276819                         |
| 2001                         | 8.339074                         |
| 2002                         | 7.863712                         |
| 2003                         | 6,125505                         |
| 2004.5.19                    | 6,193661                         |
| 2004.12.17                   | 5,627215<br>(크로아티아 중앙은행 고시 중간환율) |

자료출처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현재 환율확인이 가능하다.

<http://www.hnb.hr>

2002.2월부터 EU국가에서 유로가 공식화폐로 사용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에서도 미화보다는 유로화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일반거래는 주재국화폐로 하지만 큰 계약이나 거래건은 유로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 <환전>

환전은 공항, 호텔, 거리의 환전소(Menjacinica), 은행(BANKA)에서 할 수 있으며 환전소의 경우 환전수수료가 있는 곳과 환전수수료가 없는 곳이 있어 반드시 환전수수료 여부 및 환율을 비교하여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 환전의 경우 대부분 환전수수료를 받으며 환전수수료는 대략 1.5%이다.

## 20. 환전/2005년 6월 21일 각국 통화 환율

○. 2005년 6월 각 주요통화 환율

| 국가명      | 통화표시 | 통화량 | 살때        | 중간        | 팔때        |
|----------|------|-----|-----------|-----------|-----------|
| 호주       | AUD  | 1   | 4.674527  | 4.688593  | 4.702659  |
| 캐나다      | CAD  | 1   | 4.873941  | 4.888607  | 4.903273  |
| 체코       | CZK  | 1   | 0.243794  | 0.244528  | 0.245262  |
| 덴마크      | DKK  | 1   | 0.980431  | 0.983381  | 0.986331  |
| 헝가리      | HUF  | 100 | 2.947863  | 2.956733  | 2.965603  |
| 일본       | JPY  | 100 | 5.522031  | 5.538647  | 5.555263  |
| 노르웨이     | NOK  | 1   | 0.930556  | 0.933356  | 0.936156  |
| 슬로바키아    | SKK  | 1   | 0.190569  | 0.191142  | 0.191715  |
| 슬로베니아    | SIT  | 100 | 3.049573  | 3.058749  | 3.067925  |
| 스웨덴      | SEK  | 1   | 0.788368  | 0.790740  | 0.793112  |
| 영국       | GBP  | 1   | 10.985070 | 11.018124 | 11.051178 |
| 미국       | USD  | 1   | 6.041607  | 6.059786  | 6.077965  |
| 유럽연합(EU) | EUR  | 1   | 7.300677  | 7.322645  | 7.344613  |
| 폴란드      | PLN  | 1   | 1.803973  | 1.809401  | 1.814829  |

○. 정보원 : 크로아티아 중앙 은행

## 21. 기후

### 기후

동북부지방은 유럽대륙성기후이며, 서남부 해안지방은 지중해성 기후로서 자그레브의 평균 기온은 1월은 섭씨 -0.9도, 7월은 섭씨 20.6도의 평균기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관광도시인 두브로브닉의 평균기온 1월 섭씨 10.7도, 7월 섭씨 24.3도로써 연간평균기온은 섭씨 16.5도의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을은 비교적 짧은 편이며 최근에는 연도별로 기온이나 날씨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그레브의 경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서울의 날씨에 비해 3-4도 정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면 큰 무리가 없다.

- 기후 관련 정보 링크 : [http://www.dhzmz.htnet.hr/index\\_en.html](http://www.dhzmz.htnet.hr/index_en.html)  
(지역별 강수량 및 현재 기후를 파악가능)

대부분의 출장자가 방문하는 자그레브도시인 경우 우리나라와의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고 우리나라에서의 복장수준으로 오면 현지 기후적응에 큰 무리가 없다.

## 22. 공휴일

| <2005년 공휴일표> |                                 |
|--------------|---------------------------------|
| 1/1          | New Year ' Day                  |
| 1/6          | Epiphany                        |
| 4/21         | Eastern Monday                  |
| 5/1          | Labour Day                      |
| 5/30         | Ascention                       |
| 6/22         | Antifascist Struggle Day        |
| 6/25         | Croatian Statehood Day          |
| 8/5          | Croatian Homeland Gratitude Day |
| 8/15         | Assumption of Mary              |
| 10/8         | Independence Day                |
| 동유럽 11/1     | All Saints' Day                 |
| 동유럽 12/25    | Christmas Holidays              |

<크로아티아 출장을 피하여야 할 기간>

7-8월은 여름 휴가기간으로 일부 민간기업, 경제관련 단체들은 동 기간중 1개월간 휴가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락이 어려우며 12월 중순부터 1월초까지는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연시로 정상적이 업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 23.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 시차/근무시간

GMT+1 즉 한국시간보다 8시간 늦으며 서머타임 적용시는 7시간 차이가 난다. 매년 3월 마지막주 일요일부터 서머타임이 실시되고 10월 마지막주 일요일부터 서머타임이 해제된다. CENTRAL EUROPEAN TIM(CET)를 따르므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과 동일한 시간대에 속한다.

노동법상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분야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 분야별 근무시간 |   |
|----------|---|
| 행정기관     | 08:30 ~ 16:30(월~금) * 대부분 4시까지                           |
| 공장       | 07:00 ~ 14:00   |
| 상점       | 필수품 07:00 ~ 20:00 또는 08:00 ~ 20:00(월~금)                 |
|          | 07:00 ~ 15:00 (토요일)                                     |
|          | 일 반 08:00 ~ 12:00, 17:00 ~ 20:00 또는 08:00 ~ 20:00 (월~금) |
|          | 08:00 ~ 15:00(토요일)                                      |
| 은행       | 07:00 ~ 19:00 (월~금; 지점별로 순번제로 20:00까지 근무)               |
|          | 08:00 ~ 16:00 (소도시 은행)                                  |
|          | 07:00 ~ 12:00(토요일)                                      |
| 우체국      | 08:00 ~ 20:00(월~금)                                      |
|          | 08:00 ~ 15:00(토요일)                                      |

각 업체마다 고유한 업무시간이 있으며 사무실의 경우 업무 종료시간은 대부분 3시에서 4시 사이이며, 업체의 경우 금요일은 오후 2시경 업무를 종료하는 경향이 강해 금요일 오후 시간에 비즈니스 상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공서의 경우 업무는 08:00부터 시작하지만 대외 업무 서비스 등은 보통 9시에 시작되며 출근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개인상점의 경우 판매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가 대부분이며 토요일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 또는 오후 3시까지로 한정된다. 일요일의 경우 일부 식당, 카페 등을 제외한 상점은 모두 문을 닫으므로 가능한 한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경우 토요일 오전 내에 구입해야 한다.

공장(제조설비)을 운영하는 업체(제조업체)는 대부분 오전 7시나 7시 30분에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3시나 3시 30분경 근무를 마치게 된다. 점심시간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동법에 의거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30분간의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한 차, 스낵으로 점심을 대체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 점심겸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특히 관공서나 우체국 등의 경우 30분간 휴식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므로 해당 휴식시간 유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 24. 호텔

### 호텔

| 호텔명          | 등급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요금(US\$) | 위치        |
|--------------|----|----------|----------|----------|-----------|
| ESPLANDA     | A  | 456-6666 | 457-7907 | 180      | 시내중심가     |
| OPERA        | L  | 4892-000 | 4892-060 | 200      | “         |
| SHERATON     | L  | 455-3535 | 455-3035 | 220      | “         |
| PALACE       | B  | 481-4611 | 481-1358 | 120      | “         |
| DUBROVNIK    | B  | 487-3555 | 481-8665 | 100      | “         |
| GOLDEN TULIP | B  | 349-6621 | 349-6607 | 100      | 시내 외곽(서부) |
| ILICA        | ** | 377-7522 | 377-7722 | 50       | 시내중심가     |

- \* 주 1. 요금은 싱글기준이며 계절에 따라 변동가능
- 2. 국제전화시 국가번호 (+385) 및 지역번호 (1)를 덧붙여야 함.
- 3. 상기가격은 부가가치세(22%), 아침식사 포함

\* 주 L:Deluxe, A: First Class

직접팩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일부 호텔은 자그레브 무역관에서 할인요금으로 호텔에 약을 대행할 수 있다.

## 25. 식당

### 식당

| 음식종류 | 식당명           | 주소               | 전화       | 가격(US\$) |
|------|---------------|------------------|----------|----------|
| 중국식  | ASIA          | Petrinjska 71    | 4841-218 | 100      |
| 현지식  | DUBRAVKIN PUT | DUBRAVKIN PUT BB | 4834-975 | 100      |
| 현지식  | OKRUGLJAK     | MLINOV 28        | 4674-112 | 120      |

\* 가격은 4인 기준(2003년)이며, 주문양에 따라 가격변화가 있다.

---

## 26. 교통/통신/교통, 통신

### <교통>

#### (항공편)

직행노선은 없으나 인근 유럽 주요 공항과 매일 수회 연결되어 있다. 경유지는 주로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쉐리히, 비엔나, 모스크바, 뮌헨 등이며 비행시간은 총 14-16시간 내외가 걸리며 예약상황은 한국의 유럽노선과 동일하다.

#### (택시)

콜택시회사 전화번호는: 970, 575-021, 276-183 등으로 전화로 부르면 5분내로 오며 일반 택시요금과 동일하다. 도심 외곽에서는 택시잡기가 어려우며 택시 기본요금은 25쿠나 (5,000원 정도)이며, 택시요금은 타 도시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다.

#### (시내대중교통)

시내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전차(Tram)와 시내버스로 전차는 대부분의 시내를 관통하고 전차가 달지 않는 지역은 버스가 다닌다. 요금은 6.5쿠나이며 동일한 방향의 노선을 연결하여 복수의 전차의 승차가 가능하며 90분 동안 유효하다. 카드 구입은 보통 정류장 근처에서 판매하며, 전차에 타자마자 카드기계에 도장을 받아야 하며, 무임 승차의 경우 높은 벌금을 받게 된다. 전차가 내리는 지역에서 바로 버스가 연결되어 있어 불편함이 없으나, 휴일에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일 경우도 있으니, 미리 시간표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철도)

주요도시간 철도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태리, 오스트리아, 독일 등과도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 철도가 단선인 상태로 운행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

#### (공항-시내간)

택시승차요금은 약 미\$35, 크로아티아항공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이용 시 1인당 미\$4 소요된다.

### <통신>

#### (통신 현황)

송수신 상태는 양호하나 이동전화의 경우 외곽도로, 고속도로지역 등 통화 불가능한 지역이 많으며 도시 내에서도 회선 수 부족으로 통화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요금수준은 국제전화의 경우 한국에 비해 50% 이상 비싼 수준이며 일반전화 설치 시 초기 설치비용은 회선당 600쿠나(약70불)이며, 전화회선을 반환하더라도 해당 설치비용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전화회선 설치 신청 후 설치비를 납부하고도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정도로 전화회선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동전화는 유럽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GSM방식과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전화로 구분되며 보통 신청 및 가입비 납부 후 익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GSM 전화번호의 지역번호는 098,091이며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동전화의 지역번호는 099이다. 일반전화서비스는 전기통신공사(HPT)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독점에 따른 서비스 열악,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다. '99년부터 VIPNET라는 개인기업에게 제2 이동통신이 허가되어 현재 국영기업 HPT가 경영하는 CRONET와 경쟁 중에 있다.

(한국에 통화하는 방법)

한국에 전화를 거는 경우 00-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이동전화는 유럽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GSM방식이 사용되며, GSM 전화번호의 지역번호는 098, 091 두 개가 있다. GSM카드(SIM card)의 가격은 300쿠나(약 5만 7천원)정도이며, 구입시 카드에 100쿠나가 충전되어있다.

시내 공중전화는 동전을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은 없고 카드를 사야 하는데 카드는 우체국 또는 상점에서 팔며 가격은 25쿠나부터 100쿠나까지 있다.

## 27. 교통/통신/지역간 대중교통 소요시간

### 크로아티아 내 대중교통 소요시간

<버스>

- . 자그레브-바라즈딘 : 2시간
- . 자그레브-카를로바쯔 : 1시간
- . 자그레브-슬라본스키 브로드 : 3시간
- . 자그레브-오시엑 : 4시간 30분
- . 자그레브-리에카 : 2시간 20분
- . 자그레브-풀라 : 3시간30분
- . 자그레브-자다르 : 6시간
- . 자그레브-스플릿 : 9시간
- . 자그레브-두브로브닉 : 12시간

\* 일반적으로 버스는 직행이 아닌 완행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기차>

기차 소요시간은 버스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걸리는 편이다.

<비행기>

크로아티아 역내에서 비행기를 이용시 모두 1시간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 28. 유용한 연락처

### 유용한 연락처

- 경찰서: 국번 없이 92
- 소방서: 국번 없이 93
- 앰블런스: 국번 없이 94
- 비상사태: 국번 없이 112
- 콜택시: 국번 없이 970
- 자동차 관련 서비스: 국번 없이 987
- 기차 정보: 국번 없이 9830
- 버스 정보: 060-313333
- 항공 정보: 626-5222
- 관광 안내: 481-4052

| <한국기관> |   |                  |  |
|--------|---|------------------|--|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대사관    | Andrassy ut. 109 Budapest VI.<br>H-1062 | ++36-1-351-1179  | 주 헝가리 대사관 관할   |
| 무역관    | Gunduliceva 22a, 10000 Zagreb           | ++385-1-4815-101 | Email:<br><a href="mailto:kotra@koreatrade.hr">kotra@koreatrade.hr</a> |

| < 현지 관공서 > |                   |          |   |
|------------|-------------------|----------|---|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통계청        | Ilica 3, Zagreb   | 480-6111 | <a href="http://www.dzs.hr">www.dzs.hr</a><br>크로아티아의 각종 통계  |
| 전시장        | Av. Dubrovnik 15  | 650-3111 | <a href="http://www.zv.hr">www.zv.hr</a><br>전시회 정보          |
| 경제<br>회의소  | Trg Rooseveltov 2 | 484-6661 | <a href="http://www.hgk.hr">www.hgk.hr</a><br>기업체 정보/수입상 정보 |

| < 은행 >                |                          |          |  |
|-----------------------|--------------------------|----------|--|
| 은행명                   | 주소                       | 전화       | 비고   |
| Zagrebacka Banka d.d. | Paromlinska 2, Zagreb    | 610-4000 | <a href="http://www.zaba.hr">www.zaba.hr</a> |
| Privredna Banka d.d.  | Franje Rackoga 6, Zagreb | 455-0822 |  |

---

<은행>

\* 위 두 은행은 이태리 계 은행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내 46개 상업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신뢰성이 높은 은행으로 매출, 자산, 이익 기준으로 Zagrebacka Banka d.d. 가 1위, Privredna Banka d.d. 가 2위이며, 이들 은행이 크로아티아 전체 상업은행의 자산, 매출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9. 여행시 유의사항

### 여행시 유의사항

(의복)

기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므로 우리나라에서의 복장을 준비하면 된다.

(전기규격)

전기규격은 50HZ, 220V이다.

(치안)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범죄발생율은 낮다. 그러나 야간에 외진 곳 출타는 삼가야 한다. 시내 중심가의 경우에는 야간에도 문제가 없다. 관광중심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출입국 관리가 엄격하여 범죄집단이나 불법체류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경찰력이 많아 자그레브 도시의 경우 한 블록마다 경찰이 있을 정도이어서 치안은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차량도난도 빈발하지는 않고 있어 인근지로부터 방문 시 차량을 이용한 여행도 권장할 만 하다.

(응급)

응급 앰블런스를 부르려면 94를 다이얼 하면 되고 비용은 무료이다. 인근에 있는 약국에서는 의사처방전은 필수이나 간단한 감기약 등은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팁 관행)

현지에서 팁을 주는 관행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 레스토랑에서는 약 5-10% 정도의 팁을 줄 수 있으나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호텔의 경우에는 대개 5-10% 정도의 팁을 주고 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탈 때도 미터요금만 계산하면 되며 별도의 팁을 줄 필요가 없다.

(식수)

현지의 수돗물에는 석회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가스가 있는 경우와 가스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서 사야 한다. 호텔에서의 미네랄 워터는 비싸므로 호텔체크인시 인근 슈퍼에서 미네랄워터를 구입해야 한다.

(이발소)

현지인이 운영하는 이발소는 대개 우리나라사람의 머리스타일과 다르게 깎기 때문에 가능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용 시에는 어떻게 깎아달라고 자주 주문을 해야 한다.

(물가)

크로아티아의 물가는 한국의 물가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비싸다. 야채류나 과일류는 다소 저렴한 편이나 문구류, 전자제품, 음식값 등은 한국보다 비싼 편이다.

(쇼핑장소)

자그레브에서 센터(CENTAR)라고 부르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명동과 유사한 지역으로 모든 쇼핑가게들이 밀집되어 있어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대부분이 문을 닫는다. 외국계 및 크로아티아 계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이 다양하게 있다. 대형 할인점(King Cross, Getro, Mecator 등)은 일요일도 쇼핑이 가능하다.

(특산품)

현지에서 나는 특별한 특산품은 없다.

## 30. 관광명소

### 관광명소

크로아티아 관광소개 영문 홈페이지 : 크로아티아 국가관광위원회

(Croatian National Tourist Board)

<http://www.croatia.hr>

자그레브는 1094년 주교구의 설정으로 비로소 도시로 탄생하였으며 사바강을 중심으로 강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주요 관광명소로는 13세기부터 18세기에 세워진 로마네스크양식의 성당과 750년전에 1000여 미터의 고지에 세워진 MEDVEDNICA 요새가 있다. 동 요새에 크로아티아를 위해 숨진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제단이 세워져 신성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서남쪽 아드리아의 해안지역은 유럽내에서 여름철 휴가지역으로 유명하다. Krk섬을 비롯하여 중세도시에 건설되어 보존이 잘되어 UNESCO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Dubrovnik도시는 아름다운 해안도시로 유명하다.

o. 유명한 관광명소 사진모음



크로아티아 국립극장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성당



자그레브 중심가



자그레브 호수공원(야륄)



해안도시 (플라)



해안도시 (로빈)



해안도시 (두브로브닉)

## 31. 유용한 현지어 표현

### 유용한 현지어

#### <발음규칙>

크로아티아어는 라틴어로부터 유래되어 알파벳과 거의 같으나 알파벳에 없는 7가지 글자가 있다. 그리고 별도의 발음기호없이 소리나는 대로 읽으나 "J"는 "예", C는 취 발음이 난다.  
(예) MATIJ(마티예)

#### <인사말>

|                |                                    |
|----------------|------------------------------------|
| 예/아니오          | : Da/Ne(다, 네)                      |
| 감사합니다          | : Hvala(흐발라)                       |
| 공손, 당부(Please) | : Molim vas(몰림 바스)                 |
| 미안해요           | : Zao mi je/Oprostite(자오미예/오쁘로스티페) |
| 이것은 무엇입니까      | : Šta je ovo(스타 예 오보)              |
| 얼마입니까          | : Koliko košta(콜리꼬 코스타)            |
| 아침인사(10이전)     | : Dobro Jutro(도부로 유뜨로)             |
| 낮인사            | : Dobar Dan(도바르단)                  |
| 저녁인사           | : Dobra vece(도바르 베체)               |
| 헤어질 때          | : Dovidjenja(도비젠야)                 |
| 몇시죠            | : Koliko je sati?(콜리꼬에 샨띠)         |

#### <주요 단어>

|     |              |
|-----|--------------|
| 언 제 | : kada(까다)   |
| 아 침 | : jutro(유뜨로) |
| 점 심 | : rucak(루착)  |

저녁 : vecera(베체라)  
 오늘 : danas(다나스)  
 입구 : ulaz(유라즈)  
 출구 : izlaz(이즈라즈)  
 출발/도착 : polazak/dolazak(플라착/돌라착)  
 경찰 : policajac(폴리차야쯔)  
 기차역 : kolodvor(콜로드보르)

## 32. 유용한 현지어 표현/크로아티아어 학습 사이트(무료)

크로아티아어 학습 사이트(무료)

크로아티아어 학습을 원하실 경우 하기의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hr/hrvatska/language/index.en.htm> (크로아티아어 학습가능 인터넷사이트)

## 33. 국토

국토

<위치>

유럽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의 서쪽으로는 이탈리아가 있고, 북쪽으로는 헝가리, 오스트리아와 접해 있다. 위도상으로 45도상에 있어 우리나라보다는 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

총 육지면적은 56.6천 평방미터로 우리나라(남한)의 약 60%정도 크기이다. 그리고 해상면적은 31.3천 평방미터이다.

<부존자원>

주요 자원으로는 원유 및 천연가스 등으로서 총 매장량은 각각 15,765천m<sup>3</sup>, 33,925천m<sup>3</sup>정도이다. 그러나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원유는 국내수요의 약30%만을 충당하고 있으며 석탄의 경우에도 약 14%정도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다.

<자연경관>

크로아티아의 서쪽은 아드리아 해안을 끼고 있어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년 연중 맑은 날씨가 많으며 기후가 따뜻하고 해안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그 외 도시도 오래된 나무들과 숲으로 쌓여 있어 무척 아름답다.

## 34. 국민

### 크로아티아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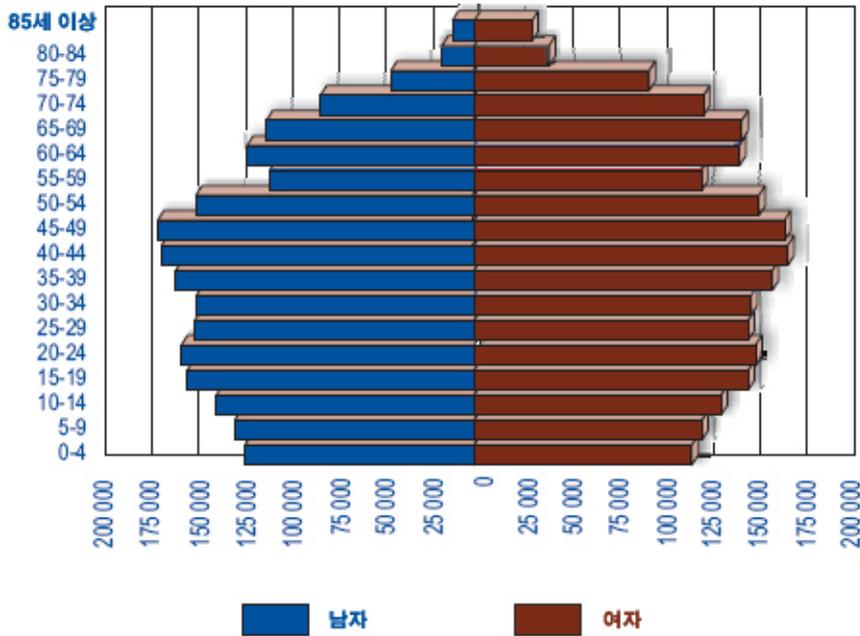
2005년 크로아티아 통계청 발표자료(2004년 개정판)에 의하면, 2001년 6월 당시 전체인구수는 4,437,460명으로 집계되며, 기본적인 인구통계 수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인구 통계- 기초지수

| 항목              | 1999년     | 2000년     | 2001년     |
|-----------------|-----------|-----------|-----------|
| 크로아티아 전체 인구수(명) | 4,554,000 | 4,381,000 | 4,437,460 |
| 탄생인구(명)         | 45,179    | 43,746    | 40,993    |
| 사망인구(명)         | 51,953    | 50,246    | 49,552    |
| - 유아사망(명)       | 350       | 324       | 315       |
| - 폭력사망(명)       | 2,939     | 2,905     | 2,742     |
| - 자살(명)         | 989       | 926       | 882       |
| - 교통사고 사망(명)    | 682       | 717       | 673       |
| 인구자연증가(명)       | -6,774    | -6,500    | -8,559    |
| 결혼(쌍)           | 23,778    | 22,017    | 22,076    |
| 이혼(쌍)           | 3,721     | 4,419     | 4,670     |

인구조사는 2001년에 시행된 바 있으며, 아직 2003년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01년 당시 인구에서 민족분포를 보면 크로아티아인이 89.63%이고, 그외 다민족 분포는 세르비아인 4.54%, 헝가리인 0.37%, 슬로베니아인 0.30% 보스니아인 0.47% 그리고 알바니아인이 0.34%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1년 크로아티아에 보여지는 연령대별 성별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2001년 인구조사 성별 연령별 분표도



지역별 인구수는 2001년 3월 인구조사결과 수도인 Zagreb가 691,724명, Split 175,140명, Rijeka 143,800명, Osijek 90,411명, Zadar 69,556명 등이다.

해외근로자 및 가족수는 '91년도에 285천명으로 나타났으며 해외교포 인구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유럽내에 137만명(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752천명, 독일 183천명, 세르비아 149천명, 슬로베니아 56천명, 헝가리 50천명 등)으로 추정되며 미국 1백만명, 호주 30만명, 남아메리카 20만명, 아르헨티나 13만명, 캐나다 8만명, 칠레 5만명 등으로 추정되어 총 310만명의 해외교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립이후 이들 해외교포의 자금 및 경제적 지원이 크로아티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들의 귀국을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 역시 장려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인들은 솔직하고 사교적이며 명랑하다. 외국인에 대해 상당히 친절하다 다만 신뢰성은 다소 떨어져 어느 정도 신뢰도가 쌓이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100%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적인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이다.

크로아티아인들은 수영, 싸이클링, 일광욕, 해수욕, 테니스, 스키, 농구, 축구 등을 좋아하며 이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이다. 그외에 농구, 테니스 등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많이 배출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비교적 실내외 테니스장이 많이 갖추어져 있어 일반인들의 스포츠 관심도를 잘 반영되어 있다. 자그레브의 경우 골프장이 없으나 최근 골프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근지 슬로베니아 골프장을 즐겨 찾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오페라, 콘서트, 연극 등이 빈번하게 개최되며 개인 미술전시회 등을 갖는 사람도 다수 있다. 나이브 페인팅이 유명하며 많은 화가들이 있다. 크로아타이의 경우 유럽의 한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소득은 서유럽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문화적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100%가입되어 있다. 기본보험료는 월 급여(총급여)의 9%수준이며 고용주도 종업원 총급여의 9%를 부담한다.

기본보험의 수혜범위는 100% : 산재부상, 응급조치, 암, 에이즈, 정신병, 소아마비, 전염병, 99% : 해외의료 서비스, 95% : 전문의 서비스, 85% : 치과치료, 80% : 기본안정, 산재이외 부상 60% : 의료운송, 45% : 성인의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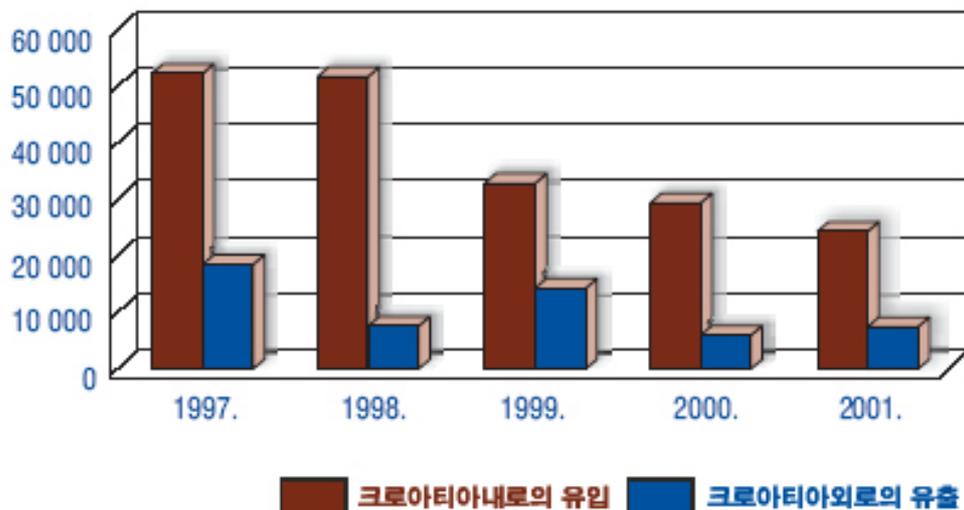
외국인중 현지 취업허가를 받은사람은우 의료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나 외교관 등 취업허가, 세금납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순 거주 목적의 경우 인근지 서유럽보험회사들이 운영하는 국제 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 35. 국민/유입 및 유출 인구수

크로아티아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2001년 인구조사 당시 24,415명으로 크로아티아에서 나가는 이민자 7,488명보다 많은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크로아티아로 들어오고 나가는 이민수는 아래 그림과 같다.

**1997년 부터 2001년 까지 크로아티아 이민 유입및 유출 인구**

이주민수 (명)



## 36. 역사

### 크로아티아 역사

#### <약사>

|              |   |
|--------------|---|
| 7세기          | 크로아티아 공국 수립                                 |
| 10세기         | 크로아티아 왕국 수립                                 |
| 1527         | 오스트로-헝가리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하 주권국으로 전환            |
| 1896         | 헝가리와 달마티아 왕국,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통치권 합의      |
| 1918         | 합스부르크 왕조로부터 분리. 독립 및 세르비아 및 슬로베니아와의 연합왕국 수립 |
| 1929         | 국명을 유고슬라비아로 개칭                              |
| 1990. 12. 22 | 크로아티아 독립헌법채택                                |
| 1991. 6. 25  |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분리 및 크로아티아 독립선언                   |
| 1991. 10월 이후 | 신유고연방과의 독립전쟁 발발                             |
| 1991. 12. 26 | 독립 및 크로아티아 공화국 수립                           |
| 1992. 5. 22  | UN 회원국 가입                                   |
| 1992. 12     | WORLD BANK, IMF 가입                          |
| 1993. 4      | EBRD 가입                                     |
| 1995. 8      | 두차례의 군사 작전으로 세르비아계 점령 지역 탈환                 |
| 1995. 11     | 동슬라보니아 지역의 유엔임시행정부 관할 시작                    |
| 1995. 12     | 유고내전 종식(DAYTON 평화협정)                        |
| 1996. 11. 9  | COUNCIL OF EUROPE 가입                        |
| 1998. 1. 15  | 동슬라보니아 지역 유엔임시행정부 철수, 크 행정부 통치권 회복          |

#### <기원전부터 초기 역사>

|               |   |
|---------------|---|
| 기원전 1300-750년 | 인도-유럽국가의 정치, 인종적 혼란기  |
| 기원전 1000년경    | 일리리안 종족이 주변국가에 거주   |
| 기원전 650년경     | 그리스인에 의해 아드리아 동부해안 점령   |
| 기원전 4세기경      | 켈트족이 발칸 반도에 침입  |
| 기원전 229년      | 일리리안족과 로마와의 전쟁시작, 아드리아 동부해안이 로마인에 의해 점령되기 시작함   |
| 서기 9년         | 4년간에 걸친 전쟁끝에 로마인이 일리리안을 물리치고 일리리리쿰(일리리안 정착지)을 점령함. 일리리안 정착지는 크게 파노니아와 달마치아로 나뉘어졌는데, 이 경계는 처음에는 자연 |

|      |  |
|------|--|
|      | 적인 조건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후에 정치적 또는 문명의 경계, 교회의 경계선이 되었음  |
| 355년 | 피노니아와 달마치아는 SUEB, QUAD 및 SARMAT 족에 의해 약탈 당함  |
| 375년 | 고트족의 침입 및 오스트로고트왕국의 붕괴로 여러 민족의 유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
| 380년 | 다뉴브지역의 로마 제후국들의 붕괴로 바바리아인들이 파노니아지역으로 유입됨   |
| 430년 | 달마치아 지역은 동로마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었음  |
| 546년 | 로마황제 유스티니아의 허락에 의해 게르만 롬바르드족이 파노니아 및 노릭(NORIC)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들은 로마제국을 아바르인, 슬라브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함  |
| 600년 | 크로아티아 서북지방 ISTRIA지역이 아바르인 및 슬라브인의 침입을 받음   |
| 7세기경 | 비잔틴 황제 콘스탄틴 포르피로게니투스(10세기)에 의하면 크로아티아인은 백크로아티아(카르파티안 북쪽)에서 5명의 형제명의 형제, 2명의 자매가 이동하여 세운 것으로 되어 있음. 비잔틴 제국과의 동맹에 의해 아바르인과 싸웠으며 여기에서 승리하여 크로아티아인들은 파노니아, 달마치아, 일리리아 등에 정착하였음. 이들은 곧 기독교로 개종하였음 |

<고대 이후 제1차 대전전까지>

|          |   |
|----------|---|
| 751-774년 | 이스트리아는 롬바르드족의 지배하에 들어감  |
| 774-778년 | 이스트리아지역이 비잔틴제국의 일부로 편입됨   |
| 788년     | 이스트리아 지역이 프랑크 지배하에 들어감  |
| 791년     | 크로아티아 지역은 프랑크와의 연합으로 아바르족을 물리침. 크로아티아 지역이 프랑크의 지배를 받음   |
| 817년     | 프랑크왕국의 분열로 크로아티아지역은 이태리왕의 지배와 독일의 지배 지역으로 나뉨  |
| 845-864  | 크로아티아 트르피미르(TRPIMIR) 왕자는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위해 자다르 전략가, 비잔틴 지배자, 베니치아 등과 싸웠으며 자기자신을 '크로아티아의 왕자'라고 하는 기록(852년 3월 4일)을 남겼음. |
| 878년     | 크로아티아주교 테오도시우스에게 보낸 교황의 편지에 크로아티아의 로마 교회로의 복귀에 만족하며 주교의 크로아티아 통치권을 부여하므로써 크로아티아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최초의 해가 됨             |
| 912-925  | 크로아티아 통치자 토미슬라브 (TOMISLAV)가 헝가리인의 침입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시킴. 비잔틴제국과 연합하여 달마치아 지역도 지배하에 두었음. 925년 교황 요한 10세에 의해 왕으로 인정 받음  |

|       |  |
|-------|--|
| 1091년 | 헝가리왕 라디슬라스 1세가 크로아티아-달마치아 왕권을 주장하며 슬라보니아지역을 침공, 자기의 조카를 왕으로 임명함. 1097년에는 헝가리 왕 KOLOMAN이 다시 크로아티아 정복을 목적으로 침공하여 크로아티아 왕 PETAR가 전투에서 사망함. 이로써 트르피미르왕조가 사라짐   |
| 1102년 | 헝가리 왕 KOLOMAN이 크로아티아 왕을 겸임하며 크로아티아는 헝가리로 합병됨(1526년까지). 1107년에는 달마치아지역에 대한 자치권이 허용되었음. 이후 크로아티아의 각 도시에 대한 자치권이 확대되었음.   |
| 1358년 | 헝가리-크로아티아와 베네치아간 2년 전쟁 후 자다르평화조약이 체결되어 베네치아로부터 아드리아해안의 모든 정복지가 크로아티아로 반환되었음  |
| 1440년 | 투르크와의 전쟁이 전개되어 크로아티아의 많은 지역이 투르크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1700년대 초반까지 투르크와의 전쟁이 계속되었음  |
| 1526년 | 보헤미아 - 헝가리 - 크로아티아 왕인 라디슬라스 2세가 1526년 후손없이 사망하자 보헤미안은 페르디난드 합스부르크를 왕으로 선출하였고 헝가리인은 왕의 선출을 두고 두파로 갈라져 한 파는 공작 이반 자폴리아를 선출하였고 다른 한 파는 페르디난드 합스부르크를 왕으로 선출하였음.<br>크로아티아에서는 1527년 페르디난드 합스부르크를 왕으로 선출하였음.<br>이로부터 크로아티아는 1918년까지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게 되었음  |
| 1848년 | 크로아티아 주요 지도자들이 JOSIP JELACIC의 VICE - ROY로의 승진을 비롯한 자체적인 의회 구성, 달마치아 및 슬라보니아 지역의 크로아티아 통합 행정 및 교육상 크로아티아어의 사용, 종교자유, 신분의 평등 등을 요구함. 헝가리의 반대로 이 요구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헝가리는 카파티안에서 아드리아해안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통합하려고 하였으나 크로아티아는 이에 반대하였음. 1848년 9월 VICE-ROY JOSIP JELACIC는 헝가리의 통합움직임에 대항하여 방어적 전쟁을 일으켰으며 러시아 군의 도움으로 헝가리를 물리쳤음 |
| 1849년 | 합스부르크 왕가는 중앙집권적, 절대주의적 헌법을 채택하여 크로아티아가 1848년에 획득한 모든 개혁적 조치가 무용지물이 되었음.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감시활동이 강화되었음   |
| 1852년 | JELACIC의 노력으로 자그레브 교구는 대교구가 되었으며 이로써 크로아티아의 교회는 헝가리교회의 감독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음   |
| 1860년 | 합스부르크 왕국 황제 프란츠 요셉(FRANZ JOSEPH) 1세의 절대주의 폐지와 함께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에 독자적인 헌법권  |

이 부여됨. 1866년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그레브 도심에 JOSIP JELACIC 동상(기념물)이 설치됨. 1868년에는 헝가리와 크로아티아간 상호국교가 수립되고 행정, 사법, 교육부문의 독립이 이루졌으며 군대 조직이 허용됨

1914년 사라예보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후계자 프란시스 페르디난드가 왕비 소피아와 함께 피살됨. 암살은 세르비아 체트닉 기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곧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통해 1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

<1차 대전과 남슬라브 국가의 통합>

1918년 크로아티아 자치법률에 근거하여 크로아티아 의회는 오스트리아와의 모든 법률적, 국가관계를 단절하고 모든 권한을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로 이양하였음. 동 국가위원회는 남슬라브지역에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공화국을 선언하였음. 남슬라브지역을 한 국가로 통합하려는 운동은 1915년 파리에 망명중인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인들이 유고슬라브동맹(YUGOSLAV COMMITTEE)을 결성한 때로부터 시작되었음.

국가위원회는 1918년 12월 1일까지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크로아티아는 12세기 이후 헝가리, 오스트리아 통치하에서도 인정받았던 독립적인 지위를 계 되었음. 크로아티아 권리당의 통합 반대 운동은 통합을 찬성하는 경찰의 탄압으로 짓밟혀졌으며 12월 5일에는 JELACIC 광장에서 반대 데모를 하는 군인들에게 발포하여 인명이 살상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1920년 후일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전신인 사회노동자당이 설립되었으며 라팔로조약(RAPALO AGREEMENT)에 의해 크로아티아의 북서 및 아드리아해안 지방이 이태리로 귀속됨. 1924년에는 이태리 무솔리니와 슬로비아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왕국의 수상간 합의에 의해 항구도시인 RIJEKA가 이태리로 이양됨

1928년 의회내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크로아티아 주요 정당지도자들이 사망함. 이를 계기로 크로아티아의 독립 움직임이 강해졌으나 1929년 알렉산더 왕은 오히려 왕권 강화 조치 및 의회해산, 정치활동 금지조치를 취했으며 공식명칭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변경하였음.

1934년 왕 알렉산더가 마르세이유에서 암살되었지만 중앙집권적, 세르비아계의 통치는 지속되었으며 1928년 이후 크로아티아 정당지도자들은 비밀 불법조직으로 변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함. 1937년에는 크로아티아 공산당이 창립됨

1939년 세르비아계의 정치주도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반항이 거세져서

-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수상 CVETKOVIC와 크로아티아 농민당 당수 MACEK간 협정이 체결됨. 이 협정으로 어느정도의 자치권이 주어졌으며 크로아티아 정당의 주요 인사가 유고슬라비아 왕국 정부에 참여하게 됨
- 1941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해체로 크로아티아가 독립국가를 선언하고 이태리 파시스트 및 나찌 독일이 이를 지지하였음. 국제적인 반 파시주의자 및 세르비아 체트닉의 반 독립운동이 발생하였음. 1943년에는 크로아티아에 반 파시스트자유위원회(ZAVNOH)가 결성되어 크로아티아의 영역을 이태리 점령지역으로 확대하고 향후 유고슬라비아의 일부로 하는데 찬성함

<세계 제2차 대전이후>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티토가 이끄는 공산당 및 빨치산에 의해 연방인민유고슬라비아공화국이 설립되었음. 크로아티아공화국은 연방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형식적으로는 독립이 주어졌음. 이후 카톨릭에 대한 탄압 및 자그레브 대주교의 실형선고 및 징역, 민주 인사에 대한 처형 등 크로아티아의 독립 및 자율권 인정요구에 대한 탄압이 가해짐
- 1966년 유고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내무부장관이자 부수상인 ALEXANDER RANKOVIC의 해임으로 크로아티아에서는 자유의 확대, 모든 연방구성국민간의 평등, 경제에 대한 명확성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발생했으며 이는 67년의 주요 문인들의 크로아티아어의 표준어 지정 요구, 68년의 주요 지도자들의 자치권 요구, 71년의 학생운동 등으로 연결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자치권 확대 운동은 74년 새로운 헌법 채택시까지 허용되지 않았으며 1980년 티토의 사망으로 크로아티아계와 세르비아계간 대립 위기가 높아지게 되었음

<티토 사망이후>

- 1989년 크로아티아에는 처음으로 투즈만이 이끄는 야당인 크로아티아 민주연맹(HDZ)이 결성되었음. 동 민주연맹은 독립, 자유경제 질서 채택, 민주 다당제 도입, 모든 크로아티아인의 평등, 크로아티아인간의 화합, 서방 세계와의 관계강화 등을 주장하여 시민의 호응을 얻었음. 90년 공산당의 전체주의 이후 45년만에 다당제에 기초한 첫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연합은 승리하고 5월 30일 투즈만은 국회에서 크로아티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 90년 12월 22일에는 새로운 공화국 헌법이 채택되었음
- 1991년 5월 12-19일의 국민투표 결과 투표참석율 83.56%중 독립 찬성율 94.17%에 따라 6월 25일 크로아티아는 독립을 선언하고 유

---

고슬라비아와의 관계를 단절함. 유고 연방군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침공을 개시하여 95년 12월 14일 평화 협정이 체결되기 까지 전쟁이 계속되었음.

세르비아계는 보스니아와의 주요 국경지대 및 세르비아계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점령하여 크로아티아로부터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KRAJNA 지역은 '95년 8월 크로아티아군의 두차례 군사작전을 통해 크로아티아 영토로 회복되었으며 동슬라보니아(EASTERN SLAVONIA) 지역은 유엔임시행정부에 관할하기로 하였음(ERDUT 협정).

1998년

약 2년여간의 유엔임시행정부(UNTAES) 관할이후 98.1.15일 동슬라보니아지역은 크로아티아 정부로 평화적인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민간감시요원을 제외한 유엔군사력은 크로아티아 영토로부터 철수함

## 37. 국가조직

### <정부>

기존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였으나 '00.11 헌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 요소를 많이 가미하였다. 즉 기존헌법에는 대통령이 수상 및 각료를 임명하고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신 헌법에서는 국회에서 다수당 당수의 수상임명에 동의하면 이에 대한 추천권만 갖고 있을 뿐이며 국회해산도 수상의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자유, 비밀, 평등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크로아티아 군대의 최고 명령권자이며 의회의 결정에 따라 전쟁선포 또는 평화체결 권을 가진다. 현재의 대통령 Stipe Mesic는 '00.2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사법부>

8년 임기의 11명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와 15명 대법관으로 구성된 최고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법관은 의원과 동일한 면책특권을 지니며 법률의 헌법 위배여부를 심판한다. 최고재판소는 재판의 최종 심판소로 하급법원으로 지방법원, 상업재판소, 행정재판소 등이 있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영향력에 따라 재판의 회부 및 진행속도가 달라지며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한 후 약 6개월 정도가 경과되어야 재판이 시작되는 등 대체적으로 소송 진행속도가 늦은 실정에 처해있다. 소송의 진행은 변호사의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인적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재판 종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까닭에 상사분쟁 등 민사사건의 경우 법정 외의 합의가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법적인 절차보다도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 <국회>

단원제로 4년 임기의 국회(Sabor)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의석은 소수민족 등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 151~152석이다. 국회는 헌법의 개정,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예산 결정, 전쟁 및 평화결정 경계선의 변경, 국민투표 부의, 행정부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 대표원은 옴부즈맨(Ombudsman)을 선출하여 행정상 인권보호, 헌법수호 등의 역할을 부여하며 옴부즈맨의 경우 8년의 임기를 지닌다.

## 38. 정치제도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5년마다 한번씩 선출하고 국회(Sabor)는 단원제로 151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마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평상시에는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행정권은 수상과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내각이 행사하게 된다.

정부내각은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구성하거나 또는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 정당간 연합에 의해 연립정권을 구성하게 되는 데 수상은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의 당수 또는 연립정권에 참가한 정당중에서 가장 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당의 당수가 임명된다. 통상 수상과 장관은 국회의원이 취임하게 된다.

국회는 법률제정권, 행정부 감사원, 예산심의권, 조약비준권 등을 보유한다. 기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권 등의 행사를 통해 법률, 행정권, 등의 위헌여부를 감시한다.

크로아티아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그레브시를 비롯한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사회, 복지증진관련 직무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39. 정치사회동향/정치.사회동향

### <정치동향>

91.6월 독립선언이후 세르비아 주도의 구유고연방군과의 독립전쟁으로 세르비아접경의 동부 지역(VUKOVAR 및 OSIJEK)을 한때 상실하였고 자국내 세르비아계 집단거주지역인 서남부 KRAJNA 지방도 빼앗겼으나 '95년 8월 두차례에 의한 군사작전으로 일부를 되찾았으며 VUKOVAR 지역은 ERDUT 협정에 의해 유엔임시행정부의 관할을 거쳐 평화적으로 크로아티아로 통합되었다. 유엔임시행정부는 '98.1.15일까지 일부 병력을 제외한 대부분을 철수시켰으며 행정권도 지방자치 정부로 완전히 이양되었다.

---

또한 동 크로아티아(동슬라보니아) 지역의 평화적 통합을 위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등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크로아티아 화폐도입, 금융 및 공공서비스 기관의 진출, 법률제도의 이행 등이 완료되고 유엔임시행정부도 철수함에 따라 크로아티아는 '98년부터 진정한 국토회복의 첫해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0년 1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1991년 독립이후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투즈만 대통령의 HDZ 10년간 장기집권하였으나, 투즈만 정권 하에서의 부패, 독단적 권력행사에 염증을 느낀 국민이 6개 야당 연합을 선택하여, 야당연합이 HDZ을 누르고 압승을 거두어 SDP를 중심으로 한 중도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2000년 2월7일 실시된 대통령 2차 선거에서 야당후보인 스티페 메시치(Mr. Stipe Mesic)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3.12월 실시된 선거에 다시 국민은 HDZ을 제1정당으로 선택함으로써 지난 4년간 여당의 위치에 있었던 HDZ이 다시 정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HDZ은 연금수혜자당, 소수민족대표, HSLS과 협력, 정부내각을 구성하였으며, HDZ의 당수 Ivo Sanadar가 2003.12월 수상으로 임명되었다.

2003년 12월의 선거를 통해 확정된 크로아티아의 정당별 의석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HDZ(Croatian Democratic Party) - 66석 (국외이주자 5석 포함)  
SDP (Social Democratic Party) - 44석 (Libra 1석, LS 1석, IDS 5석 포함)  
HNS (Croatian People's Party) - 11석 (PGS, SBHS 포함)  
HSS (Croatian Peasant Party) - 10석  
HSP (Croatian Party of Rights) - 8석  
HSLS(Social Liberal Party) /DC(Democratic Centre) - 3석  
HSU (Croatian Party of Pensioners) - 3석  
HDSS : 1석  
소수민족대표 : 7석

HDZ은 90년대의 세르비아-몬테네그로와의 전쟁 당시 극우 민족주의적 정당이었으나, EU가입 및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 EU와 NATO가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웠고,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등 이웃국가와의 협력, 국제정치무대에서의 책임완수 등 보다 타협적인 자세로 선거에 임함으로써 다시 정권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다.

#### <사회동향>

현재 크로아티아는 20%에 육박하는 실업률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사람들로써 심각성이 더하다. 따라서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과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전쟁종료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범죄집단들은 크로아티아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

## 40. 정치사회동향/2005년 1월 크로아티아 대통령 선거

2005년 1월 크로아티아 대통령 선거

2005년 1월 2일 연초에 크로아티아 대통령 선거가 있다. 현재 전체 후보는 13명이라고 크로아티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발표했으며, 대통령 선거 후보는 하기와 같다.

- Djurdja Adlesic (nominated by the Social Liberal Party)
- Miroslav Blazevic (nominated by the Party of Croatian Veterans)
- Ljubo Cesic (independent candidate)
- Mladen Keser (independent candidate)
- Jadranka Kosor (Croatian Democratic Union)
- Doris Kosta (independent candidate)
- Anto Kovacevic (Croatian Christian Democratic Union)
- Slaven Letica (independent candidate)
- Stjepan Mesic (nominated by the Social Democrats, the People's Party, the Peasant Party, the Istrian Democratic Assembly, Libra, the Liberal Party, the Primorje-Gorski Kotar Alliance, and the Party of Democratic Action of Croatia)
- Boris Miksic (independent candidate)
- Ivic Pasalic (Croatian Bloc)
- Tomislav Petrak (Croatian Popular Party)
- Miroslav Rajh (Croatian Youth Party).

현재 대통령 선거에 등록한 후보중 현 대통령인 Stjepan Mesic가 가장 유력하다고 함.

## 41. 정치사회동향/전범 처리 문제

현재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 가입 대상국의 지위를 획득하여 유럽가입을 진행중에 있었으나 이전 내전중 세르비아 병원을 과잉 진압한 전 크로아티아 장군 ‘안테 고토비나’가 유럽연합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 정부는 전 크로아티아 장군 ‘안테 고토비나’의 형적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유럽 연합측에 따르면 전범의 소환없이 크로아티아 EU가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있다.

현 크로아티아 국민은 ‘안테 고토비나’ 장군의 소환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는 해당 전범을 시각차로 내전중 ‘안테 고토비나’ 장군은 애국자로 많은 추종자가 있었다.

지난 2005년 1월 실시한 크로아티아 대통령선거에서는 전임 대통령 Stjepan Mesic가 크로아티아 최대 다시당 HDZ의 Jadranka Kosor와 최종 투표에서 승리, 연임을 하고 있다.

---

## 42. 국가원수

### 국가 원수

대통령: Mr. Stipe Mesic(스티페 메시취)

- 1934년 12.24 크로아티아

동부 ORAHOVICA이라는 작은마을에서 출생

- 자그레브대학교에서 법학부전공

- 대학교시절 학생운동리더였으며 1972년 공산치하시절 민족주의 학생운동에 가담하여 1년간 투옥

- 1991년 구유고연방대통령 역임

- 1992년 크로아티아 국회의장역임

- 1994년 당시 투즈만대통령과 대외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HDZ당을 탈당하여 인민당(Croatian People Party:HNS)을 이끌었으며 2000년 대통령선거시 HNS, LS, HSS, IDS 등 4개 야당의 연합후보로 나와 대통령으로 당선 2.18일 취임

- 2005년 1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재선

- 현재 부인과 두딸 그리고 두명의 외손자가 있음



## 43. 주요인사

2004년 6월 현재 주요인사 (성명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가능)

Ivo Sanader - Prime Minister

Jadranka Kosor - Vice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the Family, Veterans' Affairs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rija Hebrang - Vice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Miomir Žužul - Minister of Foreign Affairs

Ivan Šuker - Minister of Finance

Berislav Rončević - Minister of Defence

Marijan Mlinarić - Minister of the Interior

Branko Vukelić - Minister of the Economy, Labour and Entrepreneurship

Božidar Kalmeta - Minister of the Sea, Tourism, Transport and Development

---

Petar Čobanković –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Water Management

Marina Matulović Dropulić – Minister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hysical Planning and Construction

Kolinda Grabar Kitarović – Minister of European Integration

Božo Biškupić – Minister of Culture

Vesna Škare Ožbolt – Minister of Justice

Dragan Primorac – Minister of Science, Education and Sports

## 44. 주요인사/2005년 주요인사

○. 2005년 정부 주요인사

<해당 인사 이름을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가능>

Ivo Sanader – Prime Minister

Jadranka Kosor – Vice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the Family, Veterans' Affairs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Damir Polančec – Vice Prime Minister

Kolinda Grabar Kitarović –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European Integration

Neven Ljubičić –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Ivan Šuker – Minister of Finance

Berislav Rončević – Minister of Defence

Marijan Mlinarić – Minister of the Interior

Branko Vukelić – Minister of the Economy, Labour and Entrepreneurship

Božidar Kalmeta – Minister of the Sea, Tourism, Transport and Development

Petar Čobanković –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Water Management

Marina Matulović Dropulić – Minister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hysical Planning and Construction

---

Božo Biškupić - Minister of Culture

Vesna Škare Ožbolt - Minister of Justice

Dragan Primorac - Minister of Science, Education and Sports

## 45. 대외관계

독립 이후 '92.5.22일 UN가입 및 '92년 말 현재 EC, 미국 등 세계 100여 국으로부터 독립승인과 함께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94.1.20일 크로아티아와 함께 보스니아내전 등 발칸반도 분규의 양대 세력인 세르비아와 관계정상화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상호 대사관 설치, 주요 도시 영사관 설치 등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육상 도로망의 개통, 철도 재운행등이 이루어졌으나 부채 및 자산의 승계, 동슬라보니아지역 접경지대의 비무장화, 남부 국경선 결정 등의 국경선 문제, 구 유고연방의 자산, 부채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94.3.2일 보스니아 내전종식과 평화안착을 위해 보스니아 내 크로아티아계와 모슬렘계간 연방국가 결성에 합의 한바 있다.

'95.8월 세르비아 반군에게 빼앗긴 失地를 회복한 이후 유고와의 전쟁에 대한 기본입장은 합의 균형을 통한 현상 유지정책을 쓰고 있다.

유고로부터의 독립 전쟁 이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계 및 모슬렘 계와 연방을 결성하는 등 보스니아 지역에 대한 세력확장 및 자국 계 국민보호를 꾀하고 있다.

'98.11월 그 동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과 협상을 벌여왔던 특별 관계협정 및 보스니아 NEUM지역에 대한 자유통행과 PLOCE 항구에 대한 보스니아 측의 이용 등을 보장하는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간의 관계개선은 크게 진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특별관계협정의 부속서류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내의 크로아티아 계로 구성된 제3의 자치구역 설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구 유고연방 부채 및 자산 승계와 관련 여타 유고 권으로부터 독립한 4개국과 공동 보조를 취해 신 유고연방의 유일한 법적 승계자격 취득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구 유고연방과의 경제적 통합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세르비아계가 점령하고 있는 신 연방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역의 세르비아 계(SRPSKA 공화국)와의 정치, 경제적 통합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외교정책은 2000년 WTO가입을 촉발로 해서 EU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

신 유고연방과는 외교관계 수립을 통한 대사관 교환개설('96.12) 외에도 과거입장차이를 보였던 국경통과문제, 이종국적문제 등이 합의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1-2년 내에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아티아는 '98년 들어 보스니아 세르비아 계의 거점 도시인 Banja Luka에도 영사처를 설치하는 등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 계와의 관계도 정상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EU 편입을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이의 전 단계로 CEFTA 가입 및 중 유럽 이니셔티브(CEI)를 통한 NATO 합류 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정착과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지위 및 안보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궁극적으로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0.7월에는 NATO 동맹국가로 지정되었으며 9월에는 WTO에 가입하였다.

'97년 5월 9일 마케도니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97년 12월 슬로베니아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크로아티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연방과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등 3개국이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경우 세르비아계가 주도하고 있는 스프스카 공화국(REPUBLIC OF SRPSKA)과는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에 의하면 외교관계 및 협약 체결은 국가단위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과 크로아티아간 체결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국제기구 대표부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스프스카 공화국 측에 세르비아와 체결되어있는 자유무역협정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 유럽 및 남동유럽 국가 16개국이 참가하는 중 유럽 이니셔티브(Central European Initiative; CEI)에 참여하고 있으며 '98년은 CEI의 의장국으로서 이를 통해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포함되기를 표명한 바 있다.

'00.2월 9년간의 투즈만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들어선 신정 부는 그 동안의 국제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데이튼 평화협정준수, 보스니아 전범처리에 대한 국제사회에의 협조 등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6월에는 크로아티아가 EU가입 대상국의 지위를 획득, 2007년경 EU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92.11월 수교, 북한은 '92.9월 수교, 자그레브에 총영사관이 있었으나 '93년 철수하였다.

---

## 46. 도량형

### 도량형

크로아티아 도량형은 한국과 같은 도량형을 사용함.

<예>

무게 : 그램(g), 킬로그램(kg)

길이 : 센치미터(cm), 미터(m)

## 47. 관공서 관행

### 관공서 관행

FIRST COME, FIRST SERVED가 기본관행이나 간단한 선물 등에 일 처리 속도 혹은 순위가 앞서는 경향이 있다. 민원처리는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순서에 따라 주어진 시간만큼만 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인적 유대관계에 의해 일 처리가 달라지며 따라서 정부 또는 지인을 동원하여 처리하는 경우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선물은 기본적으로 거부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예의적인 것임을 설명할 경우 부담없이 접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 48. 국제공항 및 항구

<Zagreb; 크로아티아의 수도>

○ 정기국제항로: 암스텔담, 베를린, 브러셀, 코펜하겐, 듀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괴테보르그, 이스탄불, 런던, 마드리드, 밀라노, 모스크바, 뮌헨, 파리, 프라하, 로마, 사라예보, 스톡홀름, 스튜트가르트, 비엔나, 쉼리히

. 국내선: 두브로브닉, 풀라, 스플리트, 자다르

. 한국의 경우 비엔나, 쉼리히, 프랑크푸르트, 암스텔담, 파리, 런던

<Dubrovnik; 아드리아해 남쪽의 크로아티아의 가장 유명한 중세관광도시>

○ 정기국제항로: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

<RIJEKA: 크로아티아의 제1항구 도시>

수도 자그레브와 180km 떨어져 있으며 슬로베니아의 류블리야나와의 거리는 120km, 오스트리아 비엔나와의 거리는 490km로 중 유럽 및 동유럽의 해상운송기지 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물류센터로서의 역할을 위해 동 항구에서 자그레브를 거쳐 헝가리 국경에 이르는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97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되었으며 동유럽 및 중 유럽 진출기지로써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정기화물선이 운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장차 운행 예상되며 슬로베니아 Koper 항에 비해 운송요금이 높은 편이다.

리예카 항구의 시설 현대화 및 컨테이너 터미널 신축공사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의 건설에 우리나라 삼성물산(주)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리예카항의 물류센터로서의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PLIT: 크로아티아 아드리아안 해안의 달마티아지역 중심도시>

자그레브에 이어 인구가 2번째로 많은 제2의 도시이다. 우리나라와의 화물 운송에 있어서 크게 중요성이 있는 항구는 아니다.

<PLOCE: 스플리트와 남쪽 두브로브닉 중간지점에 위치한 항구>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되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역을 겨냥한 화물수송의 적격지역이다. 보스니아 운송물품은 주로 플로체 항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98년 하반기에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간 특별관계협정 및 보스니아의 플로체항 이용과 보스니아 Neum지역에 대한 크로아티아 측의 자유 통과를 보장으로 하는 협정이 체결되어 보스니아의 경우 동 항구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OPER: 인근국가 슬로베니아에 위치한 중부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물류 항>

크로아티아로 반입되는 물품의 상당량이 이웃 슬로베니아 코페르항을 경유하고 있는데 한국-코페르항의 해상운송은 약 30-35일이 소요된다. LCL 화물 운송 서비스는 '98년 말에 시작되었으며 LCL 운송기간은 45일 정도임. '98년도 중반기 이후 한국-코페르항간 운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CIF 견적 제공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크로아티아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Rijeka(리예카) 항 기준의 CIF 가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Koper 항을 경유한 운송비가 저렴함을 설득하여 오퍼 제공 시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49. 매스미디어

(TV)

전국적인 TV방송으로는 HRT국영방송(3개 채널보유)과 2000년부터 송출하기 시작한 NOVA TV, 그리고 2004년 5월부터 새로 시작한 RTL방송이 있으며, 그 외 지역민방으로는 소규모 방송국이 여럿 있다.

주요 뉴스 시간대(채널1): 19:30-20:00, 22:15-22:45이다.

도심지역의 경우 케이블 방송 청취가능하나 도심을 벗어난 지역의 경우 케이블방송보다는 위성방송을 이용하는 편이다. 영어뉴스 프로그램은 없으며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프로그램의 경우 자막 처리 방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간지)

현지 8개 일간지가 발행되고 있다.

- VJESNIK, VECERNJI LIST, JUTARNJI LIST (자그레브 지역)
- NOVI LIST, GLAS ISTRE (리예카 및 플라 지역)

일간지의 경우 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정부 홍보적 성격이 강하며 주간지의 경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이다. 일간지의 정부영향으로 인해 미국, EU 등 선진국으로부터 언론 탄압 중지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한 편이다.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주간지도 등장한 바 있으나 불과 1년 후에 폐간되었다.

경제부문만 다루는 경제신문의 발간은 없고 최대 판매부수(24만부)를 자랑하는 Vecernji List에서 조간과 석간으로 매일 두 차례(각 12만부) 발간되며 매주 수요일에는 경제부록 판을 발간한다.

'98.4월초 창간된 JUTARNJI LIST는 완전 민영화된 일간지로서 자유 일간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발간부수는 20만부로 단일 발간부수는 최대이다. (Vecernji List의 경우 조간, 석간 각각 12만부 발행)

대표적 주간지로는 PRIVREDNI VJESNIK, GLOBUS, FERAL TRIBUNE 등이 있다.

---

## 50. 매스미디어/신규 신문사 '24 SATA'

2005년 3월 크로아티아에 신규 일간지 '24SATA' 등록

일간지 홈페이지 : <http://www.24sata.hr>

본 일간지는 정치, 경제 동향보다 연예, 스포츠등에 중점을 맞추어 발간하는 일간지로 이전 12쿠나의 일간지 가격을 파격적인 가격 6쿠나로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51. 현지화제 유머속담/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행원이 두배로 온다

원어: Tko rano rani, dvije sreće grabi

발음: 트코 레노 라니, 드비에 스투체 그라비

이 속담의 뜻은 부지런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비즈니스에서 부지런한 세일즈맨이 많이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52. 현지화제 유머속담/당신이 누으면 다리가 짧다

원어: U lazi su kratke noge

발음: 우 라지 수 크라트께 노게

이 속담은 우리나라의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뜻과 같으며 비즈니스상에서 신용을 중요시하는 뜻을 담고 있는 속담이다.

## 53. 현지화제 유머속담/늑대는 머리색깔을 바꿀 수 있으나 성격은 바꾸지 못한다

원어: Vuk dlaku mijenja ali ćud nikada

발음: 브크 드라쿠 미예냐 알리 쉐드 니카다

이 속담의 뜻은 사람의 천성은 바꾸지 못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같다.

## 54. 현지화폐 유머속담/사과는 나무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원어: Jabuka ne pada daleko od stabla

발음: 야부카 네 파다 달레꼬 오드 스타블라

이 속담의 뜻은 우리나라의 인과응보의 뜻으로 자기가 잘못하면 그 대가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 55. 물가정보

| 항 목        | 기준품목        | 금액(USD)   | 품목 내역                   |
|------------|-------------|-----------|-------------------------|
| 식 품<br>기호품 | 김치찌게        | 판매되지 않음.  | 1인분                     |
|            | 햄버거         | 2.20      | 맥도날드 빅맥 1개              |
|            | 수입담배        | 2.60      |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
| 주 택<br>사무실 |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 1,800.00  | 150m2/월, Semi-furnished |
|            |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 1,400.00  | 150m2/월, Semi-furnished |
|            | 사무실 임차료     | 2,300.00  | 150m2/월                 |
| 교 통<br>차 량 | 자동차 2000cc  | 17,400.00 | 한국산, 오토, 에어컨            |
|            | 시내버스 요금     | 1.10      | 1구간                     |
|            | 택시요금        | 3.80      | 기본요금                    |
|            | 택시요금        | 1.00      | 추가요금, Km당               |
| 통 신<br>전 기 | 공중전화요금      | 0.44      | 시내, 3분                  |
|            | 국제전화(할인)    | 10.00     | 현지-서울, 3분               |
|            | 전기요금        | 0.06      | 가정용, 1kwh               |
|            | 인터넷 사용료     | 7.50      | 모뎀식, 1개월 기본료            |
| 교 육        |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 4,054.00  | 초등 1년간                  |
|            | 외국인 학교 수업료  | 14,000.00 |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
| 레저.오락      | 골프장 그린피     | 55.00     | 비회원, 18홀 1라운드           |
|            | 영화 관람료      | 5.00      |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
| 의 료        | 병원진료비       | 30.00     |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
| 호 텔        | 특급호텔 숙박료    | 143.00    | 할인, 싱글 1박               |
|            | 중급호텔 숙박료    | 80.00     | 할인, 싱글 1박               |
| 임 금        | 사무실비서 월급여   | 600.00    | 초임, 학력불문                |
|            | 사무실직원 월급여   | 825.00    | 대졸, 초임                  |

(2005년 기준)

## 56. 경제발전사

유고내전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시설파괴(전쟁피해액 US\$ 200억)와 70만여 명의 전쟁난민 유입 및 20만 병력의 국방비 지출로 인한 정부 재정 압박 등으로 '90년 이후 '94년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며, 분리 독립 시 경제회생의 기반으로 기대했던 관광산업도 보스니아 내전의 지속으로 성장기 수입(연간 30억불)의 20%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여기에 '92년 말 기준 765.5%에 달하는 하이퍼인플레이와 17.8%에 달하는 실업률로 경제위기가 가중되었다.

'93.10월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하이퍼 인플레이 타개책으로 21%에 달하는 화폐평가절상을 단행하였으나 오히려 수출산업의 대외경쟁력 상실 및 일반소비자의 해외쇼핑 붐을 불러일으켜 경제위기가 가중되었다.

'94.5월 화폐개혁과 동시 신규화폐인 KUNA를 도입하였으며 '95년 중반 이후 확정일로를 치달고 있는 독립 전쟁의 영향으로 '95년 관광산업의 악화와 군수물자 수입 등에 기인한 수입의 증가로 외환지출이 확대되고 수출경기 역시 불투명한 전망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94.5월 화폐개혁 이후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은 성공을 거두어 '98년까지 연간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 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및 효율적인 가격통제 정책과 KUNA화의 인위적인 강세 유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95년 말 독립 전쟁 종료 후 산업생산성이 차츰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 체제 개편과 관련 서비스업 및 무역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외무역 부문에 있어서는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특히 시설 재 및 기간 재, 일반 소비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97년도의 GDP는 '90년도의 78% 수준이며 실질경제성장률은 6.8%로 집계되는 등 독립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98년 2.7%, '99년 -0.9%로 다시 후퇴하였으며 이는 코소보 내전이 경제침체를 가져온 데 기인한다. 그러나 90년 내내 집권하였던 투즈만 전대통령의 사망 이후 2000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들어선 민주정권은 정치, 경제적 안정을 가져왔고, 2000년 2.9%, 2001년 3.8%, 2002년 5.2%, 2003년 4.6%로 다시 플러스 성장을 시작하였으며 소매물가도 2000년 7.4%, 2001년 2.6%, 2002년 2.3%, 2003년 1.5%(자료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Data)로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2003년 자료 추가 요망) 그러나 전쟁 이후 후후 만만한 경기회,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등과 관련된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2002년에 실업률이 22%(2003년 자료 추가요망) 2003년도 실업률 19.5%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전쟁 등으로 그 동안 자제되었던 국민들의 욕구가 경제회복과 정부 공무원들의 임금인상 등에 자극 받아 표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인가가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다.

## 57. 경제정책

| 주요 경제 정책                                      |
|---|
| 가. 수출 지향적 경제 무역정책 추진                          |
| 나. 국제규범에 맞는 수입자유화의 점진적 추진                     |
| 다. WTO 규범에 맞는 다자간 무역지지                        |
| 라. 2000.9 WTO 회원 가입                           |
| 마. EU, EFTA, CEFTA와의 협력관계 긴밀화를 통한 범유럽권과의 통상강화 |
| 바. 1997.5.9 마케도니아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2000년부터 무관세 수입  |
| 사. 1998.1.1 슬로베니아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
| 아. 2000.9 WTO가입                               |
| 자. 2003.3 EU회원국 가입신청                          |
| 차. 2004.6 EU가입 대상국 선정                         |

'00 7.17 제네바에서 열린 WTO총회에서 WTO가입을 최종 승인하였고 9월 크로아티아 국회의 비준에 따라 독립후 지난 7년간의 숙원이었던 WTO에 가입하였다.

'03. 3 EU 정식회원국 가입신청서를 EU의장국인 그리스에 제출하였으며, EU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현재 EU가입이 보류중인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2007년 EU가입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각종 제도를 EU기준에 맞추어 개정 또는 제정하고 있다.

2004년 6월 크로아티아는 EU가입 대상국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더욱 각종 제도를 EU 기준에 맞추어 개정 또는 제정하고 있다.

## 58. 금융통화제도

크로아티아에는 총 60여개정도의 은행이 있으며 이는 모두 연방 또는 주법에 의해 허가 받은 상업은행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규모 은행이고 이중 믿을만한 거래은행은 Zagrebacka Banka, Privredna Banka, Rijecka Banka 등을 꼽을 수 있다. 아직 은행서비스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지 않아 은행거래에 불편한 점이 많은 편이다. 또한 대출금리는 17~20%이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 매우 경색되어 있어 기업이나 일반인이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http://www.hnb.hr/eindex.htm>

크로아티아 주식시장에는 현재 불과 43개 기업만이 상장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의 1960년대 주식시장과 흡사할 정도로 미발달 상태이다. 크로아티아의 주가지수는 CROBEX이며 2004년 12월 27일 현재 주가지수는 1513.39이다.(Index의 기준일은 1997년 7월1일이며 기준주가는 1000임)

---

크로아티아 주식시장은 1918년 설립되었으나 1945년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폐지되었다가 1991년 25개의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다시 모여 증권거래소를 탄생시켰다.

크로아티아 증권거래소 <http://www.zse.hr/>

## 59. 주요산업동향/관광산업

크로아티아에서 관광산업은 중요한 산업중의 하나이다. 2002년 기준 관광으로 인한 외환수입액은 38억불에 이른다. (2003년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관광은 주로 여름기간에 집중되며 서쪽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해안선과 섬들, 맑은 물, 그리고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가 주요한 관광유인포인트다. 관광산업이 GDP에서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불과하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10%), 무역(11.7%)부문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2000년도의 예상 관광수입은 약 35억불로 전쟁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코소보사태 영향으로 줄어든 '99년의 경우보다 75%가 증가한 수준이다. 크로아티아는 해외송금과 관광수입이 외화의 가장 큰 소득원으로 관광수입이 연간 수출액과 비슷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2000년대 후반에는 관광수입 미\$90억을 목표로 동 부문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총 연장('98)길이는 2,726km(전철: 36.1%), 단선 2,478km, 복선 248km으로 주요도시 철도로 연결되어 있다. 총 연장('98) 길이는 27,840km(고속도로 330km)으로 가장 중요한 운송망이다. 현재 고속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관광객의 이동과 아드리아 해안을 이용한 물류능력 확충에 중점적인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선박보유대수('98)는 239척(승객 85, 화물 154)이며 화물운송력('98)은 3,336천 DWT이다. 국제공항이 8개로써 항공로는 ZAGREB-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위스, 영국, 프랑스 등이다.

'2002년 크로아티아 관광수입은 약 38억불은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수치이며 전쟁 전 최고수준인 1990년의 86% 수준에 달하는 수준이다. 크로아티아의 관광수입은 1990년 44억불을 정점으로 1991년부터 시작된 전쟁기간 중 급감하기 시작하였고 종전후인 1997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1999년 코소보사태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관광수입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코소보 사태가 진정되고, 크로아티아 정부도 민주정부로 바뀌는 등 지역안정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손꼽을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해외송금과 관광수입이 외화의 가장 큰 소득원으로 관광수입이 전체 연간 수출액과 비슷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크로아티아의 관광산업동향]

| 구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외국관광객의<br>크로아티아 내<br>숙박일수(1,000 일) | 26,564 | 38,183 | 43,405 | 44,692 | 46,635 |
| 외국관광객 지출액<br>(US\$백만)              | 2,493  | 2,758  | 3,335  | 3,811  | n/a    |
| 외국인수(천명)                           | 21,349 | 33,307 | 38,384 | 39,711 | 41,323 |

자료출처: 크로아티아 통계청 및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 60. 주요산업동향/섬유산업

○ 크로아티아는 인구가 450만에 불과, 섬유시장 규모가 협소하며 지난 '91년 구 유고국가로부터 독립선언 후 구유고(세르비아)와의 5~6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산업이 파괴되고 침체된 상태이다.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섬유산업 제조공장이 720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30~40%정도만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현 정부에서는 과거의 공산시절 국영기업으로 운영되어 오던 대부분 기업의 매각 등 민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이 일정부분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어, 경영효율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독립 이후 지난 10년간 크로아티아를 독재 통치하여 오던 투즈만 정권이 무너지고 2000.2월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면서 WTO가입, EU와의 SAA체결 등 외국과의 경제교역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시장전망은 나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90% 정도가 임 가공방식(LOHN)으로 독일, 이태리 등 선진국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봉제하여 재수출하는 형태로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연간 섬유제품 시장규모는 예측이 어려운 정도로 변동폭이 크다.

<섬유제품 연간수출액>

(단위: US\$천)

| 구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수입 | 442,889 | 369,556 | 522,257 | 612,343 | 615,883 |
| 수출 | 642,568 | 608,060 | 548,811 | 575,043 | 592,953 |

Sourc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61. 주요산업동향/제조업

제조업(건설부문 제외)은 1989년에서 1992년간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한 후 구유고지역의 판매망을 잃으면서 무려 46%가 감소하였다. 그 후 GDP는 1994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나 제조업 분야는 2년 뒤인 1996년에 처음으로 3.1% 플러스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코소보 전쟁이 시작되자 다시 주춤하여 1999년에는 1.4%가 감소하였으나 코소보 내전이 종료되는 시점인 1999년 4분기부터 서서히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여 2000년 1.7%, 2001년 6.0%, 2002년 5.4%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산업인 조선업은 1998년 20.6%, 1999년 12.6%가 각각 성장하여 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크로아티아는 섬유산업, 신발, 가죽제조산업이 노동력 고용측면에서 중요하며, 그 외 조선, 금속, 나무, 종이제조산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제조업 별 생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산업분야별 생산현황>

(단위: 별도 표기가 없으면 1,000 톤)

| 구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Petrol   | 1,117 | 1,212 | 1,333 | 1,250 | 1,184 |
| Crude steel  | 105   | 77    | 71    | 58    | 34    |
| Cast iron & semi-finished products                   | 33    | 30    | 29    | 35    | 36    |
| Tankers (순톤)   | 209   | 203   | 144   | 225   | 368   |
| Cargo ships (순톤)                                     | 53    | 131   | 147   | 224   | 126   |
| Telephone & telegraph exchanges (1000 명)             | 1,323 | 703   | 799   | 496   | 853   |
| Compound fertilizers                                 | 458   | 459   | 492   | 407   | 469   |
| Commercial medicine                                  | 1.3   | 1.2   | 1.4   | 1.3   | 1.5   |
| Electrical motors, generators & Transformer (1000 대) | 114   | 109   | 99    | 86    | 80    |
| Cement   | 2,294 | 2,712 | 2,852 | 3,246 | 3,378 |

|   |       |       |       |       |       |
|---|-------|-------|-------|-------|-------|
| Paper & cardboard & paper & cardboard packaging | 314   | 348   | 405   | 418   | 438   |
| Ready-to-wear clothing (백만 sq meters)           | 26.6  | 24.7  | 24.4  | 24.5  | 20    |
| Footwear (백만 pairs)                             | 9.1   | 8     | 7.8   | 9.5   | 8.4   |
| Livestock feed                                  | 522   | 472   | 484   | 524   | 524   |
| Beer (1000 hl)                                  | 3,759 | 3,663 | 3,847 | 3,799 | 3,624 |
| 총<br>산업생산증가율 (%,<br>전년대비)                       | 3.7   | -1.4  | 1.7   | 6.0   | 5.4   |

자료원: 크로아티아 통계연감 (2002년 자료가 최신자료임)

## 62. 주요산업동향/서비스 산업

크로아티아의 산업구조 특징중의 하나는 선진국형 구조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2002년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정부부문 포함) GDP의 65.6%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EU국가들에 비해 공공 비중이 큰 것으로 공공 및 방위분야가 GDP의 21.4%(2002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산업구조는 과거 구 유고시절에 강세를 보였던 기초금속, 섬유, 신발, 음료 및 식품 등의 전통산업이 전쟁으로 기존의 시장을 잃으면서 쇠락함에 따라 기형화된 구조로 변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o 주요산업별 GDP 구성비는 “통계” 부분 참고.

## 63. 주요산업동향/유통산업

현 크로아티아에는 유통시장에서 통신판매(홈쇼핑, 인터넷 쇼핑, 텔레쇼핑)시장은 아직 활성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며, 재래시장의 경우 제품의 다양성이나 양,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그러한 이유로 크로아티아 유통시장은 하이퍼 마켓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업체들이 현재 영업중이다. 현재 영업중인 업체들은 GETRO, MERKATOR, KONZUM 그리고 KING CROSS등이 있으며, 그 규모와 구매부서 등은 하기와 같다.

<하이퍼 마켓 정보>

가. GETRO (국내 업체)

GETRO라는 하이퍼 마켓은 크로아티아 국내 유통업체로서 9년 전(1989년 11월) 설립하여 15개의 대형 매장과 3개의 자매 유통업체를 설립 급 속도록 성장을 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이다.

본 유통업체에 거래처에 70%는 크로아티아의 현지 업체로서 현재 공급 거래처는 500여 업체 정도며, 2004년 연간 매출 예상액이 한화로 5,000여억원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취급제품은 식료품부터 전자제품, 자동차 제품, 생활 소비재등을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포스 시스템이며, 매장 내 주차장 및 편의 시설 또한 구비하고 있다.

GETRO 연락처

홈페이지: <http://www.getro.com/contact.htm>

전화번호: +385 800 8808

이메일: [info@getro.hr](mailto:info@getro.hr)

나. MERCATOR

대형 유통업체 MERCATOR는 크로아티아의 이웃나라 슬로베니아 업체로 1949년에 슬로베니아에서 유통업을 시작하여 지금의 대형 업체로 성장 구 유고 연방지역(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리고 세르비아-몬테네그로)전체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이다. 본 유통업체의 가장 큰 장점은 제품을 납품 시 구유고 연방지역에 동시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까지 모두 약 2,000만 명의 시장을 공략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MERCATOR 연락처

주소: Hrvatske bratske zajednice 1, 10410 Velika Gorica

전화번호: +385 1 6221 511

홈페이지: [www.mercator.hr](http://www.mercator.hr)

다. KONZUM

대형 유통업체 KONZUM은 국영업체로 하이퍼 마켓을 운영함과 동시에 도시 곳곳에 많은 수의 소매점포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전체 근무자수는 8,000명에 달하며, 제품 공급업체도 500여 개 업체에 달한다. 기타 다른 대형 유통업체와 비교하여 업자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본 유통업체의 인프라는 크로아티아 내에서 최대이다.

---

대형매장 중에서는 타 유통업체와 비슷한 품목을 구비하고 있으며, 주택가 인근 소매 점포에서는 식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며, 한 지역의 몇 개의 소매점포 중에 중형급의 점포를 운영, 고객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마케팅을 펼쳐 타 대형 유통업체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 KONZUM 연락처

무역부서

주소: M. Cavica 1a 10 000 Zagreb, Croatia

전화번호: 385 1 248 2302

팩스번호: 385 1 248 2349

이메일: [trading@konzum.hr](mailto:trading@konzum.hr)

#### 라. KING CROSS

KING CROSS 유통업체는 이탈리아 업체로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등에 유통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유통업체이다. 현재 크로아티아에서도 그 규모가 최대(150,000m<sup>2</sup>, 주차장 2,000대)이며, 위치는 크로아티아 수도 서쪽 Jankomir에 위치하고 있다. 본 하이퍼 마켓에는 90여 개의 일반 매장(의류, 전자, 안경, 생활잡화)등이 할인 매장과 함께 있으며, 원 스톱 쇼핑이 가능한 곳이다.

KING CROSS의 마케팅 전략은 일단 고속도로에 위치 자그레브와 인근 위성도시 자프르슈치, 사모보르까지 모두 포함하는 규모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보통 1주일에 한번, 2주에 한번씩 방문하여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본 매장에 구비한 제품으로는 생활잡화, 전자제품, 식료품 등 규모에 맞게 다양한 제품이 구비되어 있다. 매장을 이용하는데 특별한 규제(회원제)가 없으며,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이다.

#### KING CROSS 연락처 (King Cross Group S.r.l.)

주소: Via F. Lippi, 13 25134 Brescia (Italy)

전화번호: 0302311557

팩스: 0302311558

이메일: [kingcross@kingcross.com](mailto:kingcross@kingcross.com)

크로아티아의 대형 유통업체 이외에 중소형 체인스토어 업체(dm, prehlana, billa등)들이 다수 있으나, 대형 매장의 제품 다양성과 가격 경쟁력으로 인하여 대형 매장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

## 64.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의 경우 산업재산법에 의해 보호되며 산업재산법에서 보호대상으로 명시한 지적 소유권은 발명권, 상표권, 산업디자인 등이다. 한편 무역법에서는 불공정 경쟁에 대한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상표법, 특허법, 의장등록권 등 지적 소유권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도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보호장치는 되어 있으나 강하게 단속하는 상황은 아니다.

크로아티아가 가입한 국제 지적소유권 관련 협약으로는 세계 지적소유권기구 (WIPO) 설립 파리협약, 국제 상표권 등록 관련 마드리드협약, 국제산업디자인 분류 설립 로카르노 협약, 저작 및 예술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마크등록을 위한 국제상품 서비스 분류 니스협약 등 6개가 있다.

산업재산권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는 STATE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가 있으며 '93년도에 설립되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저작권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출판, 창작 활동 등에 의해 획득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자의 사후 50년까지이며 저작권자가 법인인 경우 첫 출판 또는 프로그램 제작으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저작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종 사후 5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응용예술작품, 사진 또는 산업디자인권의 보호는 작품의 출시로부터 25년간 보호된다. 다만 저작권의 MORAL RIGHTS는 계속 보호된다.

산업재산법상 표시, 그림, 도안, 글자, 표현, 코드, 또는 이들의 조합, 색깔의 조합, 3차원 창작물, 글자의 조합(숫자의 조합은 제외) 등이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표는 1)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2)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상표등록을 위한 두가지 충족 요건) 그러나 해당 상표가 특정 국가, 특정 국제기관의 문장, 색깔을 사용할 경우 해당국가의 정부, 특정 국제기관 등의 승인을 받은 상표에 한해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상표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상표를 획득할 수 있는 자는 자국 및 외국 자연인, 법인 모두가 되며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크로아티아 특허변호사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상표가 등록되면 이 내용은 지적소유권 담당 기관 관보에 게재된다.

상표의 유효기간은 등록신청부터 10년이나 이후에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상표는 크로아티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상표가 시장에서 5년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누구든지 해당 상표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서면 계약에 의거 상표의 사용 허가 또는 권리 양도를 제한없이 할수 있다.

---

산업재산법상 의장권(산업디자인권)은 산업제품의 2-3차원상 디자인에 대해 부여된다. 이 경우 의장은 새로운 것 즉 종전의 디자인에 비해 실질적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의장권의 유효기간은 신청으로부터 10년이며 의장권의 취소에 관한 요건 및 절차는 상표권과 동일하다. 다만 의장권의 경우 반드시 크로아티아에서 사용되어야 할 의무는 없다

산업재산법에 의해 특허가 보호되며 법령에 정한 특허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내외국인 자연인 및 법인은 등록된 크로아티아 특허번호사를 통해 특허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용인의 근무 중 또는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의 소유권은 고용주에게 있으며 피고용인의 경우 계약에 의거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등록 대상은 새롭고, 창의적이고, 기술적으로 산업화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과학이론, 수학적 공식,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지적활동과 관련된 이론 등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특허등록절차는 일단 특허등록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명내용에 대한 기술, 특허요청 내용, 발명내용의 요약서 등의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허등록 당국에서는 관보상 접수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공표하게 되며 공표된 후 6개월 이내에 발명권자 또는 제3자가 특허등록 당국에 해당내용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신청자가 관보 게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신청내용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허등록 신청은 무효화 된다. 특허 등록 당국의 조사결과 특허로서 인정받는 경우 그 내용은 특허등록당국 관보에 게재되고 관보게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한 특허로서 보호받게 된다.

특허의 유효기간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20년간이며 제3자에게 사용 허가 및 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그 계약내용을 특허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 65. 소비자보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 법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 66. 수입관리제도

수입자유품목(LB)은 수입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전체품목의 83% 해당하며 국별수입제한품목 (LBS)은 해당국 제품에 대한 수입시 사전정부 혹은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전체품목의 3%가 이에 해당한다.

---

쿼터수입제한품목(K)은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쿼터제로 수입을 규제하는 품목으로 수입시 사전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4% 품목이 이에 해당하며, 이에 속하는 품목으로는 살아있는 가금류 및 수산물, 우유, 크림, 감자, 씨앗, 와인, 소금, 포틀란트시멘트, HETEROCYCLIC COMPOUNDS, 종이류, 직물류 및 SYNTHETIC FILAMENT YARN, 철사, 비철금속 등이다.

수입허가품목(D)은 사전 정부승인 필요 품목으로 무기류, 마약류 등 1% 품목이 해당한다.

영사인증제도와 선적 전 검사제도는 해당사항이 없다.

## 67. 관세제도

수입관세율은 품목별로 최저 0% 최고 25%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설정되어 있다.

- 원자재 및 원료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관세율표상 "SI"로 표시
- 제품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되는 부분품의 수입 관세율은 5%
- 크로아티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의 수입 관세율은 10-15%
- 크로아티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완제품의 수입 관세율은 20-25%

관세율은 증가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산물 및 식품, 일부공산품(HS Code 3502.111, 3502.191)의 경우 추가적인 특별세금이 종량세로 부과되며 관세율표상"P"로 표시된다.

크로아티아 관세청 사이트

<http://www.carina.hr/ACTInternet/MainFrame/AplMainFrame.aspx>

(2005년 6월 현재 현지어 및 HS-code로 관세확인 가능)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으로부터 수입시에는 양국간 경제협력협정에 의거 관세없이 수입 행정세만 1%가 부과되었으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1개국가로 인정하는 국제기구의 압력에 따라 '99년부터 정상적인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관세부과를 위한 수입업자의 필요서류는 관세 신고서, 수입품목 목록표, 송장,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 (C/O), 수입허가서 (해당품목) 등이다.

통관 소요일수는 통상 1-3일정도가 소요된다.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 외국인이 크로아티아 투자를 목적으로 반입한 장비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면 관세

---

부과가 면제된다. (관보 번호 Narodne novine N.19/95)

- 외국인의 투자기간이 5년 미만이 아닌 경우
- 외국인의 투자가 총투자의 최소 20%인 경우
- 반입한 장비가 투자업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 차량의 경우 설비로 간주되며 이 경우 차량은 신차량이어야 하며 차량가격이 총투자액의 25% 이하인 경우에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 도박, 게임을 위한 장비
- 7년 이상 경과된 중고품
- 렌트에 사용될 차량

- 관세면제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크로아티아내 투자업체(신청업체)에 관한 입증서류
- 장비 명세서(품목명, 품목코드, 단가, 수량, 금액)
- 투자업체(신청업체)에 관한 등록서류, 신청자격 조건 명시 서류
- 외국인투자 관련 계약서(주식회사의 경우 정관 등)
- 외국인에 관한 증명서류(개인의 경우 여권, 법인의 경우 등록서류)
- 외국투자자의 경제범죄 전과 없음 입증 서류
- 신청수수료 납입증명서(수수료 : HRK620.00)

크로아티아 정부는 WTO 가입연도인 2000.7.1부터 전품목에 걸친 관세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품목을 제외한 전반적인 산업품목의 평균관세율이 10%에서 5%로 줄어들었으며, 아직도 현 관세율이 다른 EU국가의 3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 향후에도 추가적인 관세인하 조치가 예상된다.

한편 크로아티아 정부는 사치품 및 고가품의 수입에 대해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제정하여 '99년 1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별 소비세 부과대상은 보석류, 시계류, 모피 의류 가죽신발, 폭죽 및 무기류 등이며 동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 부과전 가격의 30%이다.

## 68. 유통구조

크로아티아 유통산업은 2001년도 기준으로 GDP의 10%정도를 창출하고 있고, 전체 등록기업 수의 45%, 전체 취업인구의 15.9%(165천명)가 유통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2년 중에는 유통산업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액은 미화기준 약 215억불(도매 113억불, 소매 94억불, 기타)로 2001년 대비 18.5%가 상승하여, 유통산업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의 대형할인매장 진출추세 및 크로아티아 자본에 의한 대형매장 설립 추세에 기인하다.

---

그러나 아직 크로아티아는 수입상이 도매상 및 소매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도매업자(수입업자)는 금융비용에 따라 20-30%, 소매업자는 30-40%선의 유통마진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 도매업자가 수입을 대행하고 있으며 전문 수입업체는 자기자본으로 수입을 대행한다. 입상의 경우 대부분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독점 에이전트라 할지라도 대부분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이 수도인 자그레브에 약 20여 개 소재하고 있고 소매상은 품목별로 체인화되어 있는 형태가 많으며 이외에도 소형 소매상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 69. 국제입찰제도

크로아티아 정부는 새로운 구매입찰법을 제정, 98년 3월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하면 최소한 HRK200,000이상의 구매시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HRK200,000부터 HRK400,000 구매입찰에는 3명 이상의 응찰자가 있어야만 한다.

또한 HRK400,000부터 HRK6백만까지는 국내신문을 통한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HRK6백만을 초과하는 구매시는 공개 입찰시 국제신문에 외국어로 입찰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현재 환율 : 약 HRK 1 : KRW 170원 (2005년 6월 말기준)

동법의 적용을 받는 부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행정부서,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기관, 단체 등으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민영화되지 않는 기업이 많은 관계로 이러한 공개입찰을 통한 크로아티아 진출전략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주재국기업의 경우 외국기업 입찰보다 8%정도 입찰가격에서 유리하며 외국인에게 낙찰을 주어지는 경우에도 자국기업에게 하청을 주어야 하는 등 외국기업에 다소 불리한 입찰이 많다.

## 70. 외환관리제도

외환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는 재무부, 중앙은행, 외국환 공인은행 등이 담당하며 외환 집중 관리 및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환율은 전날 상업은행간의 외환거래 가중 평균방식으로 매일 중앙은행에서 산출하여 고시한다.

기업의 외환구좌 보유는 자유화되어 있으며 외환구좌에서 외환을 인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외환구좌에서 현지화 현금을 인출하는 데는 일정한도를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기업이 수입 L/C 개설경우 현지화 혹은 외화구좌에서 100%의 담보를 설정하여야 하였으나 현재는 다소 완화되어 기업 신용에 따라 일정비율의 담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

내국인의 경우 현지화를 외국환으로 환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업간의 거래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간 거래대금의 결제는 반드시 은행계좌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근거서류에 의한 외환송금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개인의 외환소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었으나 '98년부터 미화 6,350달러 이상의 외환을 반입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의 해외투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나 법인의 경우 해외투자 제한은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 개인의 해외투자는 아직도 제한을 받고 있다.

## 71.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 <시장규모>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크로아티아의 연간 수입시장규모는 150억불 수준이며 95년 종전 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이중 약 1.1%수준인 1억6천5백만 불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종전 이후 인프라건설 및 민간기업의 투자수요 증대에 따라 설비 류의 수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시장특성>

크로아티아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으로 전체 수입의 85% 정도가 서유럽, 및 동유럽에서 들어오고 있다. 독립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및 실업을 증가, 실질소득 격감 등으로 구매력이 크게 위축되어 있어 저가제품위주의 시장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구매성향은 유명 브랜드 선호 경향이 강하여 저가품과 고가품의 양극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는 섬유류의 경우 이태리산, 내구 소비재는 독일산, 일부 생필품은 오스트리아산, 식품 류의 경우 헝가리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인근지역에서 여행구매가 계속 늘어나자 식품 등 외국에서의 구매. 반입에 대해 수량제한 조치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1인당 구매한도를 100불에서 50불로 삭감)

유통구조는 과거 사회주의체제 영향으로 공장이나 수입상으로부터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매상으로 유통되는 채널을 보이고 있으며 높은 관세율 및 소매상 마진으로 인해 시급한 생필품이나 식품 이외에는 인근지역에서 여행 구매 습성이 강하며 한편으로 세관과 결탁하여 밀반입 판매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규모가 작아 소량 주문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구매습관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는 주문이 많지 않으며 가능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단순 수출업체와

---

의 거래는 기피하고 제조업체와 의 직접 거래를 모색한다. (비즈니스 상담 시 단순 수출업체인가 아니면 제조업체인가를 대부분 사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최근 정부에서는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을 단행하고 있는 등 불법거래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어 향후 무역 관행은 다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내구성 소비재를 제외한 소품목인 경우 전 지역에 유통망을 지닌 대형 수입상이 없으며 따라서 수입상의 소량주문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상권은 자그레브를 중심으로 한 내륙지방과 아드리아해안의 달마시아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으나 자그레브를 통한 유통규모가 크며 현재 도매점을 중심으로 한 매장 확장, 백화점 신축 등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유통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72.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현지인들은 문화적 자존심이 상당히 높아 동유럽이라 부르는 것은 싫어하며 중앙유럽(Central)이라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발칸반도가 종교적분쟁(무슬림, 그리스정교, 카톨릭)으로 인해 분할되었다는 점을 인식, 가급적 종교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연중 최대 대목은 크리스마스전인 11.15-12.15 기간이며 이 기간중의 판매를 위해 11월 초순에는 물품이 현지에 공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의 거래시에는 운송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9월말이나 10월초 선적이 이루어져야 하나 8월 말까지 대부분의 업체가 휴가를 가는 관계로 하반기 물품 구매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외 신학기 시작 전인 2월중순, 하계 휴가 시작전인 6월, 부활절 전인 4월초 등이 주요 구매 시즌으로 우리나라와의 거래는 이보다 2개월전에 이루어져야 적기가 된다. 크리스마스과 부활절 시즌엔 선물용품, 하계 휴가전엔 레저·오락용품, 신학기 시작전엔 학용품 등이 주 구매품목이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시장규모가 적어 소량주문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구매습관으로 인해 우리나라기업의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문이 많지 않다.

정부 조달/구매 프로젝트 발주시는 내국인의 경우 가격의 15%가격(서비스 8%)을 할인하여 주며 외국기업이 수주하더라도 70-80%정도의 내국인 하청을 의무화하는 등 내외국간의 차별이 심하다.

현지 에이전트 설정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아직 사회주의 체제하의 영향이 남아있어 파트너의 비즈니스 열의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 장기적인 신용상태를 점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현지 에이전트 선정후에도 마케팅 활동에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 S 전자의 경우 매출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마케팅 활동비를 별도지원함으로써 크게 성공한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

현지 에이전트는 가능한 1개사를 선정하며 복수의 에이전트 선정시에는 한 에이전트의 마케팅활동이 다른 에이전트의 매출과 연계될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지 시장규모의 협소성으로 인해 단일 품목보다는 품목 전반에 걸쳐 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일람불 신용장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면 거래에 유리하다. 즉 유산스 거래방식이라던지 또는 T/T, 은행보증서제공방식(일종의 스탠바이 신용장)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현지인의 경우 스포츠행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위한 방법으로는 이들 대회에서 후원자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축구,테니스,핸드볼,수구,농구,태권도)

방문자가 있는 경우 일어서서 응대하고 관심이 있는 경우 테이블로 안내하여 상담한다. 상품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거만하게 대하는 것을 금한다.

크로아티아는 공급자 시장으로 아직 경쟁체제가 갖추어 지지 않아 수입상의 경우 대단히 거만한 경우가 많아 현지 출장자인 경우에도 호텔에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사무실로 오라는 경우가 많다.

크로아티아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농구등에 대한 대화를 시작으로 상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오후 2시 넘어서는 가능한 한 상담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상담중 커피 및 차 등 음료수가 제공되면 즐겁게 받아들여야 하며(크로아티안은 하루 평균 4-5회의 커피를 마심) 점심식사나 저녁초대를 받으면 흔쾌히 받아들이고 또한 초대도 해야한다.

## 73.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 <투자매력도>

발칸반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동-서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과 아드리아 해안을 중심으로 천연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장기적으로는 투자매력은 있다고 판단된다.

제도적으로는 외국인투자자는 단독투자,지분투자,계약에 의한 합작투자 등 그 형태에 관계없이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법인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이익배당금 또는 기업 청산 후 투자자본 과실송금은 100%보장된다. 외국인의 신규투자 시 가동 후 1년은 100%, 2년 후에는 50%, 3년 후에는 25%의 법인소득세가 면제된다.

---

거주환경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일본과 버금가는 동양국민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치안이 좋아 거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한편 2000년에 인근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마케도니아와 함께 EU와 SAA(Stabilization & Associ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2004년 6월에 EU 회원 가입대상국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향후 EU가입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혁이 예상되므로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정도>

'96.6.6일 크 정부는 외국인 투자정책에 관한 선언서를 채택하여 독립이후 5년간의 경제성장과 경제정책,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투자정책을 밝혔다. 이 선언서에 근거하여 투자진흥청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애로점 해결 등을 수행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헌법 제48조, 49조 및 50조에서 소유권에 대한 보장, 시장경제체제의 보장, 투자로 취득한 권리의 법상 축소금지, 시장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등을 명시하여 외국인 투자를 보장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투자법의 기본골격은 '89년 구유고연방 체제 하에서 시장경제원리 전면도입과 함께 개정된 "신외국인 투자법"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 크로아티아 독립이후 제정된 "상업회사법"이 추가로 적용되고 있다. '96년도에 발효된 회사법은 그동안의 분산된 여러 법규를 통합하여 체계화하였으며 현재는 동 법에 의해 모든 것이 규정되고 있다.

####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독립전쟁에 따른 불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안정화문제 등으로 단기적으로 컨트리 리스크가 높은 단점이 있다. 또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제조업 분야가 취약하여 다양한 부품 및 부분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인근국가로부터 조달을 해야하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인구 약 470만의 협소한 시장규모로 내수시장의 한계가 있으며 구유고연방의 일원이자 '92년까지 크로아티아의 최대 교역국이던 슬로베니아와 정상관세 교역으로 대외수출이 급감하여 대외여건도 좋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임금, 전력, 용수 등의 부대비용가격도 높은 편이다.

## 74. 투자유치정책

외국인 투자 유치는 크로아티아 정부가 고용촉진, 투자재원의 조달 등을 위해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은 크게 제도적 측면에서의 투자 보장과 공기업의 민영화, 자유지대 신설을 통한 특혜제도 부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제도적 측면에서의 투자 보장은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정치적인 위험도를 제거한다는 96년 6월 6일에 채택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크로아티아 정부의 선언서가 있으며 기타헌법 및 법률을 국영화 등에 대한 위험 최소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투자촉진을 위한 자유(무역)지대는 크로아티아 전체에 7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유지대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현행 35%)를 50% 할인하여 적용하며 HRK1백만 이상의 인프라투자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민영화기금;CPF, 또는 연금;Pension Fund)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을 공개입찰 또는 개별 업체간 양허에 의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6월의 크 정부 외국인투자자유치선언서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일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크로아티아투자진흥청(CIPA)가 설립되어 있다. 동 기관은 외국인투자 대상으로 적합한 프로젝트의 발굴, 발굴한 프로젝트의 유망 외국기업을 대상으로한 홍보, 외국인 투자절차와 관련된 각 정부기관 업무처리의 지원,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의 촉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동 기관에서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대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투자자와 관련 각 정부부처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애로점이 있는 경우 동 기관에 의뢰하면 애로사항을 처리해준다.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대부분 각 정부 중앙부처에서 파견되어 있다.

(외국인투자 법적근거)

'96.6.6일 크 정부는 외국인 투자정책에 관한 선언서를 채택하여 독립이후 5년간의 경제성장과 경제정책,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투자정책을 밝혔다. 이 선언서에 근거하여 투자진흥청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애로점 해결 등을 수행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헌법 제48조, 49조 및 50조에서 소유권에 대한 보장, 시장경제체제의 보장, 투자로 취득한 권리의 법상 축소금지, 시장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등을 명시하여 외국인 투자를 보장한다.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투자법의 기본골격은 '89년 구유고연방 체제하에서 시장경제원리 전면 도입과 함께 개정된 "신외국인 투자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여기에 크로아티아 독립이후 제정된 "상업회사법"이 추가로 적용되고 있다. '96년도에 발효된 회사법은 그동안의 분산된 여러 법규를 통합하여 체계화하였으며 현재는 동 법에 의해 모든 것이 규정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의 기본골격)

외국인 투자자 정의 : 외국인 투자자라함은 주거지에 관계없이 외국의 자연인과 법인이어야 한다. 단, 외국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크로아티아인도 포함한다.

---

외국인 투자분야 : 투자형태에 관계없이 산업전분야에 걸쳐 외국인의 투자 가능하다. 단 군수산업, 통신, 운송, 언론 등의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제한된다.

-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의해 아래의 투자보장을 보호받는다.

- . 합작투자기업내 경영 참여권
- . 지분에 따른 이익배당권
- . 기업청산후의 자산가치 배당권
- . 이익배당금 100% 과실송금
- . 기업청산후 투자지분 100% 과실송금

상기의 외국인 투자보장은 여타 다른법이나 규정에 의해 침해될 수 없으며 외국인 투자법 개정시에도 개정법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계약시점에 적용된 법보다 호혜적인 조항은 적용될 수 있으나 불리한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헌법상 외국인의 자본투자에 의해 획득한 권리는 법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세제외 투자우대 조치)

수출진흥 인센티브 제도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완제품 수출후 관세 및 수입행정세를 환급해 주며, 고용촉진 인센티브제도로 신규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정된 고용촉진 장려금에서 정부 보조 및 장기처리 대출을 지원해 준다.

## 75. 외국인투자제한

투자금액 규제조항으로 최저 설립자본은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20,000쿠나,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는 200,000쿠나으로 한정한다.

(산업부분별 투자규제 조항)

외국인 투자자는 경제전분야에 걸쳐 100% 단독 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분야에 한해서는 100% 단독투자는 허락되지 않고 합작투자만 가능하다.

- \* 무기 및 군사장비 생산
- \* 철도 및 항공운송
- \* 통신 및 체신
- \* 출판 및 방송언론 등

(부동산 소유제한)

크로아티아내에서 설립·등록된 크로아티아 법인은 외국인 지분소유에 관계없이 크로아티아 내 부동산 소유 및 양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외국 자연인과 법인은 크로아티아내 부동산을 소유 및 처분할 수 있으나 소유 및 처분 시 정부(외무부)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76. 투자진출절차

외국인 투자기업은 내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하게 그 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법원에 등록과 함께 법인자격을 부여받는다.

현금 투자시는 공인은행에서 발급하는 현금 입금증명서를 법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무형자산 투자시는 관련 증명서류를 해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계약에 의한 합작투자의 경우 동 계약서와 함께 합작신청서를 해당 정부부처에 제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영업허가는 해당기업소재 시장행정 단위에서 발급하며 동 지방행정 단위는 해당기업이 법원에 신청한 영업활동 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 정관 (MEMORANDUM OF ASSOCIATION) 작성 및 공증

정관에는 설립자명, 회사명 및 주소, 설립자본금, 법률책임자, 영업활동 범위, 경영자명, 설립기간 등이 명시된다.

- PUBLIC AUDIT SERVICE)에 잠정 지로계좌개설 및 설립자본금 납입 공공감사 서비스는 크로아티아 등 구유고권의 제도로 일종의 세무기관이다. 은행에서는 자본금 납입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 지방법원에 등기신청

지방법원에 등기 신청시 협회약정 및 설립자본금 입금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 법원등기 취득후 통계청(STATISTICS OFFICE)에 등기번호 신청 및 접수후, 공공 감사 서비스에 개설된 잠정 지로계좌 영구화

## 77.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현지 회사 법에서 인정하는 현지법인의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Joint-Stock Company이며 다른 하나는 Limited Liability Company이다. Joint-Stock Company의 경우 회사의 지분이 주식으로 표시되는데 비해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투자자의 지분이 주식으로 표시되지 않고 설립 시에는 모든 출자자가 1개의 기본지분만을 소유할 것이 요구된다.

---

대부분의 설립 회사는 Joint-Stock Company 보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이며 Joint-Stock Company의 경우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와 제한된 사람을 상대로 모집하는 경우 등에 따라 설립 절차가 비교적 복잡한 상태이다. 따라서 외국 법인의 경우 대부분 기본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설립되며 이와 같은 경향은 내국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서류준비 단계>

- 회사를 설립 하고자 하는 주소지 관할 상업법원에서 사용할 회사 명칭의 기 등록 여부 조회→ 회사명칭 확정(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님)
- 회사명칭의 계좌 개설→설립 자본금 납입→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해당 거래 은행)
  - 현물 출자 분이 있는 경우 현물 출자 명단 및 가치 등이 기록 되어야 한다.
- 법인등록 신청서→소정 양식(정부 간행물/서식 판매 센터)
- 회사설립서 또는 정관→크로아티아어 작성/ 영문의 경우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
- 경영자 및 감사 선임

<설립 허가신청 단계(제조업에 한함)>

- Location License 획득: 소속 지방 정부
- Building License 획득: 소속 지방 정부
- 공해산업의 경우 환경 평가: 소속 지방 정부
- 금융기관 설립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 취득 필요
- 특수 제조업(담배제조, 주류제조 등)의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허가 필요(재무부, 경제부)

<등록 신청 단계>

- 서류 준비: 공증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에 대한 공증 필요
  - 공증비용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미\$1천정도 소요
- 법인등록신청서 제출: 해당 관할 상업법원 (법인등록인지 구입/부착)
  - 수입인지 및 등록 공고비용으로 미\$600 정도 소요(필요 서류의 첨부)
- 상업법원의 경우 법인 등록 서류의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1-3개월 정도 소요
- 등록이 되면 등록 내용은 관보에 게재됨
  - 등록내용: 회사명, 회사 본사, 사업 영역, 자본금, 정관 채택일 경영진 및 감독기구 요원 명단 및 주소 및 개인등록번호, 회사 존속 기간, 경영진 임명 관련 서류 등)
  - 등록공지: 관보 등록내용 및 기타 내용을 공지)

<등록후>

- 납세자 번호 발급: 세무서
- 금융결제원(ZAP) Zero 번호 발급
- 경제회의소 회원 등록 및 회비 납부

<Joint-Stock Company 설립 관련>

- Joint-Stock Company의 개념
  - Joint-Stock Company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개념과 동일한 법인 형태를 의미한다. 기업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되며 주식의 소유자는 소유한 지분 이외의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이다. Joint-Stock Company의 최저 자본금은 DEM30,000에 상당하는 현지화이다. 주식액면가는 최저DEM10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명 뒤에 동 형태의 회사임을 나타내는 d.o.o 가 붙는다.
- 설립을 위한 서류
  - 발기인의 정관 채택서: 발기인 명단, 발기인 주소, 명목 주식 가격, 발행주식수, 여러 종류의 주식 발행 시 그 종류와 수량, 납입자본금, 정관 채택에 대한 발기인 회의내용 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서류를 공증 받아야 한다
    - 정관: 회사명 및 회사의 주된 소재지, 사업 내용, 자본금규모 주식가격 및 수량, 주식의 종류와 수량, 주식의 기명식 여부, 경영진 및 감독기구, 공지 형태와 방법, 회사의 지속 및 중단과 관련된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본금 납입 증명서: 현금 또는 현물 출자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은행의 예금 증명서 등)
    - 감독기구 등 임명: 발기인의 설립감독기구 및 회계감사의 임명 설립감독기구의 경영진 임명에 관한 자료
    - 설립보고서: 과거2년간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었던 요소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설립보고서는 발기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 설립검토서: 감독기구 및 경영진의 설립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법원이 임명한 검사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 등록신청서: 회사명, 본사, 사업영역, 주식발행금액, 주식대금 납입액 및 납입방법, 경영진의 무결경신고, 경영진 및 감독기관 이름, 주소 및 개인등록번호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 기타 부속서류 제출: 정관 채택에 대한 증명서, 설립비용에 관한 서류, 경영진 및 감독기구 임명에 관한 서류, 설립보고서 및 설립검토서, 기타 행정 관청으로부터 획득한 허가, 승인서류 등, 경영진의 서명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 관련>

- Limited Liability Company 개념(참여자는 참여 지분을 한도로 책임을 지지만 지분은 주식으로 표시되지 않는 업체이다. 최저 자본금은 DEM5,000에 상당하는 현지 통화이며 설립시의 지분은 참여자간 균등하여야 하나 후에 특정인의 지분이 증대/감소할 수 있다. 최저 지분은 DEM200 이며 1명의 지분 소유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법인 격을 취하고 있다. 기업명 뒤에도 형태의 법인임을 나타내는 d.o.o. 가 붙는다.

- 설립을 위한 서류
  -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록 이전에 자본금의 1/2 이상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
  - 설립 협정서: 설립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설립자의 설립협정서가 필요하고 1인의 경우 설립자의 설립진술서만 작성하면 된다. 동 서류상에는 설립자 성명, 회사명(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주소지 또는 본부 소재지, 자연인의 경우 신분증명서 번호, 법인의 영업활동, 총 자본금 및 각 설립자의 지분, 설립법인의 존속기간, 회사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 관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동 서류는 공증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법원의 법인등록신청서(소정 양식): 회사명, 본 주 소재지, 영업 활동 내용, 자본금, 경영진의 책무와 진술서, 경영진의 성명 및 주소, 신분증 번호
  - 부속서류: 설립자 및 주주 명단 및 주소, 신분증명서 번호, 생년월일, 지경영자 및 감독기관 명단, 주소, 생년월일, 신분증명서 번호 등,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획득한 허가, 승인서 등, 경영진의 서명
- 지사의 법적 개념: 모기업과 동일한 법인체로 간주되며 지사 자체의 책임은 없고 궁극적인 책임은 모기업이 부담한다.
- 영업활동 등에는 모기업과 같이 제한이 없다.
  - 모든 장부를 비치하여야 함
- 서류 준비
  - 모기업 등록 지의 등록서류(공증 필요) 및 이의 크로아티아어 공식 번역서
  - 모기업의 지사 설립 결정서류 및 이의 크로아티아어 공식 번역서
  - 모기업의 정관(공증 필요) 및 이의 크로아티아어 공식 번역서
  - 모기업의 최근 년도 결산 보고서(공증 필요)
  - 여러 지역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지사를 선정
  - 법원의 법인등록 신청서(소정 양식)
- 설립 절차
  - 등록대상: 관할지 상업법원
  - 법원의 법인등록신청서(소정 양식): 회사명, 본 주 소재지, 영업활동 내용, 자본금, 경영진의 책무와 진술서, 경영진의 성명 및 주소, 신분증 번호
  - 부속서류: 모기업 등록서류, 지사설립 결정서, 모기업 정관, 모기업 결산서류
- 연락사무소의 법적 개념: 영업활동 수행은 불가능, 단순 시장조사, 연락 업무 수행
- 설립준비 서류: 크로아티아로 공식 번역
  - 설립자명 및 주소
  - 크로아티아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 사무소의 역할 및 활동
  - 크로아티아 사무소 책임자명, 주소 및 신상 관련 자료
  - 크로아티아 사무소 책임자 임명 증명 서류 및 임명권자에 대한 권한 존재 여부 증명 서류
  - 모기업 등록 관련 주요 내용
  - 모기업의 연락사무소 설치 결정 증명 서류
- 등록절차
  - 등록대상: 크로아티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 등록절차: 설립 신청서 제출 및 부속서류
- 등록행정 세 납부

우리무역관에서는 현지 투자진흥기관인 크로아티아투자진흥청(CIPA)의 고문 변호사를 면담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충분한 자료 입수 및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는 현지 투자 절차가 법적인 문제로 인해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보다 구체적인 투자 건을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제조업의 경우 공장 신축이나 기존 공장 인수, 단순한 기존 건물 임차 등에 따라 달라지고 공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등 보편적인 투자 절차를 정형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필요한 Location License, Building License에 관한 신청 서류를 입수하기 위해 현지 지방 관청을 방문한 결과 특정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한 해당절차 및 내용을 설명해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특정 투자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서는 법률적 자문의 효용성도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위의 투자절차 및 서류에 관한 자료는 크로아티아 투자진흥청의 고문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및 현지 법규(회사 법), 정부기관 접촉(연락사무소 설치 담당하는 경제부 및 지방 행정관청) 등을 통해 파악된 내용 을로 다소 구체성이 결여되고 있으나 이보다 더 상세한 내용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78. 산업단지/산업단지종합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산업공단 조성 및 운영중에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내 자유무역지대는 Zagreb, Rijeka, Vukovar, Osijek, Krapina 등 5개이다. 대규모 공단은 없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외곽지역에 소규모 공단이 조성되어 있다. 동 공단에 진출하여 있는 기업들은 거의 주재국기업으로 공단내 외국기업 진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79. 자유무역지대

| 자유무역지대목록                            |  |
|-------------------------------------|--|
| KRAPINSKO ZAGORSKA<br>SLOBODNA ZONA | Frana Galovica 15, 49000 Krapina<br>Mr. Branko Kunstek, Director<br>Tel: ++385 49 371 670; GSM: ++385 98 250 141<br>Fax: ++385 49 372 767<br>E-mail: mago-krapina@kr.tel.hr  |
| SLOBODNA ZONA<br>OSIJEK             | Europske avenije 13, 31000 Osijek<br>Mr. Dzafer Pepic, Director<br>Tel: ++385 31 586 027; GSM: ++385 98 372 084<br>Fax: ++385 31 586 029<br>E-mail: <a href="mailto:zone@freezoneos.com">zone@freezoneos.com</a><br><a href="http://www.freezoneos.com">www.freezoneos.com</a> |
| SLOBODNA<br>ZONA<br>KUKULJANOVO     | Primorje 39, 51222 Bakar<br>Mr. Marijan Rosic, Director<br>Tel: ++385 51 761 100<br>Fax: +385 51 761 107<br>E-mail: ind-zone@ind-zone.com<br><a href="http://www.ind-zone.com">www.ind-zone.com</a>  |
| SLOBODNA ZONA<br>LUKE RIJEKA        | Riva 1, 51000 Rijeka<br>Bojan Hlaca, Director<br>Zeljko Glavan, Deputy Director<br>Tel: ++385 51 351 115; 351 177<br>Fax: ++385 51 331 764<br>E-mail: lucka-uprava-ri@ri.tel.hr<br><a href="http://www.portauthority.hr">www.portauthority.hr</a>                              |
| SLOBODNA ZONA ZAGREB                | Jankomir 25, 10000 Zagreb<br>Mrs. Dubravka Maras, Director<br>Tel: ++385 1 3496 571; GSM: ++385 98 227 798<br>Fax: ++385 1 3871 401<br>E-mail: slobodna-zona-zagreb@zg.tel.hr  |
| SLOBODNA ZONA OBROVAC               | Robni terminali d.o.o., 23450 Obrovac<br>"Kamen" Obrovac<br>Mr. Damir Cirak, Director<br>Tel: ++385 23 689 412<br>Fax: ++385 23 689 069  |

|   |  |
|---|--|
| SLOBODNA ZONA SPLIT                               | Put sjeverne luke bb, 21000 Split<br>Mr. Grgic Branko, Director<br>Tel: ++385 21 390 222; 390 218; 390 211<br>Fax: ++385 21 390 239<br>E-mail: lucka-uprava-split@st.tel.hr<br>www.portsplit.com   |
| SLOBODNA ZONA LUKE PULA                           | Kandlerova 42, 52000 Pula<br>Mr. Mladen Cerni, Director<br>Tel: ++385 52 217 662<br>Fax: ++385 52 383 162<br>Mr. Mario Quaranta, Deputy Director<br>Tel: ++385 52 217 667<br>E-mail: lucka-uprava-pula@inet.hr<br>www.luckauprava-pula.hr            |
| SPLITSKO DALMATINSKA<br>SLOBODNA ZONA             | Ulica Domovinskog rata 2, 21000 Split<br>Mr. Vicencije Biuk, Director<br>Tel/Fax: ++385 21 300 008; GSM: ++385 98 371 613  |
| SLOBODNA ZONA<br>LUKE PLOČE                       | Trg kralja Tomislava 21, 20340 Ploče<br>Mr. Srecko Erak, Director<br>Tel: ++385 20 679 035<br>Fax: ++385 20 679 103<br>Mr. Svemir Zekulic, Deputy Director<br>Tel: ++385 20 603 180<br>E-mail: lucka-uprava-ploce1@du.tel.hr<br>www.portauthority.hr |
| ROBNI TERMINALI "BUJE"                            | 54260 Buje<br>Mr. Nenad Krizan, Director<br>Tel: ++385 52 772 202<br>Fax: ++385 52 772 342<br>E-mail: digitron@pu.tel.hr<br>www.digitron.hr  |
| SLOBODNA ZONA<br>DJURO DJAKOVIC<br>SLAVONSKI BROD | Mr. Josip Salantic, Director<br>Tel: ++385 35 445 783<br>Fax: ++385 35 444 108<br>E-mail: zone@freezone-dd-sb.hinet.hr   |
| PODUNAVSKA<br>SLOBODNA ZONA<br>VUKOVAR            | Ul. Vijeća Europe 25, 32000 Vukovar<br>Mr. Mario Radic, Director<br>Tel/Fax: ++385 32 416 871  |

|                      |   |
|----------------------|---|
| SLOBODNA ZONA RIBNIK | Ribnik bb, 47272 Ribnik<br>Mr. Anton Gaspersic, Director<br>Tel: ++385 47 610 838; GSM: ++385 98 187 86 69<br>Fax: ++385 47 601 839 |
|----------------------|---|

현재 한국기업이 크로아티아내에 투자를 결정 할 경우 투자 정도(금액)에 따라 자유무역지대에서 부지 및 세금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있다. 현재 크로아티아의 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있기에 투자유치는 절실한 실정이다.

<투자규모에 따른 세금 혜택>

| 투자규모(HRK) | 적용세율 | 혜택기간(years) | 종업원수 |
|-----------|------|-------------|------|
| 1000만 쿠나  | 7%   | 10          | 30   |
| 2000만 쿠나  | 3%   | 10          | 50   |
| 6000만 쿠나  | 0%   | 10          | 76   |

자료출처 : 크로아티아 투자 촉진법

## 80. 조세제도

범유럽권 편입추진에 따라 세제를 개편중에 있다. '97년까지 부과되었던 판매세는 '98.1.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어 폐지되었다. 일반 수입관세는 5-25%이며 사치품세는 종전의 70%에서 20%로 인하되었다.

주요세율은 다음과 같다.

- 법인소득세 : 35%
- 개인소득세 : 20% (월 소득 2,400.00 쿠나)  
35% (월 소득 2,400.00 쿠나 이상)
- 부가가치세 : 상품 및 서비스/ 22%(빵,밀크,교과서, 참고서 일부 의료품목은 부과세제외)
- 재산세 : 5%

## 81. 사회간접자본/크로아티아 사회간접자본 통계

<사회간접자본 통계>

| 사회간접자본 통계                                    |                |                          |                |                          |                |                          |                |                          |                |                          |
|--|----------------|--------------------------|----------------|--------------------------|----------------|--------------------------|----------------|--------------------------|----------------|--------------------------|
|  | 1998           |                          | 1999           |                          | 2000           |                          | 2001           |                          | 2002           |                          |
|  | m <sup>a</sup> | m<br>tonnes <sup>b</sup> |
| Railways                                     | 28.5           | 11.5                     | 30.5           | 10.3                     | 34.9           | 10.1                     | 37.0           | 10.8                     | 36.2           | 10.7                     |
| Roads  | 77.6           | 5.7                      | 64.8           | 5.2                      | 66.6           | 4.9                      | 67.5           | 40.8                     | 65.6           | 46.0                     |
| Pipelines                                    |                |                          |                |                          |                |                          |                |                          |                |                          |
| Oil  | -              | 5.7                      | -              | 5.7                      | -              | 4.8                      | -              | 5.9                      | -              | 6.7                      |
| Gas  | -              | 2.0                      | -              | 2.0                      | -              | 2.0                      | -              | 2.1                      | -              | 2.2                      |
| Water  |                |                          |                |                          |                |                          |                |                          |                |                          |
| Maritime                                     | 6.9            | 35.8                     | 6.6            | 33.1                     | 8.0            | 32.5                     | 9.0            | 32.1                     | 9.7            | 30.7                     |
| Inland<br>waterways                          | -              | 1.2                      | -              | 0.8                      | -              | 1.1                      | -              | 1.1                      | -              | 0.7                      |
| Air  | 0.9            | -                        | 0.9            | -                        | 1.1            | -                        | 1.2            | -                        | 1.4            | -                        |
| Total  | 113.9          | 61.9                     | 102.8          | 57.1                     | 110.6          | 55.4                     | 114.7          | 92.8                     | 112.9          | 97.0                     |
| <sup>a</sup> Passengers. <sup>b</sup> Goods. |                |                          |                |                          |                |                          |                |                          |                |                          |

자료출처 : 크로아티아 통계청 (2004년 현재 본 자료가 가장 최신자료 임.)

---

## 82. 사회간접자본/크로아티아 고속도로 현황

### ○. 크로아티아 고속도로 현황

크로아티아는 이전에 있던 자그레브-리포바쯔 구간, 자그레브 카를로바쯔구간이외에 자그레브-고리찬 구간, 자그레브-브레가나구간, 자그레브-마쩔리구간, 카를로바쯔-리에카 구간, 이스트리아반도 고속도로 구간 그리고 자그레브-스플릿 구간을 완공 혹은 부분완공한 상태이며, 현재 자그레브-시삭 구간, 보스니아-오시엑 구간, 자그레브-리포바쯔 연장구간, 리에카-쥬타 로크바 및 스플릿-두브로브닉 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중에 있다.

<고속도로 관련 사이트>

<http://www.hac.hr/modules.php?r=autoceste>

## 83. 노동여건

신문광고를 통한 공개 채용 후 고용 계약서 작성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 납부를 위해 세무서에 소득수준 신고 및 매월 급여 지급 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국 내 기업의 경우 인적관계에 의해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외국기업의 경우 가능한 한 신문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계약은 노동허가서 혹은 노동허가 비자취득자에 한하며 고용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계약 당사자명, 당사자의 주소
- 근로장소, 여러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모두 명시
- 근로계약자의 직위, 역할 및 담당 업무
- 최초 근무일
- 계약기간(유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유급휴일 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방법
- 종료기간 또는 종료기간을 확정하는 방법
- 기본급 및 그 외 부가적인 지급액
- 일일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

최대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수습기간 내에는 1주일전의 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연간 기본휴가 18일에 기복, 건강, 강력 등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휴가시행이 가능하며 연간 휴가일수에는 토요일을 포함할 수 있다.

---

연간휴가는 대부분 여름철에 3주, 겨울철에 1주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연간휴가 미 사용 분은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으나 이월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내이다. 그 외 질병, 결혼, 출산 등 중요한 행사의 경우 연간 7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회보장보험 등에 대한 부담은 근로자와 고용주로 양분되어 있으나 세금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보장 세를 기업이 원천 징수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급여(세금 및 사회보장세 피고용자 부담 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실제 근로자가 지불 받는 금액)의 100-130% 정도가 세금 및 사회보장세 등으로 지불되므로 비교적 임금이 높은 편이다.

즉 노동자가 순수히 지급받는 순 임금이 500불일 경우 노동자 부담 세금 및 사회보장세와 고용주부담 사회보장세가 약 500-650불이며 급여가 높아질수록 고용주부담 비용이 증가한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세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나 실업률이 19%에 이르는 등 재원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계약의 종료는 아래 사유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근로자의 사망
- 임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
- 65세에 이르고 2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
- 불구로 인한 강제퇴직
- 당사자간의 합의
- 해고
- 법원의 판결

고용계약의 취소는 아래 사유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경제, 기술, 조직상의 이유로 해당 직무 수행이 불필요해진 경우  
  .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직무 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 불가
- 근로자가 자기 임무를 정상적을 수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업부문, 학력, 경력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며 노동부에서 관련 기준표를 매월 공고하지만 실제 급여는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2003.10월 현재 크로아티아 근로자의 월평균 순 임금은 USD 630 정도이다.

<크로아티아 노동력 지표>

노동력 (단위: 평균 %)

|  | 2000  |                         | 2001  |                         | 2002             |                         |
|--|-------|-------------------------|-------|-------------------------|------------------|-------------------------|
|  | '000  | % of total <sup>b</sup> | '000  | % of total <sup>b</sup> | '000             | % of total <sup>b</sup> |
| 제조업 & 채광업  | 265   | 15.7                    | 260   | 15.0                    | 254              | 14.5                    |
| 농업 & 어업  | 22    | 1.3                     | 22    | 1.3                     | 22               | 1.3                     |
| 임업   | 10    | 0.6                     | 10    | 0.6                     | 9                | 0.5                     |
| 건설업  | 65    | 3.9                     | 66    | 3.8                     | 72               | 4.1                     |
| 운송업 & 통신업  | 82    | 4.9                     | 82    | 4.8                     | 81               | 4.6                     |
| 무역업  | 154   | 9.1                     | 160   | 9.2                     | 165              | 9.4                     |
| 호텔 & 식당  | 41    | 2.5                     | 41    | 2.4                     | 40               | 2.3                     |
| 정부   | 122   | 7.3                     | 121   | 7.0                     | 118              | 6.7                     |
| 의료 & 교육  | 154   | 9.2                     | 155   | 9.0                     | 156              | 8.9                     |
| 기타   | 137   | 8.1                     | 31    | 1.8                     | 33               | 1.9                     |
| 기술, 무역<br>& 자영업자   | 205   | 12.1                    | 216   | 12.5                    | 232 <sup>c</sup> | 13.3                    |
| 자영 농업인   | 83    | 4.9                     | 76    | 4.4                     | 67 <sup>c</sup>  | 3.8                     |
| 전체 국내공용  | 1,341 | 78.9                    | 1,348 | 78.0                    | 1,060            | 60.6                    |
| 실업자  | 358   | 21.2                    | 380   | 22.0                    | 390              | 22.3                    |
| 노동력  | 1,699 | 100.0                   | 1,728 | 100.0                   | 1,749            | 100.0                   |
| <sup>a</sup> As a share of domestic employment unless otherwise indicated. <sup>b</sup> As a share of the labour force. <sup>c</sup> Year-end. |       |                         |       |                         |                  |                         |

자료출처: 크로아티아 통계청(2004년 현재 최신자료임)

## 84. 노동여건/구직 홈페이지 정보

### ○. 크로아티아 구직 정보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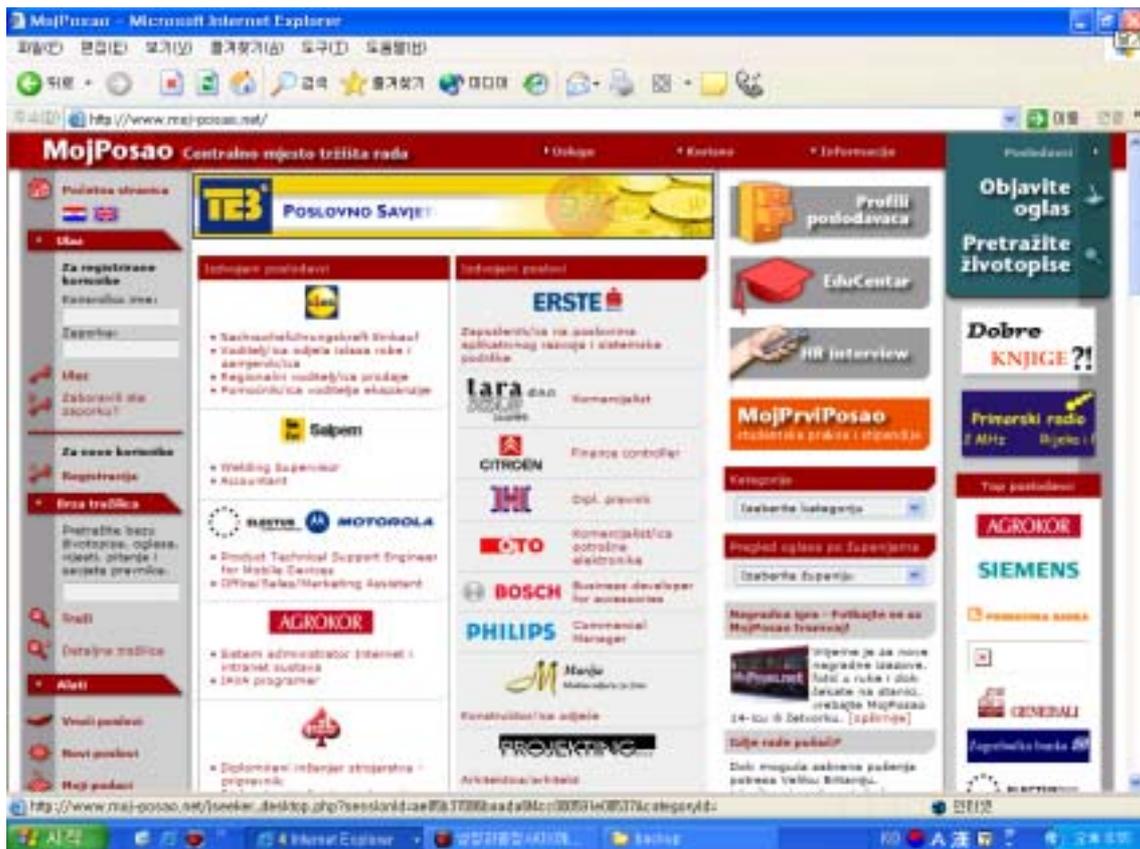
기존 크로아티아 구직자들이 직업을 구할시 주로 신문광고등을 참조했으나, 최근들어 좀 더 편리한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의 등장으로 구직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기의 사이트는 먼저 구직자의 정보를 등록 후, 관심 있는 구인업체에 구직자 정보(이력서, 자기소개서등)을 바로 전자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고있으며,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사이트 정보>

홈페이지 명 : MojPosao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j-posao.net/>



---

## 85.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보험 등에 대한 부담은 근로자와 고용주로 양분되어 있으나 세금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보장세를 기업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다.

순급여(세금 및 사회보장세 피고용자 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실제 근로자가 지불받는 금액)의 100-130% 정도가 세금 및 사회보장세 등으로 지불되므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즉 노동자가 순수히 지급받는 순 임금이 500불일 경우 노동자부담 세금 및 사회보장세와 고용주부담 사회보장세가 약 500-650불이며 급여가 높아질수록 고용주부담 비용이 증가한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세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나 실업율이 17%에 이르는 등 재원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현지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 의료보험가입은 필수적이거나 외교관 등 취업허가, 세금납부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단순거주 목적의 경우 인근지 서유럽 사회보장회사들이 운영하는 국제의료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 86.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제도(교육부문)

### ○. 크로아티아 교육 부문 사회 보장제도

크로아티아는 공교육이 발달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이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 ○. 초등교육 : 전액 국가 부담(단, 교과서 제외)

### ○. 중등교육 : 전액 국가 부담(단, 교과서 제외)

### ○. 고등교육

- 일반 고등학교 : 전액 국가 부담(단, 교과서 제외)

- 특수 목적 고등학교(공업계, 예능계, 외국어 목적 고교) : 전액 혹은, 일부 학생 부담

○. 대학교 : 크로아티아 대학교는 입학시험에 통과를 할 경우 4년간의 모든 학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학교에 입학은 가능하나 소정의 학비 (7,000쿠나/년)을 교육당국에 지불하여야 함. 전체 학생중 장학생의 비율을 약70%정도 임.

## 87. 현지 생활여건

한국식품점은 없으며 쌀은 이태리산을 현지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배추 등 생활에 필요한 부식도 대부분 현지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미료, 라면 등은 현지구입에서 구입할 수 없어 필요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국으로부터 조달시는 항공운송시 통상 15일이 걸리므로 부패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통관시는 품목별로 관세청, 경제부, 농림부 등의 품질 및 관련 규격심사를 거친다.

개인자격으로 쌀을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배추 등 채소류의 경우 특정 기간중에는 현지 시장에서 구입 가능하나 대부분 오스트리아에서 구입해야 한다. 중국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으며, 식품 등은 극히 일부 품목만 구입할 수 있다. 공산품의 경우는 최근 자그레브에만 10여개의 대형 할인점이 개설되어 충분히 현지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감기약 등 간단한 의약품은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 88. 현지생활여건/생활여건 (문화부문)

### ○. 크로아티아 생활여건 문화 부문

크로아티아에서는 콘서트, 음악회, 오페라등을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있으며, 연중 언제든지 쉽게 관람 할 수 있다. 또한, 공연 요금도 저렴(음악회 공연;40쿠나=6800원)한 편이어서 큰 부담 없이 공연 문화를 접할수 있다.공연중 시내 공원 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시민 혹은 시 자체에서 주체하는 것으로 요금없이 관람이 가능하며, 봄~가을중 매주 주말에 행사가 있는편이다.

<관람 정보 제공 사이트>

<http://www.zagreb-touristinfo.hr/index.php.en>



또한, 스포츠 시설도 주거지 주변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시간과 요금이 저렴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예, 수영장 - 1일권 : 20쿠나=3400원)

영화 관람의 경우, 시내에 쇼핑센터와 함께 멀티플렉스 극장이 몇곳 위치해 있어 한곳에서 쇼핑과 영화관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 89.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현지에서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복덕방을 통하여 얻는다.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 구할 수도 있으나 복덕방을 통하여만 다양한 주택을 볼 수 가 있다. 특히 현지의 경우 아파트보다는 개인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이경우 가격수준이 일정하질 않아 가능한 한 많은 집을 보는 것이 좋다.

집주인에 따라 1-2개월의 보증금을 달라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 집을 구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집이 Furnished된 상태이며 집계약시 안되 있을 경우는 주인과 가격이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필요한 집기를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복비는 대개 외국인에게는 1개월 임차료를 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잘 협의하면 5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집 계약은 영어와 크로아티아어로 2중으로 하며 임차료는 현금으로 달라는 경우가 많다. 은행으로 이체시는 집주인이 20%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주택을 임차시 집주인만 세금을 낸다.

자그레브의 경우 사바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강북은 주택이 많고 강남은 아파트가 많다. 아파트의 경우 큰 평수가 없고 집을 건축한지 오래되어 다소 노후화 되어 있다. 강북에는 산이 있어 대부분 이산주변에 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주변경관이 아름다워 대부분의 외교관이나 주재원들이 강북에 살고 있다.

집 가격은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3룸을 기준으로 강북쪽에서 위치좋은 곳은 1,500유로 이상이며 강남아파트의 경우는 1,000유로 정도이다.

비자없이 3개월 이상 장기체류는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3개월 이전에 인근지 국가를 다녀와 비자를 갱신하여야 한다.

회사를 설립후 비즈니스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크로아티아내에서는 할 수 없고 이 경우 인근지 국가 주재 크로아티아 대사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후 기간은 약 1달 반 정도 걸리며 비자를 받은 후 입국하여 입국후 현지 경찰서에 거주 신청서를 내야한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비자 옆에 도장을 찍어 주는데 이 도장이 처음에는 6개월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

외국인 구좌개설시 별 어려움이 없이 여권제시와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만 작성하면 된다.

전화신청시는 거주지가 가까운 전화국에 신청을 하면된다. 총비용은 610KN (부가세포함)이며 개인인 경우는 ID(외국인인 경우 비자)와 회사의 경우는 회사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크로아티아 경우 집을 구할 때 대부분의 집이 가구가 갖추어져 있어 본 국으로부터 많은 짐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다만 생필품은 현지의 물가가 비싸므로 한국에서 구입해서 오는 것이 낫다.

최근에 자그레브 시내에 대형할인매점이 여러 곳 개설되어 식료품은 물론 가구들을 싸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 90. 자녀 교육여건

수도 자그레브내에 1-8학년까지 과정의 국제학교가 있다.

### - 학교명 및 연락처

Vocarska106, 10000 ZAGREB, CROATIA

TEL : +385-1-4680133, 팩스 4680171, home page:www.asz.tel.hr

\* 학비 수준 : 학년에 따라 다르나 연간 USD14,000 ~ 15,000수준임.

\* 학급 편성 : 8-13명 (총 재학생수 110명 정도)

AMERICAN SCHOOL외에 현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외국인 반을 편성하여 국제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으며 American School과 교육과정이 동일한 1-8학년 과정과 9학년 이후 과정이 개설된 학교로 구분되어 있다.

### - 초등학교 국제교육과정

OSNOVNA SKOLA MATIJE GUPCA

ULICA DAVORINA BALJANCA 2, 10000 ZAGREB, CROATIA

TEL : +385-1-314-034

\* 학급 편성 : 저학년반과 고학년반으로 2개 반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지 학교와 같이 2부제로 수업(매주 오전, 오후 반으로 교대)

### - 외국인 유치원 교육과정

INTERNATIONAL ANGLO-AMERICAN PRE-SCHOOL OF ZAGREB ODRANSKA 6, 10000 ZAGREB, CROATIA

---

TEL : +385-1-6190262

\* 학급 편성 : 8-10명

\* 대상 연령 : 2.5세-6세

- 외국인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

XV. GIMNAZIJA

JORDANOVAC 8, 10000 ZAGREB, CROATIA

9학년부터 12학년 과정 교육

## 91. 진출기업

삼성물산 자그레브 연락사무소 (Samsung Deutschland GmbH)

- 도시: 자그레브

- 주소: Hotel Sheraton app 285-287 Knez Bome2, 10000 Zagreb, Croatia

- 전화: 385-1-461-3833

- 팩스: 385-1-461-3811

- Email : [samsung@zg.tel.hr](mailto:samsung@zg.tel.hr)

- 대표 : Mr. Zoran Horvat

대우자동차 (Daewoo Motor d.o.o)

- 도시: 자그레브

- 주소: Praska 8/3 10000 Zagreb, Croatia

- 전화: 385-1-480-3333

- 팩스: 385-1-480-3334

- Email: [kim@daewoo.hr](mailto:kim@daewoo.hr)

- 사장: 김환중

- 업종: 자동차, 가전제품 판매

아이플러스 (I Plus d.o.o.)

- 도시: 자그레브

- 주소: Bosutska 31, 10000 Zagreb, Croatia

- 전화: 385-1-6118-804

- 팩스: 385-1-6153-445

- 사장: 김유광

- 업종: 문구류

## 92. 주요경제지표

| 2003년도 주요 경제 지표 |             |
|-----------------|-------------|
| 실질 경제 성장률(%)    | 4.6%        |
| 소비 가격 상승률(%)    | 1.5%        |
| 경상수지 (USD)      | - 16억7천3백만불 |
| 해외부채 (USD)      | 218억불       |
| 실업률 (%)         | 19.5%       |

자료출처 : Ecom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Data

| 2003년도 인근국가 주요경제지표     |       |       |        |       |                |
|------------------------|-------|-------|--------|-------|----------------|
|                        | 크로아티아 | 헝가리   | 슬로베니아  | 슬로바키아 | 세르비아<br>&몬테네그로 |
| 국내총생산<br>(USD billion) | 27.9  | 83.9  | 28.0   | 33.2  | 19.8           |
| 1인당<br>국내총생산성          | 6,301 | 8,344 | 14,028 | 6,122 | 1,858          |
| 소비 가격<br>상승률(%)        | 1.5   | 4.7   | 5.6    | 8.8   | 11.2           |
| 경상수지<br>(USD billion)  | -1.7  | -5.4  | 0.1    | -1.3  | -2.1           |
| 수출 FOB                 | 6.4   | 41.9  | 12.0   | 20.6  | 2.7            |
| 수입 FOB                 | -12.9 | -46.1 | -12.6  | -22.2 | -7.2           |
| 해외부채<br>(USD billion)  | 21.8  | 42.8  | 10.6   | 15.4  | 13.8           |

자료출처 : Ecom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Data

### 93. 주요경제지표/분야별 국내총생산(GDP)

| 분야별 국내총생산 (GDP) <단위 : %>   |      |      |      |      |      |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농업, 수렵, 임업, 수산업            | 9.8  | 9.6  | 9.5  | 9.2  | 8.9  |
| 광산업, 채석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자원 | 27.5 | 28.6 | 28.8 | 29.1 | 28.8 |
| 건설                         | 7.2  | 6.5  | 5.9  | 5.8  | 6.3  |
| 도매업, 소매업                   | 12.4 | 11.1 | 11.3 | 12.0 | 12.9 |
| 호텔, 외식업                    | 3.2  | 3.2  | 3.6  | 3.7  | 3.7  |
| 운송업, 물류업, 통신업              | 9.1  | 8.7  | 8.9  | 9.1  | 9.3  |
| 금융업                        | 14.7 | 15.3 | 15.0 | 15.0 | 15.2 |
| 정부부분 (방위, 교육, 보험등)         | 20.0 | 20.8 | 20.6 | 19.9 | 19.0 |
| 측정불가능 금융업(검은시장)            | -3.9 | 3.8  | 3.6  | 3.8  | -4.0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자료출처 : 크로아티아 통계청 (2004년 현재 2002년 자료가 최신자료임.)

### 94. 주요경제지표/주요경제지표(1999~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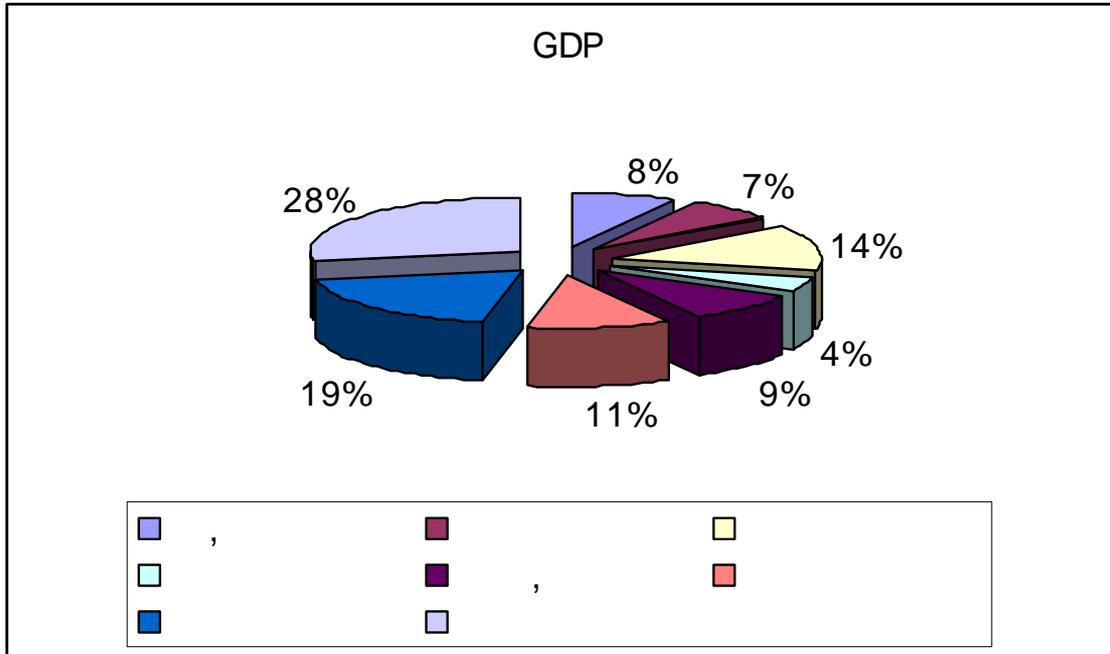
주요경제지표 (1999~2004년)

| 구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GDP(1백만불, 경상가격)   | 19,906 | 18,427 | 19,536 | 22,436 | 28,810 | 34,330 |
| GDP 성장률(% , 불변가격) | -0.4   | 3.7    | 4.1    | 5.2    | 4.3    | 3.8    |
| 1인당 GDP(US\$)     | 4,371  | 4,206  | 4,403  | 5,057  | 6,486  | 7,767  |
| 소매물가 상승율(%)       | 4.2    | 6.2    | 2.5    | 1.8    | 1.8    | 2.0    |
| 수출 (US\$1백만)      | 4,411  | 4,567  | 4,758  | 5,003  | 6,307  | 7,655  |
| 수입(US\$1백만)       | 7,727  | 7,771  | 8,860  | 10,625 | 14,216 | 15,444 |
| 대외부채 (US\$1백만)    | 9,978  | 11,055 | 11,317 | 15,242 | 19,970 | 22,675 |
| 외환보유고 (US\$1백만)   | 3,035  | 3,525  | 4,697  | 5,885  | 8,190  | 8,557  |
| 평균환율동향 (HRK:US\$) | 7.1124 | 8.2768 | 8.3391 | 7.8637 | 6.1200 | 5.6400 |

- 자료원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및 ISI Emerging Markets

## 95. 주요경제지표/분야별 국내총생산(2004년)

○. 분야별 GDP구성비(2004년)



○. 정보원 : ISI Emerging Markets

## 96. 대외거래지표

<대외거래지표>

| 구분    | 단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수출    | US\$백만 | 4,580.6  | 4,394.7  | 4,567.2 | 4,758.7 | 4,994.6  |
| 수입    | US\$백만 | 8,652.0  | 7,693.3  | 7,770.9 | 8,860.0 | 10,273.9 |
| 경상수지  | US\$백만 | -1,452.7 | -1,397.3 | -459.3  | -725.0  | -1,546.7 |
| 외환보유고 | US\$백만 | 2,549    | 2,419    | 2,851   | 4,703   | 4,902    |
| 외채    | US\$십억 | 9,683    | 9,978    | 11,055  | 11,317  | 15,242   |

자료원: EIU 및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대외거래지표 업데이트>

(US\$ 백만)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상품 수출 (FOB 기준)                            | 4,580.6  | 4,394.7  | 4,567.2  | 4,758.7  | 4,994.6   |
| 상품 수입 (FOB 기준)                            | -8,652.0 | -7,693.3 | -7,770.9 | -8,860.0 | -10,273.9 |
| 경상수지                                      | -4,071.4 | -3,298.6 | -3,203.7 | -4,101.3 | -5,279.3  |
| Services: credit                          | 3,964.1  | 3,723.0  | 4,095.9  | 4,875.5  | 5,550.3   |
| Services: debit                           | -1,887.4 | -2,097.8 | -1,828.0 | -1,948.5 | -2,432.1  |
| Income: credit                            | 394.9    | 254.8    | 345.8    | 418.9    | 461.1     |
| Income: debit                             | -558.9   | -611.1   | -752.5   | -935.3   | -939.7    |
| Current transfers: credit                 | 919.1    | 967.4    | 1,101.0  | 1,174.5  | 1,357.4   |
| Current transfers: debit                  | -213.1   | -335.0   | -217.8   | -208.8   | -264.3    |
| Current-account balance                   | -1,452.7 | -1,397.3 | -459.3   | -725.0   | -1,546.7  |
| 크로아티아 직접투자액                               | 834.9    | 1,420.0  | 1,084.8  | 1,406.7  | 885.9     |
| 포트폴리오 투자                                  | 14.9     | 532.4    | 707.6    | 600.7    | -216.4    |
| 기타 투자                                     | 751.7    | 347.2    | 108.3    | 489.5    | 2,715.3   |
| Financial-account balance (excl reserves) | 1,601.5  | 2,299.7  | 1,900.7  | 2,497.0  | 3,384.8   |

자료출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현재 2004년도 최근 자료는 2002년까지의 자료임.)

## 97. 대외거래지표/대외거래지표(2003년)

○. 크로아티아 2003년 대외거래지표(2005년 현재 최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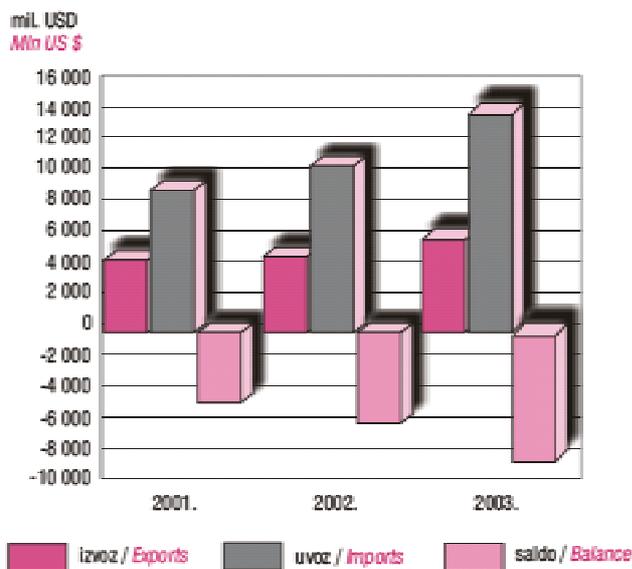
| 품목           | 단위 : 백만불 |        |
|--------------|----------|--------|
|              | 수출       | 수입     |
|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 | 561      | 1,001  |
| 음료 및 기호식품    | 163      | 116    |
| 천연원료         | 350      | 326    |
| 광물 및         | 594      | 1,552  |
| 동물 및 식물성 오일  | 14       | 41     |
| 화학제품         | 593      | 1,559  |
| 제조업 제품       | 869      | 2,661  |
| 기계 및 운송장비    | 1802     | 5,261  |
| 잡화           | 1211     | 1,646  |
| 기타           | 8        | 36     |
| 전체           | 6,164    | 14,199 |

○. 정보원 : 크로아티아 통계청

## 98. 대외거래지표/경상수지 (2001년~2003년)

○. 크로아티아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경상수지

단위 : 백만불



정보원 : 크로아티아 통계청

## 99.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대상국별 수출

<주요 수출국>

(% 단위)

| 국가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이태리         | 17.7 | 18.0 | 22.3 | 23.7 | 22.7 |
| 독일          | 16.9 | 15.7 | 14.2 | 14.8 | 12.5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14.4 | 12.7 | 11.2 | 12.0 | 14.4 |
| 슬로베니아       | 9.5  | 10.6 | 10.8 | 9.1  | 8.7  |
| 오스트리아       | 5.4  | 6.4  | 6.6  | 5.7  | 7.5  |
| EU          | 47.6 | 49   | 54.4 | 54.1 | 52.7 |

자료출처: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주요 수출국 업데이트>

| 국가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이탈리아        | 18.0 | 22.3 | 23.7 | 22.7 | 26.4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12.7 | 11.2 | 12.0 | 14.4 | 14.5 |
| 독일          | 15.7 | 14.2 | 14.8 | 12.5 | 11.9 |
| 슬로베니아       | 10.6 | 10.8 | 9.1  | 8.7  | 8.3  |
| 오스트리아       | 6.4  | 6.6  | 5.7  | 7.5  | 7.8  |

자료 출처: 크로아티아 통계청

## 100.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대상국별 수입

<주요 수입국>

(% 단위)

| 국가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이태리   | 17.9 | 15.9 | 16.6 | 16.9 | 17.3 |
| 독일    | 19.3 | 18.5 | 16.5 | 17.6 | 16.3 |
| 러시아   | 4.3  | 8.6  | 8.6  | 7.2  | 6.7  |
| 슬로베니아 | 8.6  | 7.9  | 7.9  | 7.9  | 7.7  |
| 오스트리아 | 7.3  | 7.1  | 6.7  | 7.0  | 6.6  |
| EU    | 59.4 | 56.6 | 55.4 | 56.5 | 55.8 |

자료 출처: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주요 수입국 업데이트>

| 국가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이탈리아  | 15.9 | 16.6 | 18.1 | 17.3 | 18.2 |
| 독일    | 18.5 | 16.5 | 17.3 | 16.2 | 15.6 |
| 슬로베니아 | 7.9  | 7.9  | 7.8  | 7.7  | 7.4  |
| 오스트리아 | 7.1  | 6.7  | 6.9  | 6.6  | 6.6  |
| 러시아   | 8.6  | 8.5  | 7.2  | 6.7  | 4.8  |

자료 출처: 크로아티아 통계청

### 101.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대상국별 수출(2003년 추가 자료)

○. 교역 대상국별 수출량 (2003년 기준, 2005년 6월 현재 최신 자료)

| 국가명         | 수출량(크로아티아에서의 수출) 단위, 백만불 |
|-------------|--------------------------|
| 오스트리아       | 480                      |
| 이탈리아        | 1,628                    |
| 독일          | 733                      |
| 헝가리         | 80                       |
| 슬로베니아       | 511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892                      |
| 러시아         | 74                       |
| 기타 국가       | 1,766                    |
| 전체          | 6,164                    |

정보원 : 크로아티아 통계청

## 102.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대상국별 수입(2003년 추가 자료)

○. 교역 대상국별 수입량 (2003년 기준, 2005년 6월 현재 최신 자료)

| 국가명         | 수입량(크로아티아로의 수입) 단위, 백만불 |
|-------------|-------------------------|
| 오스트리아       | 940                     |
| 이탈리아        | 2,581                   |
| 독일          | 2,219                   |
| 헝가리         | 424                     |
| 슬로베니아       | 1,051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31                     |
| 러시아         | 678                     |
| 기타 국가       | 6,075                   |
| 전체          | 14,199                  |

정보원 : 크로아티아 통계청

## 103.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품목별 수출입품목

○. 크로아티아 주요 교역 품목(1999년~2003년, 2005년 6월 현재 최신자료)

<크로아티아 주요 수입품>

| 구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운송장비         | 1,317 | 1221 | 1,323 | 1,377 | 2,128 |
| 석유/ 가스       | 701   | 972  | 938   | 915   | 1,037 |
| 화학제품         | 903   | 964  | 987   | 1,146 | 1,463 |
| 기계장비         | 790   | 712  | 914   | 1,218 | 1,625 |
| 전기,<br>전자 제품 | 609   | 639  | 864   | 1,080 | 1,461 |
| 철강제품         | 616   | 620  | 785   | 956   | 1,292 |
| 식품           | 473   | 474  | 590   | 701   | 888   |
| 농업상품         | 222   | 220  | 261   | 307   | 377   |

자료출처: 크로아티아 통계청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품>

| 구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운송장비        | 797  | 700  | 802  | 698  | 859  |
| 석유/ 가스      | 326  | 454  | 397  | 378  | 485  |
| 화학제품        | 492  | 535  | 472  | 479  | 567  |
| 의복          | 457  | 393  | 394  | 396  | 444  |
| 전기,<br>전자제품 | 285  | 314  | 368  | 441  | 616  |
| 식품          | 333  | 264  | 301  | 368  | 515  |
| 가죽신발        | 186  | 174  | 190  | 189  | 202  |
| 목재제품        | 204  | 203  | 179  | 194  | 252  |

자료출처: 크로아티아 통계청

#### 104.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크로아티아의 품목별 수출입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 상품>

(단위 : 천불, %)

| 순위 | 품목코드<br>(MT13단위) | 품목명       | 2002   |         | 2003(1월~05월)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 합계        | 60,986 | 105.4   | 24,603       | -10.5   |
| 1  | 741              | 자동차       | 18,489 | 2.5     | 15,321       | 152.3   |
| 2  | 824              | 가정용회전기기   | 2,501  | -30.0   | 2,303        | 10.9    |
| 3  | 214              | 합성수지      | 3,827  | 91.1    | 1,528        | -38.3   |
| 4  | 228              | 정밀화학원료    | 692    | 60.3    | 700          | 595.7   |
| 5  | 690              | 기타철강금속제품  | 1,198  | 62.9    | 653          | -18.8   |
| 6  | 814              | 전자응용기기    | 501    | 1,363.7 | 485          | 359.0   |
| 7  | 813              | 컴퓨터       | 580    | 508.3   | 454          | 2,269.6 |
| 8  | 743              | 이륜차자전거및부품 | 159    | -       | 442          | 220.1   |
| 9  | 727              | 제지인쇄기기    | 143    | -41.7   | 400          | 997.2   |

(자료원 : KOTIS)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입 상품>

(단위 : 천불, %)

| 순위 | 품목코드<br>(MT13단위) | 품목명     | 2002  |          | 2003(1월~05월)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 합계      | 3,419 | 20.2     | 1,140        | -35.0   |
| 1  | 421              | 천연섬유사   | 454   | 23,574.1 | 254          | -44.0   |
| 2  | 041              | 어류      | 531   | -50.2    | 212          | -59.2   |
| 3  | 841              | 회전기기    | 512   | 1,439.7  | 207          | -16.9   |
| 4  | 815              | 계측제어분석기 | 29    | 109.0    | 93           | 528.9   |
| 5  | 441              | 의류      | 140   | 150.9    | 88           | 1,058.6 |
| 6  | 045              | 어육및어란   | 405   | -58.7    | 85           | -33.8   |
| 7  | 228              | 정밀화학원료  | 63    | 295.0    | 52           | 87.3    |
| 8  | 513              | 가방      | 39    | -        | 52           | 3,102.5 |
| 9  | 825              | 난방및전열기기 | 241   | 265.1    | 35           | -77.7   |

(자료원 : KOTIS)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품 업데이트>

(단위 : 천불, %)

| 대 크로아티아의 품목별 수출 (단위 : 천불, %) |        |   |        |       |                   |      |  |
|------------------------------|--------|---|--------|-------|-------------------|------|--|
| 순위                           | 품목코드   | 품목명   | 2003년  |       | 2004년<br>(1월~04월)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1                            | 870322 | 기타 차량, 실린더용량<br>1000CC초과 1500CC 이하 (불<br>꽃점화식 엔진) | 13,508 | 91.0  | 6,224             | 16.9 |  |
| 2                            | 870332 | 기타 차량, 실린더용량<br>1500CC 초과 2500CC이하 (압<br>축점화식 엔진) | 4,475  | 118.0 | 2,996             | 79.2 |  |
| 3                            | 399760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6,034  | 59.6  | 2,949             | 98.3 |  |
| 4                            | 870323 | 기타 차량, 실린더용량<br>1500CC초과 3000CC이하 (불꽃<br>점화식 엔진)  | 4,297  | 21.8  | 2,219             | 17.3 |  |
| 5                            | 841510 | 창문형 또는 벽형의 것(자장<br>식의 것 또는 분리형의 것에<br>한한다.)       | 2,407  | -0.7  | 2,171             | 37.5 |  |
| 6                            | 870331 | 기타 차량, 실린더 용량<br>1500CC이하 (압축점화식의 피<br>스톤식 내연기관)  | 1,374  | -7.4  | 1,170             | 60.8 |  |

|    |        |  |       |          |     |      |
|----|--------|--|-------|----------|-----|------|
| 7  | 870421 | 총중량 5톤이하의 화물자동차<br>(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내연<br>기관의 것)      | 1,677 | 193.6    | 947 | 87.1 |
| 8  | 854470 | 광섬유케이블   | 240   | 14,183.3 | 857 | -    |
| 9  | 843143 | 천공용, 시굴용 기계의 부분<br>품                             | 0     | -        | 799 | -    |
| 10 | 870333 | 기타 차량, 실린더용량<br>2500CC초과 (압축점화식의 피<br>스톤식 내연기관 ) | 1,601 | -17.6    | 696 | 43.9 |

자료출처 : KOTIS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입품 업데이트>

(단위 : 천불, %)

| 대 크로아티아의 품목별 수입 (단위 : 천불, %) |        |  |       |       |                   |          |
|------------------------------|--------|--|-------|-------|-------------------|----------|
| 순위                           | 품목코드   | 품목명  | 2003년 |       | 2004년<br>(1월~04월)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1                            | 030420 | 냉동한 피레트  | 85    | -78.9 | 291               | 241.5    |
| 2                            | 850164 | 교류발전기 (출력 750KVA초과)                                      | 426   | -16.8 | 78                | -62.2    |
| 3                            | 611030 | 인조섬유제의 저지. 폴오버.카디<br>건.웨이스트코트(메리야스 또는<br>뜨개질편물의 것에 한한다.) | 0     | -     | 53                | 23,625.5 |
| 4                            | 520612 | 면사 (코움안한면함량 85%미만의<br>단사, 714.29~232.56데시텍스)             | 0     | -99.2 | 38                | 25.4     |
| 5                            | 851690 |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정향<br>체의 부분품                              | 83    | -65.5 | 38                | 25.4     |
| 6                            | 620311 | 양모, 섬수모제의 남자용 슈트<br>(직물제)                                | 0     | -     | 35                | -        |
| 7                            | 620342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앙상블<br>자켓 긴바지가슴받이 멜빵바지<br>승마용바지 짧은바지       | 0     | -     | 29                | -        |
| 8                            | 420212 | 플라스틱. 방직용섬유재료제의<br>트렁크. 슈우트케이스. 기타 유<br>사한 용기            | 58    | -     | 28                | -        |
| 9                            | 640339 | 기타 신발(바닥이 고무. 플라스<br>틱. 가죽제. 감피는 가죽제)                    | 0     | -     | 28                | -        |
| 10                           | 611020 | 면제의 저지. 폴오버.카디건.웨<br>이스트코트(메리야스또는 뜨개질<br>편물의 것에 한한다.)    | 0     | -     | 22                | -        |

자료출처 : KOTIS

## 105.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크로아티아 연도별 수출입 규모

<대크로아티아 연도별 수출 규모>

(단위 : 천불, %)

| 년도   | 금액     | 증가율   | 월별 | 2002   |       | 2003(1월~05월) |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1991 | 0      | -     | 1  | 2,781  | -4.4  | 5,198        | 86.9  |
| 1992 | 1,937  | -     | 2  | 4,124  | -14.5 | 9,431        | 128.7 |
| 1993 | 7,770  | 301.2 | 3  | 6,916  | -24.7 | 12,775       | 84.7  |
| 1994 | 13,536 | 74.2  | 4  | 24,619 | 96.1  | 18,796       | -23.7 |
| 1995 | 36,360 | 168.6 | 5  | 27,502 | 63.7  | 24,603       | -10.5 |
| 1996 | 31,269 | -14.0 | 6  | 30,205 | 54.3  | -            | -     |
| 1997 | 64,420 | 106.0 | 7  | 33,992 | 53.5  | -            | -     |
| 1998 | 70,461 | 9.4   | 8  | 36,037 | 56.4  | -            | -     |
| 1999 | 50,805 | -27.9 | 9  | 38,233 | 62.5  | -            | -     |
| 2000 | 33,768 | -33.5 | 10 | 54,407 | 110.7 | -            | -     |
| 2001 | 29,696 | -12.1 | 11 | 57,434 | 106.9 | -            | -     |
| 2002 | 60,986 | 105.4 | 12 | 60,986 | 105.4 | -            | -     |

(자료원 : KO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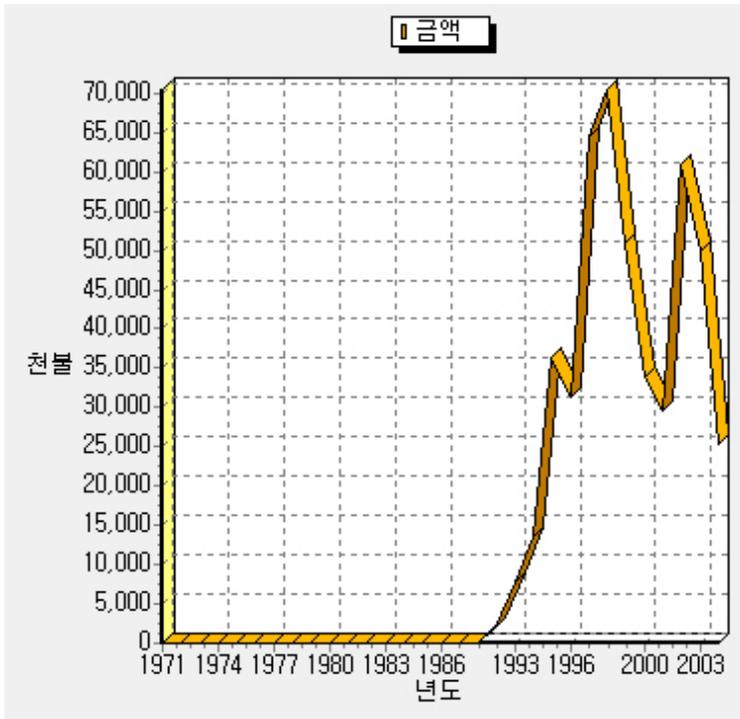
<대크로아티아 연도별 수입 규모>

(단위 : 천불, %)

| 년도   | 금액    | 증가율      | 월별 | 2002  |         | 2003(1월~05월) |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1991 | 0     | -        | 1  | 548   | 9,491.5 | 158          | -71.2 |
| 1992 | 6     | -        | 2  | 553   | 2,597.4 | 508          | -8.2  |
| 1993 | 4,597 | 70,909.2 | 3  | 744   | 1,433.5 | 926          | 24.5  |
| 1994 | 3,077 | -33.1    | 4  | 1,041 | 1,297.9 | 1,040        | -0.1  |
| 1995 | 3,945 | 28.2     | 5  | 1,753 | 861.4   | 1,140        | -35.0 |
| 1996 | 1,595 | -59.6    | 6  | 2,181 | 969.6   | -            | -     |
| 1997 | 450   | -71.7    | 7  | 2,482 | 1,018.6 | -            | -     |
| 1998 | 591   | 31.3     | 8  | 2,566 | 864.7   | -            | -     |
| 1999 | 365   | -38.2    | 9  | 2,675 | 610.9   | -            | -     |
| 2000 | 1,288 | 252.4    | 10 | 2,913 | 49.5    | -            | -     |
| 2001 | 2,844 | 120.9    | 11 | 2,966 | 20.2    | -            | -     |
| 2002 | 3,419 | 20.2     | 12 | 3,419 | 20.2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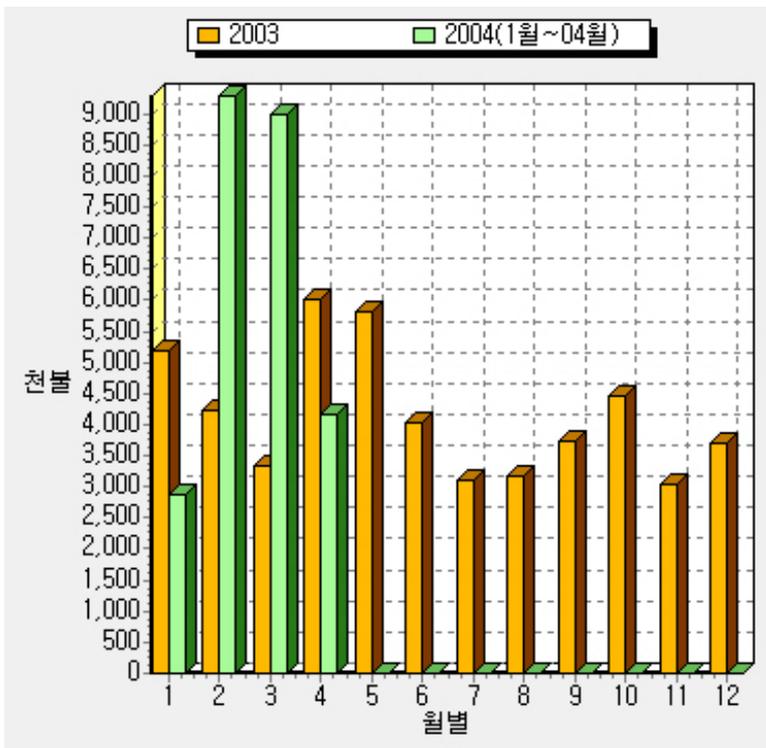
(자료원 : KOTIS)

<연도별 수출규모(1971~2004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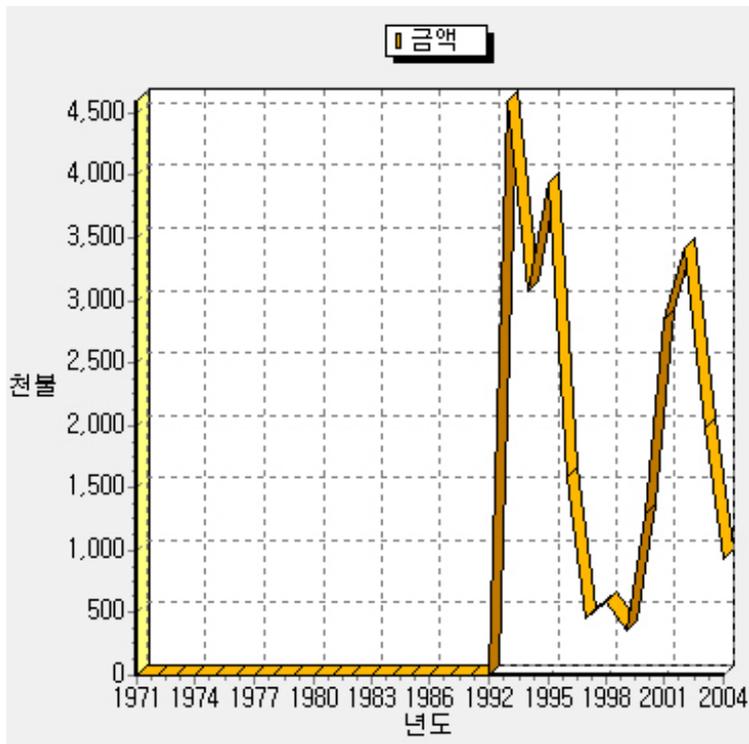
자료출처 : KOTIS

<최근 수출 규모(2003년~2004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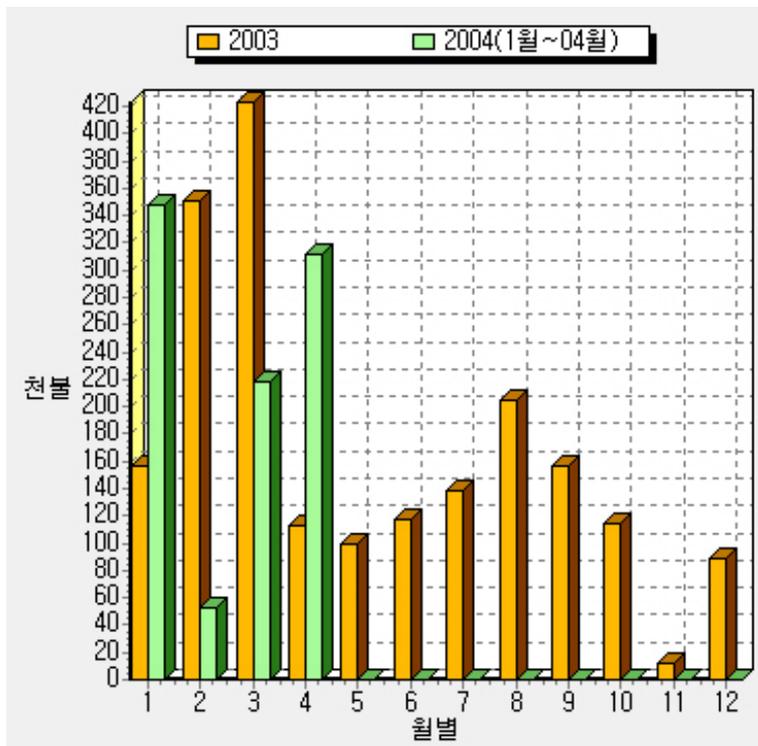
자료출처 : KOTIS

<연도별 수입규모(1971~2004년 4월)>



자료출처 : KOTIS

<최근 수입 규모(2003년~2004년 4월)>



자료출처 : KOTIS

---

## 106.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한-크로아티아 투자교류 통계

최근 3년간 한-크로아티아 투자교류실적은 없음